

SHEAN.T

고1 당시 영어 모의고사 5등급

한국외대 영어통번역학과 4년 장학

국내파 통역장교, 4성장군 통역

최초 수능영어 주간지, 주간 KISS 저자

오르비 베스트셀러, Masterpiece 영어모의고사 저자

인강 대성마이맥

검토

Mi Youn, Hyoung

디자인 & 편집

Chae Hyeon, Seong Gyun, Su Hyun

HI GUYS!

하이 가이드즈, 션티입니다.

어느새 2023학년도 수능영어 마지막 커리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올해 6평 영어는 어려운 편이었고, 9평 영어는 무난한 난이도였습니다. 평가원 출제 패턴 학습을 통해, 이제는 수험생들도 '9평이 물이었으니 수능은 불이겠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쉽게 나오겠네' 하며 영어 공부를 덜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한 마음가짐이라 생각합니다. '수능날 영어 어렵겠네..'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많을테지만, 간접연계 50% 시대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material은 정해져 있습니다.

- ① 작년 수능, 올해 6/9 평가원
- ② 최중요 최근 평가원, 최중요 올해 EBS, 관련 비연계
- ③ 실전 모의고사

1번은 두말 할 필요 없이, 올해 수능영어를 낼 때 출제위원 분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3개의 시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수능영어만 10수 이상 한 사람으로 보신다면, 저는 매년 '아.. 또 작년 수능에 있는 이 단어, 표현, 로직 개념 그대로 나왔네, 올해 6/9평에 쓰인 순/삽 근거나 어휘, 구문, 로직 그대로 나왔네' 이렇게 느낍니다. 소위 '데자뷰'를 느낍니다. 제발제발제발, 파이널에는 양적으로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3개의 시험지를 '단어, 해석, 논리'를 내가 씹어 먹고 또 씹어 먹어 완벽히 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이널이라고, 또 수능영어 어렵게 나온다고 '어려운 문제 풀고 채점하기'만 하시면, 평생 2, 3등급 위로 못 올라갈 것을 확신합니다. 이 세 개 시험지는 적어도, 3회독 이상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씹어 먹어야 할 두번째로 중요한 콘텐츠는, 최중요 최근 평가원 기출과 EBS입니다. 이 KISS ESSENCE에는, 작수 및 올해 6/9평과 논리/소재 면에서 중요한 연관이 있는 최근, 최중요 평가원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주간 KISS에서 선별). 분명 평가원이 '최근' 좋아하는 논리/소재 지문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해서 혹 아직까지도 제대로 최근 중요한 평가원 기출을 보지 않은 학생이라면 무조건 보고 가셔야 하고, 이미 이 기출들을 본 학생이라도, 다시 한번 내가 단어, 해석, 논리에서 막힘이 없는가 완벽히 소화하셔야 합니다. 절대 아까운 시간이라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또한, 간접연계 50%가 유지되는 만큼, 학생들은 EBS를 아예 안 보고 가기에는 '찝찝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실제로 6, 9 평가원에서 몇 개의 문항은 EBS의 중요 지문 소재의 익숙함을 느낄 수 있게 출제되었습니다. EBS가 critical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평가원 외 어렵고 중요한 지문을 볼 거라면 '그래도' 익숙한 소재가 보일 수 있는 EBS 지문을 보는 게 낫다는 생각이 당연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KISS ESSENCE에는, 주간 KISS에 한정된 지문 개수로 인해 수록하지 못해 아쉬웠던 평가원스러운 EBS 지문들을 선별 및 변형하고, 새로운 비연계 지문들을 더 하여 2회분의 독해 모의고사를 수록하였습니다. 마스터피스 모의고사와 함께, 가장 평가원에 근접한 지문들로 실전 연습을 충분히 하고 수능장에 들어가셨으면 합니다.

EBS 직접연계가 있었던 2021학년도까지는 최중요 150~170개 지문을 'EBS 선별'로 구성했습니다. 다시 KISS ESSENCE는 이 EBS 150개 지문의 '단어/해석/논리'를 씹어 먹어 마지막 '영어력'을 기르는 한편, 이 150개 지문 중 5개 이상 지문이 수능에 그대로 보여 꿈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해서 막판 2등급 향상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영어+논리력 향상' 및 '내신 특성 버프'를 통해 막판 뒤집기가 가능했던 것이지요.

올해도 대략 170개 지문으로 '단어/해석/논리'를 씹어 먹어 마지막 '영어력+논리력'을 향상시킨다는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으나, 이 EBS 직접연계가 사라져 dramatic한 막판 상승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당연히 수능날 포텐이 터지는 누군가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수능, 올해 6/9평, 최중요 평가원 및 EBS의 단어/해석/논리를 씹어 드시면, 막판 향상된 영어력은 물론, 수능에서 단어/해석/논리/소재 측면의 '데자뷰' 현상을 통해, 학생에 따라 막판 1~2등급 향상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잡다한 컨텐츠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액기스만 담은 '에센스'를 '제대로' 하시고, 진인사대천명하시기 바랍니다.

선티 드림.

CONTENTS

WEEK 1

- 작수 및 올해 6, 9평 대의과약 묶어 보기
- 논리/소재 연관성 높은 평가원 기출 수록(주간 KISS)

WEEK 2

- 작수 및 올해 6, 9평 어법, 어휘, 요약, 2장문 묶어 보기
- 논리/소재 연관성 높은 평가원 기출 수록(주간 KISS)

WEEK 3

- 작수 및 올해 6, 9평 빈칸 묶어 보기
- 논리/소재 연관성 높은 평가원 기출 수록(주간 KISS)

WEEK 4

- 작수 및 올해 6, 9평 흐름/순서/문삽 묶어 보기
- 논리/소재 연관성 높은 평가원 기출 수록(주간 KISS)

WEEK 5

- 올해 최중요 EBS 및 비연계로 구성된 독해모의고사
(주간 KISS EBS 지문과 중복 X)

WEEK 6

- 올해 최중요 EBS 및 비연계로 구성된 독해모의고사
(주간 KISS EBS 지문과 중복 X)

STUDY GUIDE

* 기본적으로 '풀채단해논'이 모든 영어 학습의 핵심이다. 풀고, 채점하고, 단어 다 내 것으로 만들고, 해석 어려운 문장은 이렇게 해석 되는구나 익히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답이 나오는구나 확인하는 것. 여기서 '풀채'만 해서는 절대 1등급이 될 수 없다.

WEEK 1~4

- 풀: 하루치 문제를 시간 재고 푼다. 보통 대의파악은 1분 30초 ~ 2분, 그 외 어려운 문항은 실력에 따라 2분 30초 ~ 3분을 준다.

* 중요 포인트: 내가 이미 답을 아는 평가원 문제라고 해서 그냥 답만 찍는 우매한 짓은 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내가 답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지문을 오롯이 요리하면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지 잘 체크하며 내려와야 한다.

- 채: 채점을 한다. 채점 후 틀린 여부와 관계 없이 '스스로' 단어/해석/논리 측면에서 모르는 부분을 체크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꼭꼭꼭 가진다.

- 단: 해설을 보며 내가 몰랐던 단어/표현을 모두 나만의 단어장에 적으며, 적는 시간 및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철저히 암기한다.

- 해: 문제에 집착 말고, 우선 하나의 지문이 적어도 7, 80% 정도는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해석이 안 됐던 부분을 직독직해를 참고하며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구나' 익히시고, 이 또한 본인만의 해석 노트에 따로 적어 정리하면 좋다.

- 논: KISS Logic 해설을 보면서 내가 반응했어야 할 부분, 여기는 이래서 중요하고 이런 ABPS 논리를 끌어낼 수 있고 그래서 답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해한다. '실전'에서 상세한 KISS Logic 해설처럼 완벽하게 풀 수는 없다. 허나, '평소'에 이렇게 완벽하게 다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중요한 부분과 아닌 부분을 구분할 줄 알려고 학습해야, '실전'에서 이게 70% 정도 발휘되어서 문제를 푸는 것이다.

WEEK 5~6

- 풀: 독해 모의고사 1세트를 시간 재고 푼다. 50분이 적당하다.

* 중요 포인트: 내가 이미 답을 아는 EBS 문제라고 해서 그냥 답만 찍는 우매한 짓은 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내가 답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지문을 오롯이 요리하면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지 잘 체크하며 내려와야 한다.

- 채: 채점을 한다. 채점 후 틀린 여부와 관계 없이 '스스로' 단어/해석/논리 측면에서 모르는 부분을 체크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꼭꼭꼭 가진다.

- 단해논의 '방식'은 평가원과 똑같다. 단, 하루에 대략 5문제 씩 평가원처럼 철저히 단해논을 씹어먹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대략 5일 간 독해 모의고사를 풀고 분석한 뒤, 주말에는 마스터피스를 풀고 단해논 분석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 중요 포인트: 등급별로 하루치 '단해논'을 제대로 하는 시간이 다 다를 것이다. '보통' 1등급 친구는 1시간도 안 걸릴 것이고, 2등급 친구들은 1시간 ~ 1시간 반, 3등급 친구들은 1시간 반 ~ 2시간, 4등급 이하 친구들은 더 걸려야 '정상'이다. 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단해논' 파트를 제대로 안 하고 속속 넘어가면, 제대로 된 성적 향상은 힘들다. 하나의 지문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완벽히 소화하고 가자.

* 중요 포인트: 총 6주 과정으로 구성했지만, 당연히 남은 시간에 따라 2일, 3일씩 묶어서 3주, 2주만에 끝낼 수도 있겠다. 그만큼 하루에 시간을 더 투자하여 '단해논' 파트만 제대로 하길 바랄 뿐이다.

* 중요 포인트: 에센스를 '제대로' 하는 게 이번 수능영어에 가장 중요한 부분. 이걸 제대로 한 사람만이 추가적으로 많은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게 맞다. 마스터피스만으로 부족하다면, 에센스를 제대로 끝낸 친구의 경우, 막바지에 기타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서(이때도 단해논은 꼭 가져가려 하자) 수능 전 마지막을 마무리하면 되겠다.

센터를 처음 접하는 학생은 KISS Logic부터 읽기

① AB는

정말 간단히 말하면, 수능영어 지문의 핵심 구조는 not only A but also B라는 겁니다. B는 필자가 강조, 주장하고 싶은 것이고요. 필자가 '복습'을 강조하고 싶어서 글을 썼다, 그럼 복습이 B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지문에서 '복습이 중요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고요. '예습도 중요한데, 복습이 '더' 중요해'라고 비교대조하며 표현해주고, 우리의 목적은 저 AB라는 key message를 찾는 것입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은 버리고, 중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많은 경우에는 'A가 문제(P)가 있으니, B가 좋아(해결책이야 S)'라는 것이지만, 한 30% 정도는 S가 없이 대상의 P만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강조하는 게 P이므로, P가 B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② AB/PS는

결국 '단어력' 그리고 해석력이 따라주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3등급 이하는 AB/PS에 너무 목매기 보다(활용은 하려고 하되) 우직하게 단어 외우고, 외운 단어로 지문을 '한국말로 요리조리' 해석하며 '아 해석이 되는구나' 재미를 좀 더 느껴보세요. 그 과정에서 AB/PS가 느껴지면 좋고, 아니더라도 절대 문제 없습니다.

③ AB/PS라는

어떤 '알파벳'에, 그 '기호'에 함몰되지 마세요. 이는 '본질'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본질은 아 필자가 자신이 강조하는 것(B)을 드러내기 위해 대립항(A)을 세워서 많이 강조하는구나. 그 속에 문제 의식도 섞여 있겠네, 이런 관점에 중점을 두고 읽어야지, 가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CE(원인,결과) ME(수단,목적)도 많이 강조했는데, 역시 수능에서의 도구는 최소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둘만 기억하며 읽으라는 겁니다. '둘로 나눠 지나?' '이거 문제인가?' 이 생각만 하며 지문을 읽으세요. 이 대상, 개념을 필자는 문제가 있다고 보니 이를 까는 것이고, 이와 대립되는,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대상, 개념이 나오겠네! Could it be simpler?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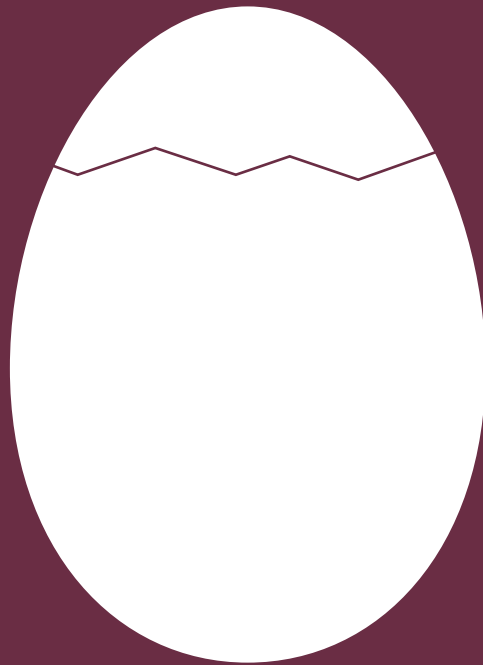
TABLE OF CONTENTS

INTRO	P. 2 - 9
WEEK 1	P. 10 - 39
WEEK 2	P. 40 - 69
WEEK 3	P. 70 - 99
WEEK 4	P. 100 - 129
WEEK 5	P. 130 - 157
WEEK 6	P. 158 - 185

수능영어의 노력이라는 가치를 믿기에, 이를 가르칩니다.
꼭 1등급이 나와 수시, 정시에서 큰 우위를 가지길 바라며

WEEK 1

내의파악



BREAK THE KISS EGG

DAY 1

* 작수, 올해 6/9 요지(22)

- 세 문항 모두 명확한 AB의 개념이 보인다. '개인 vs. 집단(작수)', '수동 vs. 능동(올6평)', '경제 vs. 도덕(올9평)'. 주의해야 할 점은, 올해 6, 9평 모두 소위 '마지막 문장만 읽어도' 답이 나올 수 있게 마지막 문장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문장이었으나, 작년 수능은 오히려 지문 중간 문장이 정답 근거 문장이었다는 것. '어디를 중점적으로 보면 좋다'는 팁은 어디까지나 팁임을 명심.

DAY 2

* 작수, 올해 6/9 주제(23)

- 세 문항 모두 난이도가 높다. 특히 올해 6, 9평의 경우 공통적으로 역접 후 AB를 뒤집는 전개였다. 올해 6평의 경우 역접(however)이 두번이나 나오는데, 결국은 마지막 역접 뒤가 답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였다 할 수 있겠다. 올6평의 경우 '같음(선천) vs. 다름(후천)'이라는 혼한 AB였으나 어려웠고, 작수 및 올9평은 모두 혼하지 않은 개념의 AB였다. 다만 세 문항 모두 'B' 키워드가 정확히 들어간 선지가 정답이였다.

DAY 3

* 작수, 올해 6/9 제목(24)

- 세 문항 모두 명확한 AB 개념 지문이었다. 특히 작수, 올6평은 공통적으로 '기계 vs. 인간'의 AB였기 때문에, 여전히 기계(AI)와 인간에 대한 소재 지문은 중요하다. 다만 작수의 경우 기계, 인간의 '대립'이 강했다면, 올6의 경우 '협력'이 B인 지문이었다. 올9평은 음악에 대한 '같음/고정 vs. 다름/변화'의 AB였다. 공통적으로 기출에서 혼한 AB 개념들이었기에 올해 수능 제목도 익숙한 AB 개념일 확률이 높겠다.

DAY 4

* 작수, 올해 6/9 의미(21)

- 세 문항 모두 명확한 AB 지문이었다. 특히 올 6/9평의 경우 '객관 vs. 주관(올6평)', '같음(수렴) vs. 다름(발산)(올9평)'으로 기출의 아주 classic한 AB 개념이었다. 밑줄을 A, 혹은 B의 개념으로 정확히 정의하고 선지의 A 혹은 B 키워드와 정확히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작수의 경우 AB를 전개하다가 지문 2/3 지점 But을 통해 AB를 뒤집는 논리를 펼쳤으니 이 또한 주의하도록 하자.

DAY 5

* 주간 KISS 최중요 평가원 4문제(주제)

- 작수, 올6/9평을 비롯하여 가장 많이 출제된, 그래서 수능에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AB 지문들로 구성하였다. '인간 vs. 기계 협력' 지문은 넣을 수밖에 없었고, '유전 vs. 환경', '개인 vs. 집단', '고정 vs. 변화'의 AB 지문들로 구성하였다.

DAY 6

* 주간 KISS 최중요 평가원 4문제(제목)

- 제목 문항 또한 가장 많이 출제된, 그래서 수능에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AB 지문들로 구성하였다. 20.수능 지문은 PS이나 '환경' 소재는 여전히 너무 중요하기에 수록하였고, '유전(선천) vs. 행동(후천)', '정확 vs. 부정확' AB 소재는 여전히 출제 1순위이다. 22.9 지문의 '정부 vs. 시민'의 AB와 같은 민주주의 관련 얘기 또한 항상 수능에 자주 보이는 편.

DAY 7

* 주간 KISS 최중요 평가원 4문제(의미)

- 올6/9평 모두 classic한 AB 개념이었기 때문에 역시 classic한 AB 소재 의미 문항들로 선별하였다. '인간 vs. 자연', '타인 vs. 자신' '개인 vs. 협력'과 같은 AB는 수능에 또 출제될 수 있는 최중요 AB기 때문에 꼭 챙기도록 하자.

SHEAN.T'S COMMENT

요지 정답: ①번

아주아주 기출 전형적인 ABPS 지문이다. 기출 로직 학습이 잘 되어 있다면 아주 익숙하게 읽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대충 날려 읽어서는 안 된다. 정확히 ABPS의 키워드를 잡으며 읽어야 한다. 아, 환경 P가 있고, 이에 대한 S는 사회적 대응이고, 근데 그 속에 '개인 vs. 사회' AB 대립성도 있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적어도 3개년, 아니 5개년 평가원 기출 학습을 강조하며...

P — not A: 개인 환경 위험, but B: 사회 환경 위험

S: 사회적 대응

VOCABULARY

1. hazard	1. 위험 (요인)	9. measure	9. 조치, 척도
2. promote	2. 조장하다	10. have no choice but to V	10. ~할 수밖에 없다
3. exposure	3. 노출	11. arsenic	11. 비소
4. contaminant	4. 오염 물질	12. passively	12. 수동적으로
5. involuntary	5. 자기도 모르게 하는	13. outrage	13. 화나게 하다
6. elimination	6. 제거	14.	14.
7. societal	7. 사회의	15.	15.
8. public awareness	8. 대중의 인식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2.수능.22

Environmental **hazards**(P) include biological, physical, and chemical ones, along with the human behaviors that **promote** or allow **exposure**. Some environmental **contaminants**(P) are difficult to **avoid**(P) (the breathing of polluted air, the drinking of chemically contaminated public drinking water, noise in open public spaces); in these circumstances(P), exposure is largely **involuntary**(P).

환경 위험 요인은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위험 요인을 포함한다 / 노출을 조장하거나 허용하는 인간의 행동과 함께. / 일부 환경 오염 물질은 피하기가 어렵다 / (오염된 공기의 호흡, 화학적으로 오염된 공공 식수의 음용, 개방된 공공장소에서의 소음처럼); / 이러한 상황에서 노출은 대개 자기도 모르게 이루어진다.

SHEAN.T 첫 단어부터 쉽지 않은 hazard이다. 이를 '위험'으로 알고 있는 친구라면 문제 없이 P로 잡고 진행할 것이고 아닌 친구들은 말릴 것이다. 결국 제발 어휘... 이를 알고 있다면 첫 두 문장은 빠르고 정확하게 P로 잡아준다. 환경 위험, 오염 물질이 P구나. 이 P에 대한 노출이 비자발적이라는 P의 내용이 되겠다.

Reduction or **elimination** of these factors(PS) may require **societal action**(S), such as **public awareness** and public health **measures**.

이러한 요인의 감소 또는 제거는 필요로 할 수 있다 / 대중의 인식 및 공중 보건 조치와 같은 사회적 조치를.

SHEAN.T 이러한 P 요인들을 줄이는 것이니 S 문장이 되겠다. '사회적 조치(행동)'을 S로 잡아주자. 기출 학습을 많이 했다면 익숙한 S다.

In many countries, the fact that some environmental hazards are difficult to avoid(P) at the individual level(A) is felt to be more **morally egregious**(P) than those hazards that can be avoided(S 가능한 P).

많은 국가에서, 일부 환경적 위험 요인이 개인 수준에서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 도덕적으로 더 매우 나쁜 것으로 느껴진다 / 피할 수 있는 그 위험 요인보다.

SHEAN.T 다시 P 문장으로 바뀐다. 우선 단순하게는 than 앞뒤 대립성을 잡아주어야 한다. than 뒤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니 S 가능한 P, than 앞은 S 불가능한 P 정도로 인지할 수 있겠다.

SHEAN.T 여기에 더해, 기출 AB 학습이 충분한 친구라면, '개인 vs. 사회(집단)'의 AB는 지겹도록 나왔으므로, individual에 반응하면서, 아 개인 vs. 사회의 AB도 있구나 생각하며 앞 문장의 societal을 B, individual을 A로 잡을 수도 있겠다. 개인으로는 S가 불가하니 사회적으로 S하자는 얘기구나!

Having no choice but to drink water contaminated with very high levels of arsenic, or being forced to passively breathe in tobacco smoke in restaurants(PB), **outrages** people more than the personal choice of whether an individual smokes tobacco(PA). These factors(PB) are important when one considers how change (risk reduction) happens.

* contaminate: 오염시키다 ** egregious: 매우 나쁜
어쩔 수 없이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것 / 매우 높은 수준의 비소로 오염된, / 혹은 식당에서 담배 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시도록 강요당하는 것은 /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한다 / 개인이 담배를 피우지 말지에 대한 개인적인 선택보다. / 이러한 요인들은 중요하다 / 변화(위험 감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고려할 때.

SHEAN.T 문장이 길고 정보가 많다. 역시 than 앞뒤로 단순화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than 앞에서는 'passively'에 반응하는 것이 좋다. 아 내가 '능동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P구나. than 앞이 어려워 이해가 안 되더라도 than 뒤 personal, individual에 무조건 반응하면서, than 앞은 '사회적 P구나'라고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지문은 개인적 P가 아닌 사회적 P(그래서 개인이 피하기 어려운 P)의 AB가 핵심이다.

SHEAN.T 정말 기출 전형적인 ABPS 수능 지문이고, 1번 선지에 예쁘게 지문의 AB, PS의 개념이 모두 들어있음을 확인하자.

- ① 개인(A)이 피하기 어려운 유해 환경 요인에 대해서는 **사회적(B) 대응이 필요하다**.(PS)
- ②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off)
- ③ 다수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도덕적 비난 이상의 조치가 요구된다**.(off)
- ④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다**.(off)
- ⑤ 대기오염 문제는 **인접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off)

SHEAN.T'S COMMENT VOCABULARY

요지 정답: ①번
 지문 상단에서 B의 키워드를 제시하고 뒤에서 이 B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AB를 치며 전개하는, 좋은 평가원 지문이다. 혹 틀린 친구가 있다면 마지막 문장까지 제대로 잡아주지 않아서일 것이다. 아예 눈도 가지 않는 문장은 없다. 눈으로 문장을 보고 흘릴지 제대로 잡고 읽을지 판단하는 것. 마지막 문장도 from A to B 구문과 passive vs. active라는 개념 대립성 보는 순간 정확히 잡아주고 정답 선지와 연결할 생각을 해야 한다.

소비자 정보
 A: 개인 정보, 수동적 활용
 B: 정보 공유, 심층 이해, 능동적 활용

1. overlook	1. 간과하다	9. in whole(part)	9. 전체로 (부분으로)
2. play a role	2. 역할을 하다	10. conflicted	10. 갈등을 겪는
3. notion	3. 개념	11. current	11. 현재의
4. privacy paradox	4. 개인정보 역설	12. location	12. 위치
5. engagement	5. 참여	13. arm(v)	13. 무장시키다
6. explode	6.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14. passive(↔active)	14. 수동적인(↔능동적인)
7. awareness	7. 인식	15. bystander	15. 방관자
8. pay the price	8. 대가를 치르다	16. participant	16. 참여자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3.6.22(오답률: 50.6%)

Often **overlooked**, but just as **important** a stakeholder, is the consumer(B) who **plays a large role** in the **notion** of the **privacy paradox**. **Consumer engagement levels(B)** in all manner of digital experiences and communities have simply **exploded** — and **they(B)** show **little or no signs of slowing(P)**.
 흔히 간과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 개인정보 역설이라는 개념에서 큰 역할을 하는 소비자이다. / 모든 방식의 디지털 경험과 공동체에서 소비자의 참여 수준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 둔화될 기미가 거의 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SHEAN.T 첫 문장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니, 어렵지 않게 '소비자'를 B로 잡을 수 있겠다. 개인 정보(사생활)의 역설..?은 아마 순간적으로 무슨 소리인가 할 것. P 정도로 느끼고 우리는 우선 다음 문장의 주어에도 '소비자 참여'가 나오는 걸 보면서 소비자라는 중요 키워드를 B로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There is an **awareness** among consumers, **not only** that **their personal data(A)** helps to drive the rich experiences that these companies provide, **but also** that **sharing this data(B)** is the **price** you **pay** for these experiences, **in whole or in part**.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인식이 있다 / 자신들의 개인 정보가 도움이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 이러한 회사들이 제공하는 풍부한 경험을 추진하는 데 /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전체로든 부분으로든, 이러한 경험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이기도 하다는.

SHEAN.T not only A but also B를 통해서 AB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잡아주자. 소비자의 개인 데이터(A)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B)이 경험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Withou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what, when, and why of **data collection and use(B)**, the consumer is often **left feeling vulnerable and conflicted(P)**. "I love this restaurant-finder app on my phone, but what happens to my data if I press 'ok' when asked if that app can use my **current location**?"
 정보 수집 및 이용의 내용과 시기, 이유에 대해 더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 / 소비자는 흔히 취약하고 갈등을 겪는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 "내 전화기에 있는 이 식당 검색 앱이 마음에 드는데 / 내 정보는 어떻게 되는 걸까 / 그 앱이 내 현재 위치를 이용할 수 있는냐고 물을 때 'ok'를 누르면?"

SHEAN.T Without에 반응하시고, 선택지가 많이 강조하는 논리다. not B → P. 데이터의 육하원칙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B로 잡아주자. 이게 없으면 P다. 이를 제대로 잡았다면, 인용문 예시는.. 거의 안 읽다시피 해도 되겠다.

Armed with tools that can provide them options(B), the consumer moves **from passive bystander(A) to active participant(B)**.
 * stakeholder: 이해관계자 ** vulnerable: 상처를 입기 쉬운
 그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로 무장한 소비자는 / 수동적 방관자에서 능동적 참여자로 이동한다.

SHEAN.T 앞에까지 읽고 답을 고르면 안 되고 마지막까지 중요한 AB 시그널이 없는지 체크해야 한다. from A to B라는, 역시 많이 강조한 AB 표현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수동 vs. 능동'의 AB 개념도 확실히 잡아주어야, 다른 선지를 '대충' 고르지 않고, 1번 선지에서 '심층적 이해'와 '주체적(능동적)'을 B로 잡아주면서 '정확히' 고를 수 있겠다.

- ① 개인정보 제공의 속성을 심층적으로 이해(B)하면 주체적 소비자(B)가 된다.
- ② 소비자는 디지털 시대에 유용한 앱을 적극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off)
- ③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off)
- ④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응하는 대가가 뒤따른다.(off) (20.9%)
- ⑤ 타인과의 정보 공유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한다.(off)

SHEAN.T'S COMMENT

요지 정답: ⑤번

지문 초반 AB가 제시되고 지문 중간 But 뒤에서 최종 AB가 결정되는, 평가원의 논리 구조를 깔끔하게 보여주는 문항이다. 경제학 vs. 도덕의 AB 개념도 아주 평가원스러운 느낌. 평가원 요지의 느낌이 물씬 나는 지문이니 단어 해석 논리 꼼꼼하게 연어가자.

조세 입법

A: 경제, 역사 → 목표 식별 불가(P)

B,S: 도덕, 윤리, 분배 정의

VOCABULARY

1. drafter	1. 입안자	9. application	9. 적용
2. attentive	2. 주의를 기울이는	10. distributive	10. 분배의
3. moral, morality	3. 도덕의, 도덕성	11. go a long way to N	11. ~에 크게 도움되다
4. label	4. 일컫다, 분류하다	12. legislature	12. 입법부
5. controversial	5. 논란이 많은	13. in a vacuum	13. 진공 상태에서
6. irrelevant	6. 관련 없는	14. identify	14. 확인(식별)하다
7. at the heart of	7. ~의 핵심에	15. ethics	15. 윤리
8. fundamental	8. 근본적인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3.9.22

Historically, **drafters** of tax legislation are **attentive** to questions of economics and history(B), and **less attentive** to **moral questions**(A). Questions of **morality**(A) are often pushed to the side in legislative debate, **labeled too controversial, too difficult to answer, or, worst of all, irrelevant** to the project(P).

역사적으로, 조세 입법 입안자들은 경제학과 역사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 도덕적 질문에는 주의를 덜 기울인다. / 도덕성에 관한 질문은 종종 입법 토론에서 옆으로 밀려난다, / 그리고 분류된다 / 너무 논란이 많거나, 답변하기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계획과 무관한 것으로.

SHEAN.T 첫 문장 less에 반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조세 입법에 있어서 경제, 역사에 집중하고, 도덕적 질문에는 집중을 '덜' 했다. 뭐가 A고 뭐가 B이기 이전에, 경제, 역사 vs. 도덕이 이 지문의 두 대립 개념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SHEAN.T 피상적으로 생각해서 less라는 부정어에 도덕이 걸리니 도덕이라는 개념을 A로, 역사/경제를 B로 잡을 수도 있겠고, 두번째 문장에서 도덕성에 대한 질문이 '종종(often)' 옆으로 밀려나고(부정되고) P로 여겨진다...는 뉘앙스에서 필자는 이 상황을 까꿍구나...라고 경험/내공에 의해 느껴진다면, 이미 도덕을 B로 잡을 수도 있겠다.

But, in fact, the moral questions of taxation are at the very heart of the creation of tax laws(A→B). Rather than irrelevant(P), moral questions(B) are fundamental to the imposition of tax(S). Tax is the application of a society's theories of distributive justice(B).

하지만, 사실, 조세의 도덕적 문제는 세법을 만드는 핵심에 있다. / 무관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질문은 세금 부과에 근본적이다. / 세금은 사회의 분배 정의 이론을 적용한 것이다.

SHEAN.T 역시 But!!!이 나온다. 이미 도덕을 B로 읽은 친구라면 '역시' 하면서 B로 가면 되고, 혹 도덕을 A로 잡은 친구라면 이 But 뒤 로직이 쩐 로직이니 여기서 도덕을 B로 바꿔주면 되겠다. 왜? 도덕적 질문이 세법의 무려 심장(heart)... 핵심에 있다고 하니까.

SHEAN.T Rather than에 또 반응하면서, 콤마 앞뒤 PS를 잡아주자. 도덕적 질문은 무관한 것(P)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이다(S). 분배 정의(distributive justice)라는 개념도 도덕, 즉 B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Economics(A) can go a long way towards helping a legislature determine whether or not a particular tax law will help achieve a particular goal, but economics(A) cannot, in a vacuum, identify the goal(S). Creating tax policy requires **identifying a moral goal(B), which is a task that must involve ethics and moral analysis(B).**

* legislation: 입법 ** imposition: 부과
경제학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입법부가 결정하는 것을 돕는 것에 / 특정 세법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지를, / 하지만 경제학만으로는 목표를 규명할 수 없다. / 조세 정책을 만드는 것은 도덕적 목표를 규명하는 것을 요구한다, / 그런데 그것은 윤리학과 도덕적 분석을 수반해야 하는 과업이다.

SHEAN.T 지문 하단에 눈에 띄는 문장 전환 역접은 없으니, 가볍게 AB 확인하는 정도로만 읽자. 문장 중간 but 앞뒤로 경제학(A)이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목표를 식별(규명)하는 S는 못한다는 한계를 잡아주고, 조세 정책에는 도덕적(B) 목표 식별(규명)이 필요함을 잡아주자.

SHEAN.T 지문의 소재와 로직 B, 즉 도덕 키워드를 그대로 넣은 5번으로 가자.

- ① 분배 정의를 실현하려면 시민 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off)
- ② 사회적 합의는 민주적인 정책 수립의 선행 조건이다.(off)
- ③ 성실한 납세는 안정적인 정부 예산 확보의 기반이 된다.(off)
- ④ 경제학(A)은 세법을 개정할 때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 ⑤ 세법을 만들 때 도덕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NOTE

SHEAN.T'S COMMENT

주제 정답: ⑤번

쉽지 않은 주제 문제이다(그러니 3점..). 가장 쉽지만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 할 수 있는 첫 문장에서 확실히 '믿음 vs. 사용'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박고 뒤를 읽어 나가며 해당 개념만 확인하며 읽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많은 정보량과 어려운 단어들에 '무슨 소리지...?'라고 읽고 남는 것이 없고 무슨 소린지 모르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지문. '사용'이라는 개념을 '기능'과 연결하는 국어력도 중요한 문항이었다.

과학자들

A: 패러다임 믿음

B: 패러다임 사용

VOCABULARY

1. address(v)	1. 다루다	9. note(v)	9. 언급하다, 주목하다
2. employ	2. 사용하다	10. identification	10. 식별
3. experimental	3. 실험의	11. attempt	11. 시도(하다)
4. theoretical	4. 이론적인	12. interpretation	12. 해석
5. presuppose	5. 상정하다, 전제하다	13. rationalization	13. 이론적 설명, 합리화
6. comparable	6. 비슷한, 비교할 만한	14. standard	14. 표준(의)
7. unity	7. 통일성, 일치	15. draw	15. 도출하다
8. account	8. 설명, 이야기	16. like-minded	16. 생각이 비슷한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2.수능.23

Scientists use paradigms(B) rather than believing them(A). The use of a paradigm(B) in research typically addresses related problems(PS) by employing shared concepts, symbolic expressions, experimental and mathematical tools and procedures, and even some of the same theoretical statements(S).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믿기보다는 그것을 사용한다. / 연구에서 패러다임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관련된 문제들을 다룬다 / 사용함으로써 / 공유된 개념, 상징적 표현, 실험 및 수학적 도구와 절차, 그리고 심지어 동일한 이론적 진술의 일부를.

SHEAN.T 첫 문장부터 rather than이 제시되고 있으니 AB를 잡아주자. A는 패러다임을 믿는 것, B는 패러다임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다. 딱 와닿는 개념은 아니지만, '믿음 vs. 사용'이라는 대립성 속에서, A는 관념적인 것이고 B는 실질적이라는 생각이 들면 아주 좋다. 다음 문장에서 이 B를 S의 내용으로 이어가고 있다. by 뒤 S의 요소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정보량이 너무 많으므로 그냥 S 내용이구나 통~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Scientists need only understand how to use these various elements in ways that others would accept(B, S). These elements of shared practice thus need not presuppose any comparable unity in scientists' beliefs(A) about what they are doing when they use them. Indeed, one role of a paradigm is to enable scientists to work successfully(B) without having to provide a detailed account of what they are doing or what they believe about it(A).

과학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기만 하면 된다 /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방식으로. / 따라서 이러한 공유된 실행의 요소들은 그 어떤 비슷한 통일성을 전제로 할 필요는 없다 / 과학자들이 그것들을 사용할 때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 관한 그들의 믿음에서. / 실제로, 패러다임의 한 가지 역할은 과학자들이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필요 없이 /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는 그들이 그것에 관해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SHEAN.T need, need not의 표현이 나오니 어렵지 않게 각각 B, A 쪽으로 잡아주자. 역시나 B의 개념은 how to use, 즉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개념이고, A는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Indeed 문장에서 without 앞을 B, 뒤를 A로 잡아주되, without 뒤에서 특히나 believe라는 단어가 A로 느껴져야 하겠다.

Thomas Kuhn noted that scientists “can agree in their identification of a paradigm(B) without agreeing on, or even attempting to produce, a full interpretation or rationalization of it(A). Lack of a standard interpretation or of an agreed reduction to rules(A) will not prevent a paradigm from guiding research(B,S).”

Thomas Kuhn은 언급했다 /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식별하는 데 있어서 일치를 보일 수 있다 / 동의하거나, 심지어 만들어 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도 / 패러다임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나 '이론적 설명'에[을]. / 표준적인 해석이나 규칙으로 축약되어 합의된 것의 부족은 / 패러다임이 연구를 안내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SHEAN.T 긴~ 토마스 쿤의 인용문으로 글이 마무리되고 있다. '보통' 선티는 어렵고 긴 인용문의 경우 ABPS가 잡히면 잡되, 이해 안 되고 너무 어려우면 넘기라고 한다. 이 경우가 그렇다. 위와 같이 부정어가 많아 AB를 예쁘게 잡을 수 있으나,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잡더라도 무슨 말인지 '수능날 제한된 시간, 압박 속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보고, 키워드 잡아보고, 넘긴다는 것이 실전의 해설이지 않을까 한다.

SHEAN.T 결국 이 지문의 최종, 핵심 AB는 패러다임에 대한 '믿음 vs. (실질적) 사용'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이 B의 개념과 동일한 개념 어휘가 5번의 functional(기능상의)이 되겠다. B의 개념을 '사용'으로 잡는 것도, 이를 '(사용) 기능'이라는 개념과 연결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국어력이 필요했던 문항이었다. 역시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나머지 선지가 다 off라는 소거법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야 한다.

- ① difficulty in drawing novel theories(off) from existing paradigms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부터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 ② significant influence of personal beliefs(off) in scientific fields
과학 분야에서 개인 신념의 상당한 영향력
- ③ key factors that promote the rise of innovative paradigms(off)
혁신적 패러다임의 출현을 고취하는 핵심 요인
- ④ roles of a paradigm in grouping like-minded researchers(off)
생각이 비슷한 연구원들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패러다임의 역할
- ⑤ functional aspects(B) of a paradigm in scientific research
과학 연구에서 패러다임의 기능적 측면

SHEAN.T'S COMMENT VOCABULARY

주제 정답: ②번

첫 문장 극혐에, 역접도 두 번이나 나오고, 뭐가 A인지 B인지 헷갈렸을 어려운 대의 파악 지문이었다. 첫째, 각기 다른 대상에 대해 AB를 칠 수 있다는 것(감정 vs. 인지). 둘째, 헷갈린다면 결국 마지막 부분이 필자가 최종적으로 하고자 할 말일테니 마지막 부분을 기준으로 지문의 내용/로직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A: 감정, 보편, 동일

B: (문화에 따른) 이해/인지, 변화, 다양

Table with 4 columns of vocabulary items: 1. considerable, 2. cultural psychologist, 3. describe, 4. circumstance, 5. draw out, 6. expression, 7. neurally, 8. implement, 9. 상당한, 주목할 만한, 10. processing architecture, 11. interpret, 12. context, 13. appropriate, 14. invariant, 15. plastic, 16. modify, 9. 내부의, 체내의, 10. 처리 과정, 11. 해석하다, 12. 상황, 맥락, 13. 적절한, 14. 변함없는, 15. 형태를 바꾸기 쉬운, 16. 수정하다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3.6.23

Considerable work by cultural psychologists and anthropologists has shown that there are indeed large and sometimes surprising differences in the words and concepts that different cultures have for describing emotions, as well as in the social circumstances that draw out the expression of particular emotions.

문화 심리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의 주목할 만한 연구에 따르면 / 정말로 크고, 때로는 놀랄 만한 차이가 있다 / 감정을 묘사하기 위해 서로 다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휘와 개념에 / 특정한 감정의 표현을 끌어내는 사회적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SHEAN.T 첫 문장. 너무 길다. 우선, 실전에서 모든 정보를 다 가져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자. 형식/의미적으로 중요한 정보에 먼저 집중하자. 우선 형식적으로는 has shown that 뒤가, as well as라는 부사구 앞이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의미적으로는, AB 대립성이 느껴지는 difference, different에 반응하며 뭔가 '차이'가 있다는 AB 지문이거나, 각기 다른 문화에서 감정 묘사에 차이가 있다는 정도인가..? 까지 추출해냈다면 충분하다.

However, those data do not actually show that different cultures have different emotions(A), if we think of emotions as central, neurally implemented states(B). As for, say, color vision, they just say that, despite the same internal processing architecture(A), how we interpret, categorize, and name emotions varies(B) according to culture(B) and that we learn in a particular culture the social context(B) in which it is appropriate to express emotions.

하지만 그런 데이터가 실제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 서로 다른 문화가 서로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 만약 우리가 감정을 중추 신경의, 즉 신경계에서 실행되는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말이다. / 예를 들어 색 식별에 대해 데이터들은 말해줄 뿐이다 / 단지, 체내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처리 구조에도 불구하고, / 우리가 감정을 해석하고, 범주화하며 명명하는 방식은 문화에 따라 다르고, /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사회적 상황을 특정 문화에서 배운다는 것을.

SHEAN.T However, do not에 반응!!! 다른 문화가 다른 감정을 갖고 있다는 앞 내용을 칸다. 여기서 다양한(다른) 감정을 A로 잡아줄 수 있겠다. if절에 '중추 신경에서 실행된 상태.'는 감정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라 보는, 그래서 보편적이라 보는 B인데 이 문장만 보고 그렇게 실전에서 잡기는 초고수가 아니면 쉽지 않으니 못 잡아도 좋다.

SHEAN.T 그 다음 문장이 이 지문을 대의파악 킬러로 만든다. despite가 나오니 콤마 앞뒤로 개념 대립성이 생기는데, 콤마 앞에 same이 있고 콤마 뒤에 varies가 있으니 앞에 잡은 A(다름) B(같음)과 충돌한다. 여기서 이제 뭐지? 하는 생각에 다시 꼼꼼히 읽어보면, 주어 how절에서 목적어에 emotions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감정 그 자체는 보편적인 것이고 같은 것인데, 이 감정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분류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SHEAN.T 감정 해석 방식이 다른 이유가 '문화'와 '사회 맥락'이니 이 개념들 또한 B로 잡아주자. 이 두 단어를 B로 잡는 것은, 정말 수많은 평가원 지문에서 B로 등장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경험에 의해 반응하고 잡는 것도 있다.

However, the emotional states(A) themselves are likely to be quite invariant(A) across cultures. In a sense, we can think of a basic, culturally universal emotion(A) set that is shaped by evolution and implemented in the brain, but the links between such emotional states and stimuli, behavior, and other cognitive states(B) are plastic(B) and can be modified(B) by learning in a specific cultural context(B).

* anthropologist: 인류학자 ** stimuli: 자극 *** cognitive: 인지적인 하지만 감정 상태 그 자체는 문화 전반에 걸쳐 지극히 불변할 가능성이 있다. /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감정 모음을 생각할 수 있다 / 진화에 의해 형성되어 두뇌에서 실행되는 / 그러나 그런 감정 상태와 자극, 행동, 그리고 다른 인지 상태 간의 연관성은 / 매우 바뀌기 쉬워, 특정한 문화적 상황에서의 학습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SHEAN.T 다시 한번 However. 두번이나 역접 나오는 지문은 기본적으로 극혐 지문인데.. 이 지문이 그렇다. 앞뒤 AB의 대상/개념을 정확히 '구분'해서 '대립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감정을 해석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감정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invariant, A), 보편적인(universal) 것이다.

SHEAN.T 마지막 문장 but 앞뒤 대립성도 너무 중요하다. 지문이 헷갈리고 어렵다면 결국 마지막이 '최종적으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일 때가 많다. 감정은 보편적이거나, 감정과 우리의 자극, 인지 상태 사이의 연결성은 문화 맥락에 따라 바뀌기 쉽고 수정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A: 감정, 같음 vs. B: 감정 이해, 감정 인지, 문화에 따라 다름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 plastic은 눈에 띄는 중요 AB 단어이니 flexible(유연한), elastic(탄력적인)과 유의어로 챙기는 게 좋겠다!

SHEAN.T 지문도 어려웠는데 정답 선지에서 B의 단어를 '문화' 정도만 넣어서 더 어려웠던 문항이 아닌가 한다. 2번 선지에 감정에는 A, 문화에는 B를 때리며 그래 이 지문은 A를 B로 이해한다는 내용이지.. 생각하며 확정하자.

- ① essential links between emotions and behaviors(off) 감정과 행동 간의 근본적 연관성
② culturally(B) constructed representation of emotions(A)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감정 표현
③ falsely described emotions through global languages(off) 세계 공용어를 통해 잘못 묘사되는 감정
④ universally defined emotions(A) across academic disciplines(off) 학문 분야 전반에 걸쳐 보편적으로 정의되는 감정
⑤ wider influence of cognition on learning cultural contexts(off, 둘 다 B 단어들이나, 인지가 문화 학습에 주는 영향은 off!) 문화적 상황을 학습하는 데 미치는 인식의 더 광범위한 영향

SHEAN.T'S COMMENT

주제 정답: ①번

지문 상단에서 AB가 나오다가 지문 중간 But을 통해 B의 P를 핵심으로 얘기하는, 역시 너무나 평가원스러운 논리 구조의 지문이다. 세부적인 내용과 단어가 많지만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정확히 A, B의 키워드를 잡는 것, 그리고 이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P라는 것을 잡아야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고를 수 있겠다.

농부들의 학습
 not A: 이웃 관찰
 but B: 실험, 경험 결과
 → P: 통제된 조건 없음, 현상 측정 및 관리 어려움

VOCABULARY

1. base	1. ~에 기반을 두다	9. laboratory	9. 실험실
2. observation, observe	2. 관찰, 관찰하다	10. controlled	10. 통제된
3. payoff	3. 이득, 보상	11. plot	11. 작은 땅, 구성
4. assess	4. 평가하다	12. confront	12. 마주하다
5. relative	5. 상대적인	13. phenomena	13. 현상
6. existing	6. 기존의	14. manage	14. 관리하다
7. trialability	7. 시험 가능성	15. acquire	15. 얻다
8. flawed	8. 결함이 있는	16. instinctive	16. 본능적인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3.9.23(오답률: 46.5%)

Environmental learning occurs when farmers **base** decisions on **observations** of “**payoff**” information(B). They may **observe** their own or neighbors’ farms, **but** it is the **empirical results**(B) they are using as a guide, **not** the neighbors themselves(A).

환경적 학습은 발생한다 / 농부들이 '이익' 정보에 관한 관찰에 근거하여 결정할 때, / 그들은 자기 자신이나 이웃의 농장을 관찰할 수도 있다, / 하지만 그들이 지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웃 자체가 아니라 경험적 결과이다.

SHEAN.T 첫 문장에는 환경 학습의 조건으로 '이익 정보'가 나오고 있다. 정확히 무슨 개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익이 되는 정보이니 충분히 B,S 쪽으로 잡아볼 수 있겠다. 다음 문장 but, not에 반응하면서 AB를 잡아주자. 이때 농부들이 가이드로 사용하는 것은 이웃 그 자체가 아니라 '경험적 결과'이다. 전자를 A, 후자를 B로 잡아주자.

SHEAN.T 여기서 이웃이 아닌 경험을 중시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면, 역시 대립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웃은 내가 아니라 '남'이다. 그러니 그 반대 개념은 '나'에 집중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 경험은 아 '자신의 경험'에 좀 더 집중한다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국어영역에서 어떤 개념을 이해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사고하도록 훈련하자.

They are looking at **farming activities as experiments**(B) and **assessing** such factors as **relative advantage, compatibility with existing** resources, difficulty of use, and “**trialability**”(B) — how well can it be experimented with.

그들은 농업 활동을 실험으로 본다 / 그리고 그러한 요인을 평가하고 있다 / 상대적 이점, 기존 자원과의 양립성, 사용의 어려움, 그리고 '시험 가능성' 같은, / 즉 그것이 얼마나 잘 실험될 수 있는가.

SHEAN.T B에 대한 부연이 나온다. 이 농부들은 농업 활동을 실험으로 보고 여러 요인들을 평가한다. B로 잡아주자.

But that criterion of “**trialability**”(B) turns out to be a **real problem**(P); it’s true that farmers are always **experimenting**(B), **but** working farms are very **flawed laboratories**(P).

하지만 그 '시험 가능성'의 기준은 진짜 문제인 것으로 밝혀진다; / 농부들이 항상 실험하는 것은 사실이다, / 하지만 연구하는 농장은 매우 결함이 있는 실험실이다.

SHEAN.T But!!! 나오니 초집중하시고, 앞의 얘기를 뒤집으며 새롭게 로직을 잡으려 하자. 앞서 얘기한 B의 요소 중 하나인 '시험 가능성'을 '진짜 문제'라고 해주니, P로 핵심 로직을 전환하자.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B의 P를 말하는 것. 즉, 실험에 의한 경험 결과는 P라는 것이다. 'flawed'와 같은 단어가 무.조.건 반응하며 이 P를 더 잡을 수 있겠다.

Farmers **cannot** set up the **controlled** conditions of professional **test plots** in research facilities(P). Farmers **also** often **confront** complex and difficult-to-observe **phenomena**(P) that would be hard to **manage** even if they could run controlled experiments. **Moreover** farmers **can rarely** **acquire** payoff information(P) on more than a few of the production methods they might use, which makes **the criterion** of “relative advantage”(B) **hard to measure**(P).

* empirical: 경험적인 ** compatibility: 양립성
 *** criterion: 기준

농부는 통제된 조건을 마련할 수 없다 / 연구 시설의 전문적인 시험포(시험용 모밭)의. / 농부는 복잡하고 관찰하기 어려운 현상에 자주 직면하기도 한다 / 관리하기 힘들 / 통제된 실험을 할 수 있다고 해도. / 게다가 농부는 이익 정보를 거의 얻을 수 없다 /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생산 방법을 넘어서는 것에 관한, / 이는 '상대적 이점'의 기준을 측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SHEAN.T 이 지문의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B의 P구나라고 딱 잡았다면, 이 마지막 세 문장 독해는 이를 확인하는 정도로, 빠르고 정확해야 한다. 이런 데서 '시간이 모자르고 이상한 거 고르는 친구' vs. '시간이 남고 핵심을 고르는 친구'가 갈리는 것이다.

SHEAN.T 농부가 통제된 조건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니 P로 잡아주고, 다음 문장에 'also'에 반응하면서 또 P겠네? 생각하면서 complex, difficult에 P를 때려 주고, 다음 문장 Moreover에 반응하면서 마지막도 P의 부연이네~ 하면서 '이익 정보를 얻지 못하는' 내용을 P로 잡아주며 독해를 마무리 하자. 이 B의 P 키워드를 그대로, 넣은 1번으로 가야 한다. 정확히 키워드를 ABPS로 잡지 않고 대충 읽으니 다른 선지도 다 답'처럼' 보이는 것이다.

- ① **limitations**(P) of using **empirical observations**(B) in farming
 농업에서 경험적 관찰을 사용하는 것의 한계
- ② **challenges** in modernizing traditional farming equipment(off)
 기존 농업 장비를 현대화하는 데 있어서의 난제
- ③ **necessity** of prioritizing **trialability** in agricultural innovation(반)
 농업 혁신에서 시험 가능성을 우선 처리해야 할 필요성
- ④ **importance** of making **instinctive** decisions in agriculture(off)
 농업에서 본능적 결정을 하는 것의 중요성
- ⑤ **ways** to control **unpredictable agricultural phenomena**(off)
 예측할 수 없는 농업 현상을 통제하는 방법

NOTE

SHEAN.T'S COMMENT

제목 정답: ①번

쉽지 않은 제목 문제였다. 대의파악임에도 당시 오답률 6위였으니 그럴만 하다. 첫 문장에서 AB가 잡히나 이 AB가 결국 핵심 AB가 아니었고, 지문 중반부에 역접은 없지만 기계 vs. 대장장이의 AB 개념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했다. 혹 지문 중반까지도 읽애가지..!? 했더라도, 결국 지문 하단 But, must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네 반응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답은 낼 수 있어야 한다.

- A: 기계, 대량 생산
- B: 대장장이, 맞춤형 수리

VOCABULARY

1. mend	1. 고치다	9. fabrication	9. 제작, 위조
2. restore	2. 복원하다	10. industrialization	10. 산업화
3. preindustrial	3. 산업화 이전의	11. mass production	11. 대량 생산
4. blacksmith	4. 대장장이	12. province	12. 영역, 분야
5. to order	5. 주문에 따라	13. tender	13. 관리자, 감독
6. immediate	6. 가까운, 즉각적인	14. grasp	14. 이해, 파악
7. customize	7. 주문 제작하다	15. comprehension	15. 이해
8. modify	8. 수정하다	16. subdivision	16. 다시 나누기, 세분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2.수능.24(오답률: 59.2%)

Mending and restoring objects(S) often require even more creativity(B) than original production(A).

물건을 고치고 복원하는 것에는 흔히 훨씬 더 많은 창의력이 필요하다 / 최초 제작보다.

SHEAN.T 어렵지 않은, 그렇지만 중요한 첫 문장이다(than을 통해 알 수 있다). 물건을 고치는 것은 S로, original production은 A로, creativity는 B로 잡을 수 있겠다.

The preindustrial blacksmith(B) made things to order for people in his immediate community; customizing the product, modifying or transforming it according to the user, was routine. Customers would bring things back if something went wrong(P); repair(S) was thus an extension of fabrication.

산업화 이전의 대장장이는 주문에 따라 물건을 만들었다 / 가까이에 사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 제품을 주문 제작하는 것이, / 즉 사용자에게 맞게 그것을 수정하거나 변형하는 일 / 일상적이었다. / 고객들은 뭔가 잘못되면 물건을 다시 가져다주곤 했다; / 따라서 수리는 제작의 연장이었다.

SHEAN.T 주어로 대장장이가 등장한다. 서술부를 보니 사람들을 위해 물건을 만들고.. 주문 제작하고.. 등등 B,S 쪽 내용이 나오고 있고, 고객들은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P) 이를 대장장이에게 다시 가져와서 수리했다(S). 따라서 대장장이는 B쪽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With industrialization and eventually with mass production, making things became the province of machine tenders(A) with limited knowledge(P).

산업화와 결국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 물건을 만드는 것은 기계 관리자의 영역이 되었다 / 제한된 지식을 지닌.

SHEAN.T 산업화와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면서 제한된 지식을 가진 기계가(tender는 거의 아는 수험생이 없었다 보면 되겠다) 물건을 만들었다고 한다. 기계는 P(제한된 지식)가 있으니 A 쪽으로 잡아볼 수 있겠다.

SHEAN.T '대량 생산 vs. 고객 맞춤, 주문 제작'의 AB도 기출에 몇 번 등장한 AB이기 때문에, 이 AB 개념에 익숙한 친구라면 더욱 기계를 A, 대장장이를 B로 쉽게 잡을 수 있었겠다.

But repair(S) continued to require a larger grasp of design and materials, an understanding of the whole and a comprehension of the designer's intentions(B).

그러나 수리는 설계와 재료에 대한 더 큰 이해를 계속 요구했다 / 즉 전체에 대한 이해와 설계자의 의도에 대한 이해를.

SHEAN.T But에 반응 및 집중!!! 앞에 어떻게 이해를 했든, 혹은 이 앞을 1도 이해를 못했든, 결국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역접 뒤이다. repair를 S로 잡아주고, '더 큰 이해'라는 개념을 B로 잡아주자. 혹~시 '설계자'를 '(개인) 대장장이'와 유사한 개념이네~ 라고 이해했다면 최고인데 실전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Manufacturers(A) all work by machinery or by vast subdivision of labour and not, so to speak, by hand,” an 1896 Manual of Mending and Repairing explained. **“But all repairing(S) must be done by hand(B). We can make every detail of a watch or of a gun by machinery, but the machine(A) cannot mend it when broken(S), much less a clock or a pistol!”**

“제조업자들은 모두 기계나 방대한 분업으로 일한다 / 그리고 말하자면 수작업으로 일하지는 않는다.”라고 / 1896년의 Manual of Mending and Repairing은 설명한다. / “그러나 모든 수리는 손으로 해야 한다. / 우리는 기계로 손목시계나 총의 모든 세부적인 것을 만들 수 있다 / 하지만 고장 났을 때 기계는 그것을 고칠 수 없다 / 시계나 권총은 말할 것도 없다!”

SHEAN.T 마지막 부분이 23번 주제 문제와 마찬가지로 또 인용 부분이다. 한데 but, not, must 같은 AB 중요 표현이 넘쳐나므로, 그리고 내용 어렵지 않게 명확하게 AB를 말해주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는 AB를 확실히 잡아주는 게 좋겠다.

SHEAN.T But 앞뒤로 구조적으로 AB를 잡아주자. But 앞은 '제조업자(기계, 대량 생산)'가 작업한다는 내용. But 뒤는 결국 수리(S)는 손으로(개인 대장장이, 맞춤형)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후자를 B로 잡으면서, 이 BS를 예쁘게 표현한 1번으로 가자.

① **Still Left to the Modern Blacksmith(B): The Art of Repair(S)**

현대 대장장이에게 여전히 남겨진 것: 수리의 기술

② **A Historical Survey of How Repairing Skills Evolved(off)**

수리의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가에 관한 역사적 개괄

③ **How to Be a Creative Repairperson: Tips and Ideas(off)**

창의적 수리공이 되는 방법: 조언과 아이디어

④ **A Process of Repair(off): Create, Modify, Transform! (23.0%)**

수리의 과정: 만들고, 수리하고, 변형하라!

⑤ **Can Industrialization Mend Our Broken Past? (off)**

산업화가 우리의 부서진 과거를 고칠 수 있을까?

SHEAN.T'S COMMENT	VOCABULARY			
<p>제목 정답: ①번</p> <p>빈출 소재이고 어렵지 않은 지문 구조이니 지문 초반에서 B의 개념을 잡고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내려오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도, 지문 하단 Rather than에 반응하면서 not A but B 논리 확실히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p> <p>인간과 기계 관계</p> <p>A: 독립</p> <p>B: 협력</p>	<p>1. cognitive</p> <p>2. intelligence</p> <p>3. synergistic</p> <p>4. contribution</p> <p>5. consist of</p> <p>6. mixture</p> <p>7. entertainment</p> <p>8. telecommute</p>	<p>1. 인지의</p> <p>2. 지능</p> <p>3. 상승 작용의</p> <p>4. 기여</p> <p>5. ~로 구성되다</p> <p>6. 혼합물</p> <p>7. 오락</p> <p>8. 재택근무 하다</p>	<p>9. concentrate on</p> <p>10. cooperate</p> <p>11. coordinate</p> <p>12. agenda</p> <p>13. artificial intelligence</p> <p>14. interaction</p> <p>15. outperform</p> <p>16. humanity</p>	<p>9. ~에 집중하다</p> <p>10. 협력하다</p> <p>11. 조정하다</p> <p>12. 의제, 안건</p> <p>13. 인공 지능</p> <p>14. 상호 작용</p> <p>15. 능가하다</p> <p>16. 인간성</p>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3.6.24

The approach(B), joint cognitive systems, treats a robot as part of a human-machine team(B) where the **intelligence is synergistic**, arising from the **contributions** of each agent. The **team(B) consists of** at least one robot and one human and is often called a *mixed team* because it is a **mixture** of human and robot agents(B).

‘결합 인지 시스템’ 접근법은 로봇을 인간-기계 팀의 일부로 다룬다 / 지력이 서로 도움을 주고, 각 행위자의 기여로 생겨나는. / 그 팀은 적어도 로봇 하나와 인간 한 명으로 구성되고 / 그 팀이 인간 행위자와 로봇 행위자가 혼합된 것이기 때문에 흔히 ‘혼합 팀’이라고 불린다.

SHEAN.T 어렵지... 않다. 기출을 비롯한 적지 않은 수능영역 지문을 학습한 친구라면. '팀, 협력' 얘기는 너무나 너무나 빈출되는 (보통) B의 개념이고, 인간과 기계의 관계 또한 빈출 소재이다(2021학년도 수능 23번). 바로 둘 사이의 협력, 통합의 개념을 B로 잡을 수 있겠다.

Self-driving cars(B), where a person turns on and off the driving, is an example of a joint(B) cognitive system. **Entertainment robots(B)** are examples of mixed(B) teams as are robots for **telecommuting**. The design process(B) **concentrates on** how the agents will **cooperate and coordinate with each other(B)** to accomplish the team goals.

사람이 주행(엔진)을 켜고 끄는 자율주행차는 결합 인지 시스템의 한 예이다. / 오락용 로봇은 재택근무를 위한 로봇처럼 혼합팀의 예다. / 설계 과정은 집중한다 / 그 행위자들이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조정하는지에.

SHEAN.T B의 예시가 나와있다. joint, mixed와 같은 B 개념 단어만 체크하며 훑힐 읽으셔야 한다. 그리고 cooperate, coordinate에 그렇지.. ㅋ 하면서 B를 때리고 넘어가야 하다. 독해가 굉장히 빠르고 정확해야 하는 지문이다.

Rather than treating robots as peer agents with their own completely independent **agenda(A)**, joint cognitive systems approaches(B) treat robots as helpers such as service animals or sheep dogs. In joint cognitive system designs(B), **artificial intelligence(B)** is used along with human-robot interaction principles(B) to create robots that can be intelligent enough to be good team members.

로봇을 그들 자체의 완전히 독립된 과제를 가진 동료 행위자로 다루기보다는 / 결합 인지 시스템 접근법은 로봇을 도우미 동물이나 양말이 개처럼 도움을 주는 존재로 다룬다. / 결합 인지 시스템 설계에서, 인공 지능이 인간-로봇 상호작용 원리와 함께 사용된다 / 훌륭한 팀 구성원이 될 만큼 똑똑해질 수 있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

SHEAN.T Rather than에 반응!! 단일 B 구조라 심심할 뻔 했는데 역시 not A but B 한번 해준다. 그리고 콤마 앞에서 A의 개념, 즉 협력과 반대 개념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와야 한다. 바로 independent(독립). 바로 A로 잡아주고, 콤마 뒤는 다 B로 잡아주자. 마지막 문장도 어렵지 않게 그냥 B의 부연이니 B로 잡아주고 지문 독해를 끝내면 되겠다.

SHEAN.T 어렵지 않게 1번으로 답을 고를 수 있겠다.

- ① Better Together: Human and Machine Collaboration(B)
함께 하는 것이 더 낫다: 인간과 기계의 공동 작업
- ② Can Robots Join Forces to **Outperform** Human Teams?(off)
로봇은 인간 팀을 능가하기 위해 세력을 규합할 수 있을까?
- ③ **Loss of Humanity(off)** in the Human and Machine **Conflict(반)**
인간과 기계 간의 갈등에서 인간성의 상실
- ④ Power Off: When and How to Say No to Robot Partners(off)
전원 끄기: 로봇 파트너에게 아니라고 말할 시점과 방법
- ⑤ **Shifting from Service Animals to Robot Assistants of Humans(off)**
도우미 동물에서 인간을 돕는 로봇 조력자로의 이동

SHEAN.T'S COMMENT

제목 정답: ②번

빠른 친구는 지문 상단에서, 보통의 친구는 지문 중간에서 음악 연주에 대한 '같은 vs. 다름'의 AB구나 잡아주고 지문 하단은 AB 빠르게 확인만 하며 독해를 마무리 해야 한다. 정답 선지도 꼬지 않고 그대~로 not A but B로 썼으니 빠르게 답으로 고르고 넘어가야 하는 문항.

음악 연주

not A: 같은, 고정

but B: 다름, 변화

VOCABULARY

1. committed	1. 전념하는	9. tonal	9. 음조의
2. enthusiast	2. 열광하는 사람	10. intonation	10. 억양, 조음
3. voice(v)	3. 목소리를 높이다	11. composition	11. 작곡, 작품
4. expressive	4. 표현의	12. diverge from	12. ~에서 벗어나다
5. score	5. 악보	13. repertoire	13. 레퍼토리
6. gain in attraction	6. 매력을 얻다	14. interpretation	14. 해석
7. note	7. 음(표)	15. enrich	15. 풍부하게 하다
8. metric	8. 음보의, 미터법의	16. animate	16. 활기를 주다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3.9.24

Not only musicians and psychologists, but also **committed** music **enthusiasts** and experts often **voice** the opinion that the **beauty of music(B)** lies in an **expressive deviation from the exactly defined score(A)**.

음악가와 심리학자뿐만 아니라, 열성적인 음악 애호가와 전문가도 흔히 목소리를 높인다 / 음악의 아름다움은 정확히 정해진 악보로부터 표현상 벗어나는 데 있다고.

SHEAN.T 문장에 not only A, but also B가 보이지만, 이 둘을 주어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둘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다. 오히려 문장 뒷부분에서 deviation from을 부정의 표현으로 잡아주면서, '음악의 아름다움'과 '정확히 정해진 악보' 이 둘의 개념을 대립적으로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SHEAN.T '정확히' '정해진...에서' 기출 학습이 잘 돼있는 친구라면 이미 AB의 느낌이 올 수 있겠다. 아... 또 고정 vs. 변화의 AB구나. 미리 안 온다면 지문 중반에서 잡으면 되니 걱정 말자!

Concert performances(B) become **interesting and gain in attraction(S)** from the fact that **they(B) go far beyond the information printed in the score(A)**.

콘서트 공연은 흥미롭고 매력을 얻는다 / 악보에 인쇄된 정보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에서.

SHEAN.T 이 문장에서 반응해야 할 표현은? go far beyond. 역시 적지 않게 AB의 시그널로 평가원에 등장했었다. B는 A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하니, 이 표현 앞뒤로 대립성이 생기는 것이다. B는 콘서트 공연, A는 악보에 인쇄된 정보가 되고, 후자를 '정확히 정해진' '고정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In his early studies on musical performance, Carl Seashore discovered that musicians **only rarely** play two equal **notes** in **exactly the same way(A)**. Within the same **metric** structure, there is a wide potential of variations in tempo, volume, **tonal quality** and **intonation(B)**. **Such variation(B)** is based on the **composition(A)** **but diverges(B)** from it **individually(B)**. We generally call this 'expressivity'(B).

음악 연주에 관한 자신의 초기 연구에서, / Carl Seashore는 발견했다 / 음악가가 두 개의 동등한 음을 연주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 같은 음보 구조 내에서, 광범위한 변화 가능성이 있다 / 박자, 음량, 음질 및 인토네이션에 있어. / 이러한 변화는 작품에 기초하지만, / 개별적으로 그것으로부터 갈라진다. /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표현성'이라고 부른다.

SHEAN.T 이 부분에서 AB의 개념을 더 정확히 잡아줄 수 있겠다. 부정어 rarely에 반응하면서 '정확히 같다'라는 개념을 A로 잡아주자. 여기서 자동적으로 '다르다'라는 개념을 B로 끌어낼 수 있겠다. 그리고 다음 문장, 다다음 문장에서 variation(변화)!!을 B로 잡으며 이 지문의 AB를 확실히 이해하자. 아, 이 지문은 '같은' 곡일지라도 '다양하게, 다르게' 연주 가능하다는 것이구나.

This explains why we **do not** lose interest(not P) when we hear **different artists(B)** perform the same piece of music(A). It also explains why it is **worthwhile(S)** for following generations to repeat the same **repertoire**. **New, inspiring interpretations(B)** help us to expand our understanding, which serves to **enrich and animate** the music scene(S).

* deviation: 벗어나

이것은 우리가 흥미를 잃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 서로 다른 예술가가 같은 음악을 연주할 때. / 이것은 또한 설명해 준다 / 다음 세대가 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이유를. / 새롭고 영감을 주는 해석은 우리가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준다. / 이 이해는 음악계를 풍부하게 하고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SHEAN.T same, different가 이어지고 있으니 어렵지 않게 AB로 체크할 수 있겠다. 마지막 문장 'new'라는 개념 또한 B로 잡아주면서 독해를 마무리하자.

SHEAN.T 정말 그대~로 음악 공연에 있어 not A but B를 표현한 2번 선지로 가자. 이 문제도 지문의 AB가 제대로 안 잡혀 2번 선지가 다른 선지에 비해 두 배 사이드로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직 기출 AB 분석이 부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① How to Build a **Successful Career(off S)** in Music Criticism
음악 비평에서 성공적인 이력을 이루는 방법
- ② **Never the Same(A): The Value of Variation(B)** in Music Performance
절대 같지 않음: 음악 연주에서 변화의 가치
- ③ The Importance of Personal Expression in **Music Therapy(off)**
음악 요법에서 개인적 표현의 중요성
- ④ **Keep Your Cool: Overcoming Stage Fright When Playing Music(off S)**
냉정을 유지하라: 음악 연주 시 무대공포증을 극복하기
- ⑤ What's New in the Classical Music Industry?(off)
클래식 음악 산업에서 새로운 것 무엇인가?

NOTE

SHEAN.T'S COMMENT

의미 정답: ②번.

AB를 진행하다가 역접 후 AB 전환되는, 평가원에서 이미 기술을 통해 수차례 보여 주었던 킬러 지문 패턴이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전문 vs. 일반)라는 AB 개념 또한 평가원 기술에서 왕왕 등장했던 개념으로, 영어 기술 학습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문이었다. 마지막 밑줄 부분을 구조적으로 B로 정확히 정의하는 것이 마지막 한곳이 되겠다.

(최종 로직)

A: 비전문가, 현지 지식

B: 전문가, 과학 지식

VOCABULARY

1. purchase(n)	1. 강점, 구매	9. arctic	9. 북극의
2. ethical	2. 윤리적인	10. blind	10. 맹목적인
3. qualified	3. 자격이 있는	11. designated	11. 지정된
4. reform	4. 개혁(하다)	12. devote A to B	12. A를 B에 바치다
5. colony	5. 집단, 군체	13. sort out	13. ~을 해결하다
6. collapse	6. 붕괴	14. in effect	14. 사실상
7. expertise	7. 전문 지식	15. questionable	15. 의심스러운
8. ignorance	8. 무지	16. popularize	16. 보급하다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2.수능.21(오답률: 71.3%)

Scientists(A) have no special purchase on moral or ethical decisions(B); a climate scientist(A) is no more qualified to comment on health care reform than a physicist is to judge the causes of bee colony collapse.

과학자들은 도덕적 혹은 윤리적 결정에 대한 특별한 강점이 없다; / 기후 과학자가 의료 개혁에 대해 견해를 밝힐 자격이 없는 것은 같다 / 물리학자가 꿀벌 집단의 붕괴 원인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것과.

SHEAN.T 부정어 no를 통해 앞뒤가 대립되고 있다. 이 첫 문장만 봤을 때는 선티도 과학자를 A, 도덕/윤리 개념 정도를 B로 잡아준다. 지문을 읽으며 B의 개념은 수정해줘야 한다.

SHEAN.T purchase를 명사로 '강점'이라고 외운 수험생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 'special'에 초점을 두고 '과학자가 도덕에 특별한 뭔가는 없구나..' 정도로 해석하면서 과학자가 도덕적 결정에 큰 영향은 없다, 과학자가 살짝 올이다 느낌으로 읽어주는 게 중요하다.

SHEAN.T 세미콜론 뒤는 정보도 많고 no more A than B(A가 아닌 것은 B가 아닌 것과 같다) 구문도 있어 어렵다. 다만 세미콜론 앞 문장의 '부연'이기 때문에 이 문장의 완벽한 해석은 이 지문을 푸는 것과 거의 관련이 없다. 대략 '기후 과학자도 자격이 없다고(P)' 하니 역시 과학자가 A구나,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The very features that create expertise in a specialized domain(A) lead to ignorance(P) in many others(B). In some cases lay people(B) — farmers, fishermen, patients, native peoples — may have relevant experiences that scientists(A) can learn from.

전문화된 영역에서의 전문 지식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특징이 / 많은 다른 영역에서의 무지로 이어진다. / 어떤 경우에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 즉 농부, 어부, 환자, 토착민이, 과학자들이 /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관련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SHEAN.T 첫 문장을 일반/핵심 문장으로 정리해주고 있다. '전문화된' 영역이나 과학을 가리키는 것이겠고, 이는 다른 영역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전문 지식(과학)을 A, 다른 분야를 B로 잡자. 바로 다음 문장에서 B가 구체화된다. 바로 비전문가(lay people). 아 이 지문은 전문가(A)와 비전문가(B)의 AB구나 잡아준다.

Indeed, in recent years, scientists(A) have begun to recognize this: the Arctic Climate Impact Assessment includes observations gathered from local native groups(B). So our trust needs to be limited, and focused(B). It needs to be very particular(B). Blind trust(A) will get us into at least as much trouble(P) as no trust at all.

실제로, 최근 들어 과학자들은 이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 북극 기후 영향 평가는 관찰을 포함한다 / 지역 토착 집단에게서 수집된. / 그러므로 우리의 신뢰는 한정되고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 / 그것은 매우 특정할 필요가 있다. / 맹목적 신뢰는 최소한 우리를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할 것이다 / 신뢰가 전혀 없는 것만큼이나.

SHEAN.T 순접 Indeed를 통해 AB가 부연되고 있다. '지역 토착 집단'을 B로 잡아주면서 더욱 B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자. 아 B는 현지의 평범한 사람들..을 뜻하는구나. need to에 붙는 속성들도 모두 B로 잡아주고, 문제를 일으키는 Blind trust는 A(P)로 잡아주자.

But(AB 전환) without some degree of trust in our designated experts(B) — the men and women who have devoted their lives to sorting out tough questions about the natural world we live in — we(A) are paralyzed(P), in effect not knowing whether to make ready for the morning commute or not(B).

* lay: 전문가가 아닌 ** paralyze: 마비시키다 *** commute: 통근 하지만 우리의 지정된 전문가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가 없으면, / 즉 평생을 바친 남녀들 / 우리가 사는 자연 세계에 관한 어려운 질문들을 처리하는 데 / 우리는 마비되고, 사실상 알지 못할 것이다 / 아침 통근을 위해 준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SHEAN.T But!!!에 반응. 선티가 항상 강조해왔고 올해도 강조하는, AB 전환 지점이다. AB를 잡고 내려오다가 구조를 전환하는 역할이 나오면 새롭게 AB를 잡아야 하는데 보통 AB가 전환될 때가 많다. 이 경우가 그렇다. 전문가 없이는 P가 생긴다고 하니, 앞에서 A였던 전문가가 B로 전환된다. 다시 말하면 필자가 결국, 최종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그래도 전문가가(B) 중요해'라는 것이다.

SHEAN.T 밑줄은 we가 모르는 것인데 we는 B가 없으므로 A가 되겠다. A가 모르는 것은 B. 밑줄을 모르니 P가 생기므로 밑줄은 필자가 긍정적으로 강조하는 개념, 즉 B라고 잡아도 되겠다. '아침 통근 준비 할지 말지'라는 추상적인 말 자체에서는 역시 어떤 의미를 끌어낼 수 없다. 구조적으로 로직 의미를 잡아주어야 한다. B는 '전문가'의 개념이 되겠고 그대~로 2번에 specialized experts가 눈에 띄어 고를 수 있어야 한다.

- ① **questionable facts that have been popularized by non-experts(A)**
비전문가에 의해 보급된 의심스러운 사실
- ② **readily applicable information offered by specialized experts(B)**
전문화된 전문가들에 의해 제공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정보
- ③ **common knowledge(A) that hardly influences crucial decisions**
중대한 결정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일반 지식
- ④ **practical information produced by both specialists and lay people(A+B)**
전문가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모두에 의해 생산된 실용적인 지식 (27.8%)
- ⑤ **biased knowledge(P) that is widespread in the local community(A)**
지역 공동체에 널리 퍼져 있는 편향된 지식

SHEAN.T'S COMMENT **VOCABULARY**

의미 정답: ⑤번

평가원 기출에 너무나 너무나 많이 나왔던, 그래서 선택지 교재에도 수없이 언급되었던 객관 vs. 주관의 AB이다. 이를 첫 문장에서 잡은 친구는 쉬웠을 것이고, 아니고 무턱대고 읽는 친구라면 어려웠을 것이다. 항상 기출, 항상 AB 개념을 대립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중요함을 보여주는 문항.

세계관
not A: 객관, 보편, 권위, 현실
but B: 주관, 사고, 이론, 관점

1. pure	1. 순수한	9. construct	9. 생각, 구성체
2. objective	2. 객관적인	10. particular	10. 특정한
3. perspective	3. 관점	11. influence	11. 영향을 미치다
4. precisely	4. 바로, 정확히	12. intelligible	12. 이해할 수 있는
5. universal	5. 보편적인	13. subjective	13. 주관적인
6. authoritative	6. 권위 있는	14. defeat	14. 물리치다, 이기다
7. make sense	7. 이해되다	15. prejudice	15. 편견
8. theoretical	8. 이론적인	16. unbiased	16. 편견 없는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3.6.21(오답률: 57.8%)

Our view of the world is **not** given to us from the outside in a **pure, objective** form(A); it is shaped by our mental abilities(B), our shared cultural **perspectives** and our unique values and beliefs(B).

우리의 세계관은 순수하고 객관적인 형태로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 그것은 우리의 정신 능력, 우리가 공유한 문화적 관점, 그리고 우리의 독특한 가치관과 신념에 의해 형성된다.

SHEAN.T 첫 문장부터 not A but B를 해주고 있으니 바로 AB로 잡고 이해하자. 썸 but은 어딴죠...? 세미콜론(;)은 특히 not과 결합될 때 가벼운 but이라고 해석지/강의에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많이 얘기했다 π. 세상은 '외부에', '객관적인'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능력', '관점' '가치, 믿음'으로 주어진다. 전자를 A, 후자를 B로 잡자.

SHEAN.T 대립적으로 사고할 지점이 아주 많다. '외부'라고 하니 B는 내부인가? 생각하시고, '객관적'이라고 하니 B는 주관적인가? 생각. 아~ 그리고보니 우리의 정신, 관점, 믿음은 '주관적'인 것이지.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필자는 세상이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이해된다는 걸 강조하고자 하는구나. 마찬가지로, '객관 vs. 주관'의 AB도 키스 가이드북부터 선택지의 거의 모든 평가원 해설에서 수없이 강조된 개념이다.

This is **not** to say that there is **no** reality outside our minds or that the world is just an **illusion**(A). It is to say that our version of reality is **precisely** that: **our** version(B), **not** the version(A).

이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다 / 우리의 마음 외부에 현실이 없다거나 / 세계는 환영에 불과하다고. / 그것은 우리가 지닌 현실 버전은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 즉 '우리의' 버전이지 (유일한) '그' 버전은 아니라고.

SHEAN.T (그렇다고) that 이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야~ 하면서 A의 개념을 완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the version, our version을 통해 명확한 형태로 AB를 제시하고 있다. 이때, 이미 객관 주관의 AB구나 개념을 깔고 읽어야, 아~ the version은 객관적 버전이고 our(우리의!! 주관!!) version은 주관적 버전이구나 이해할 수가 있다.

There is **no** **single, universal** or **authoritative** version(A) that **makes sense**, other than as a **theoretical construct**(A). We can see the world only as it appears to us(B), **not** "as it truly is(A)," because there is **no** "as it truly is(A)" **without** a perspective to give it form(B).

이치에 맞는 단일하거나, 보편적이거나 또는 권위 있는 버전은 없다 / 이론적 구성물로서가 아닌. / 우리는 세계를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는 대로만 볼 수 있다 / '정말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 왜냐하면 '정말로 있는 그대로'란 없기 때문이다 / 세계에 형태를 부여하는 관점 없이는.

SHEAN.T 부정어들이 넘쳐난다. 다 반응하시고 AB를 계속 잡으며 AB의 개념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해하자. 이때도 객관 주관을 깔고 이해해야 이해가 된다. 객관, 보편(universal), 권위(authoritative)를 A로, 이론적 구성을 A로 잡아주자. 그리고 'as it...'과 같은, 뭔가 어려운 표현으로 AB를 나타내는데, 이 또한 객관 주관으로 이해해야 이해가 된다. 아~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보이는(appears) 것이 B구나. (객관적으로) 실제로(truly) 있는 것이 아니라.

Philosopher Thomas Nagel argued that there is **no** "view from nowhere(A)," since we **cannot** see the world **except** from a **particular perspective**(B), and that perspective(B) **influences** what we see. We can experience the world **only** through the human lenses that make it **intelligible** to us(B).

* illusion: 환영
철학자 Thomas Nagel은 '입장이 없는 관점'은 없다고 주장했다 / 왜냐하면 우리는 특정한 관점에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를 볼 수 없고, / 그 관점이 우리가 보는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우리는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인간의 렌즈를 통해서만.

SHEAN.T 밑줄 문장. 일차적으로는 부정어 no에 걸리니 밑줄을 A로 정의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만 해도 답 고르는 데는 문제 없다. 다만 해당 밑줄에서 view는 B인데, 이것을 nowhere로 부정해주고 있으니 not B, 즉 A구나라고 밑줄 단어의 의미까지 느끼면 더 좋다. 정답 선지에 어떤 단어가 출제가 노린 정확한 A 단어로 딱 눈에 들어와야 할까? 5번에 objective!!! 그리고 unbiased(편견 없는)도 체크하면서 5번으로 확정하자.

- ① perception of reality affected by **subjective** views(B) (22.7%)
주관적인 견해에 영향을 받는 현실 인식
- ② **valuable perspective**(B) most people have in mind
대부분의 사람이 염두에 두고 있는 가치 있는 관점
- ③ **particular view**(B) adopted by very few people
극소수의 사람이 채택하는 특정한 견해
- ④ **critical insight** that **defeats** our prejudices(off)
우리의 편견을 물리치는 비판적 통찰
- ⑤ **unbiased** and objective view of the world(A)
편견이 없으면서 객관적인 세계관

SHEAN.T'S COMMENT

의미 정답: ①번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다. 봐야 할 포인트는 마지막 부분 But 뒤 nonlinear 어휘, 그리고 각주였던 하지만 convergence와 divergence라는 단어 대립성이 첫 번째. 둘째로 정답 선지에서 respective를 '각각의'로 정확히 알고 있는 것 정도가 되겠다.

알고리즘

not A(P): 같은 음악 반복(취향 수렴)

but B(S): 새롭고 다양한 음악 제시(취향 발산)

VOCABULARY

1. conclude	1. 결론짓다	9. respective	9. 각각의
2. direct	2. 지시하다, 안내하다	10.	10.
3. get stuck in	3. ~에 갇히다	11.	11.
4. be suited to N	4. ~에 적합하다	12.	12.
5. lack	5. 부족하다, 모자라다	13.	13.
6. convergence	6. 수렴	14.	14.
7. nonlinear	7. 비선형적인	15.	15.
8. chaotic	8. 무질서한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3.9.21(오답률: 59.8%)

You(A) may feel there is something scary about an algorithm deciding what you might like(P). Could it mean that, if computers **conclude** you won't like something, you will never get the chance to see it(P)?

여러분은 느낄 수 있다 / 알고리즘에 대해 뭔가 무서운 것이 있다고 / 여러분이 좋아할지도 모를 것을 결정하는. / 그것은 의미할 수도 있는가 / 당신이 뭔가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컴퓨터가 결론을 내린다면 / 당신은 그것을 볼 기회를 결코 얻지 못할 것을?

SHEAN.T 아주 쉬운 A, P 첫 문장이다. 'You may feel..'에서 You는 필자가 가까운 A 쪽인가 생각하시고, something scary...가 있으니 초딩도(^.^) 알고리즘의 P구나 잡을 수 있겠다. 다음 문장에서 P가 구체화된다. 네가 뭔가를 안 좋아한다고 결론 내리면 그걸 절대 못 볼까? 하는 P이다.

SHEAN.T 유튜브 시대이니 이해에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수능영어가 온근 트렌디한 지문들을 좋아해서.. 이런 최신 소재 지문들은 익숙하게 봐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Personally, I really **enjoy** being **directed** toward new music(B) that I might not have found by myself. I can quickly **get stuck in** a rut where I put on the same songs(A) over and over(P). That's why I've always enjoyed **the radio(B).**

개인적으로, 나는 새로운 음악 쪽으로 안내받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 / 스스로는 발견하지 못했다. / 나는 빨리 갇힐 때가 있다 / 같은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듣는 틀에. / 그래서 나는 항상 라디오를 즐겨 듣는다.

SHEAN.T 'I' 하면서 필자가 등장! 필자는 new music을 좋아한다고 하니 B로 잡아주자. 그럼 old(A)는 싫어하겠네? 그래서 같은 노래(A)가 계속 반복되는 틀에 박힌 상황은 P가 된다. 그러니 라디오(B)는 좋아한다. 라디오는 새로운 노래가 흘러 나오니까 ㅎㅎ.

But the algorithms that are now pushing and pulling me through the music library(B) are perfectly suited to finding gems that I'll like(S).

그러나 지금 뮤직 라이브러리를 통해 나를 밀고 당기는 알고리즘은 / 내가 좋아할 보석을 찾는 데 완벽하게 적합하다.

SHEAN.T But 나오니 집중!! 알고리즘이 새로운 보석을 찾는 데 완벽히 맞다고 하니 B,S로 잡아주자. But을 통해 앞의 라디오보다는 필자가 싫어하는 A,P 상황과의 대립성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 되겠다.

My worry(P) originally about such algorithms(B) was that they might drive everyone into certain parts of the library, leaving others **lacking** listeners(P). Would they cause a **convergence** of tastes(A,P)?

원래 그런 알고리즘에 대한 나의 걱정은 / 모든 사람을 라이브러리의 특정 부분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 나머지 부분은 듣는 이들이 적은 상태가 되게 만들면서. / 그것은 취향의 수렴을 일으킬 것인가?

SHEAN.T 필자의 B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특정 노래만 듣게 되는 P이다. 즉, 취향의 '수렴(convergence)'이 되지 않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수렴은 P이기도 하겠지만, 각주에서도 볼 수 있듯 발산(divergence)도 나오기 때문에 대립성에 의해 A로도 잡아주면 좋겠다.

But thanks to the **nonlinear** and **chaotic** mathematics(B) usually behind them, **this(A,P) doesn't** happen. A small **divergence(B)** in my likes compared to yours **can send us off into different far corners of the library(B).**

* rut: 관습, 틀 ** gem: 보석 *** divergence: 갈라짐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배후에 있는 비선형적이고 불규칙적인 수학 덕분에 / 이런 일은 발생하지는 않는다. /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과 비교하여 내가 좋아하는 것의 작은 갈라짐이 / (결국) 우리를 (뮤직) 라이브러리의 저 멀리 떨어진 구석들로 보낼 수 있다.

SHEAN.T 다시 But을 해주니 다시 집중! 비선형적, 혼란스러운(무질서한) 수학 덕분에 A는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사고 포인트는, nonlinear를 내가 모르고 chaotic이 P로 느껴진다 하더라도, thanks to(~덕분에)라는 표현을 통해 B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SHEAN.T 그리고 divergence를 B로 잡자. 왜? (취향의) 발산(갈라짐)이니까. 그대~로 밀줄은 B가 우리를 보내는 곳이니 B가 되겠고, 밀줄에서도 different라는 개념이, 앞서 등장한 same과 대립되면서 B의 느낌을 보여준다.

SHEAN.T 정답 선지는 '다양한, 새로운' 음악을 듣게 한다... 정도로 가면 되는데, 문제가 생긴다. 출제자도 느끼기에 지문이 쉽기 때문에, 선지까지 그냥 주면 안 돼서... 이 개념을 'respective(각각의)'라는 친구들이 헛갈리는 단어로 준 것이다. 이 단어를 알았다면 각자의 취향에 맞는 음악.. 으로 어렵지 않게 1번으로 갈 수 있겠다.

- ① lead us to music selected to suit our **respective** tastes(B)
우리를 각각 자신의 취향에 맞도록 선택된 음악으로 이끌다
- ② enable us to build connections with other listeners(off)
우리가 다른 청취자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다
- ③ encourage us to request frequent updates for algorithms(off, 알고리즘이 우리가 다양한 음악을 듣게 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알고리즘 업데이트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15.8%)
우리가 알고리즘을 위한 업데이트를 자주 요구하라고 권하다
- ④ motivate us to search for talented but unknown musicians(off)
재능이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음악가들을 찾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주다
- ⑤ make us ignore our preferences for particular music genres(off, 반대 쪽)
특별한 음악 장르에 대한 우리의 선호를 무시하도록 만들다

NOTE

SHEAN.T'S COMMENT

주제 정답: ⑤번.

요즘 대의파악이 참 어려워졌구나 보여주는 문제. 따지자면 국어의 '독서' 느낌이 들어간 다(아니 외국어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냐면,

- 1 처음에 잡은 AB를 수정하고 새로운 AB를 잡아야 한다.
- 2 미시적 AB(천성 vs. 환경)인 줄 알았는데 더 읽어보니 이 둘의 '관계'라는 더 큰 범주의 거시적 AB가 최종적으로 나온다.
- 3 근데 이 AB 관계를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복잡하다)는 P까지.
이 셋을 다 잡고 답을 고르면 최고겠지만, 적어도 AB의 관계가 A vs. B가 아니라 A=B와 같은 관계다, 정도만 잡아도 답을 5번으로 고르는 데는 문제 없겠다.
유전자(A)와 환경(B)의 관계는 not A vs. B, but A = B인데, 여전히 이를 설명하는 것은 P

VOCABULARY

1. competent	1. 유능한, 능력 있는	9. oversimplified	9. 지나치게 단순화된
2. moral agent	2. 도덕적 행위자	10. nonsensical	10. 무의미한
3. somewhere in between	3. 중간 어디쯤	11. discuss	11. 논의하다
4. qualify	4. 자격을 주다	12. a long way off	12. 멀리 떨어진, 갈 길이 먼
5. contribute to N	5. ~에 기여하다	13.	13.
6. decent	6. 예의 바른	14.	14.
7. nurture	7. 양육	15.	15.
8. grasp	8. 이해하다, 파악하다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0.수능.23(오답률: 50.5%)

Human beings do **not** enter the world as **competent moral agents(A)**. Nor **does** everyone leave the world in that state. **But somewhere in between**, most people acquire a bit of **decency(B)** that **qualifies** them for membership in the community of moral agents. Genes, development, and learning all **contribute to** the process of becoming a **decent human being(B)**.

인간은 유능한 도덕적 행위자로서 세상에 들어오지 않는다. / 또한 모든 이가 그 상태로 세상을 떠나지도 않는다. / 하지만 (태어나서 죽는) 그 사이의 어딘가에, /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의 예의를 습득한다 / 그들에게 도덕적 행위자 공동체의 구성원 자격을 주는. / 유전자, 발달, 그리고 학습은 모두 예의 바른 인간이 되는 과정에 기여한다.

SHEAN.T 23번, 24번은 요즘 어려운 추세이므로 더욱 더 첫 문장부터 ABPS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 집중해서 읽어야 한다. 바로 not A를 때려준다. 인간은 세상에 왔을 때 '완전한 도덕적 행위자'가 아니구나. 아직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는 게 정상이다. not A를 잡으시면 되고, 인간의 '도덕성' 얘기구나 정도 생각하면 된다.

SHEAN.T 물론 좀 더 AB 대립성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완전한' 도덕 행위자가 아니니까, '불완전한' 상태로 세상에 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이 뒤를 예측해볼 수 있다.

SHEAN.T not A를 때려주고 but을 해주니 B를 잡자. 아, AB가 잡힌다. 인간이란 '완전한(A)' 도덕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지만, 살아가면서 '약간의(B)' 예의(도덕성)를 획득하게 되는 존재구나.

The interaction between **nature(A)** and **nurture(B)** is, **however**, **highly complex(P)**, and developmental biologists are only just beginning to **grasp** just how complex it is. Without the context provided by cells, organisms, social groups, and culture, DNA is **inert**.

하지만 천성과 양육 사이의 상호 작용은 매우 복잡하다, / 그리고 발달 생물학자들은 그저 그것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간신히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을 뿐이다. / 세포, 유기체, 사회집단, 그리고 문화에 의해 제공되는 맥락이 없으면, / DNA는 비활성 상태이다.

SHEAN.T 자, 앞 문장까지의 AB로 쪽 끌고 나가 끝나는 게 예전 쉬운 대의파악. 요즘 대의파악은 앞의 B에서 다시 새로운 AB를 발전시킨다. 그러니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극혐이다 고생 많다 친구들. 그 새로운 AB라는 건 'however'를 통해 집중해서 파악할 수 있겠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도덕성을 획득하는데, 천성(nature=A)과 양육(nurture=B)이 영향을 주는구나. 근데 이게 복잡한(complex) P가 있구나. 선티도 이 순간에는 nature를 A, nurture를 B로 개별적으로 잡았다. 뒤를 읽어보니 이 둘의 '관계'가 AB였지만, 이 순간에는 이럴 수밖에 없다.

Anyone who says that people are "genetically programmed(A)" to be moral has an **oversimplified** view(P) of how **genes(A)** work.

사람들은 도덕적이도록 '유전적으로 프로그램이 짜여 있다'고 말하는 누구든 / 유전자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지나치게 단순화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SHEAN.T nature(천성) = gene(유전자)이므로 둘 다 A로 그룹핑. A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oversimplified라고 하고 있다. 아, 필자는 천성(유전자)보다 후천적 양육을 강조하는 건가?

Genes and environment interact(B) in ways that make it **nonsensical** to think that the process of moral development in children, or any other developmental process, can be **discussed** in terms of **nature versus nurture(A)**. Developmental biologists now know that it is really **both(B)**, or **nature through nurture(B)**.

유전자와 환경은 생각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상호 작용한다 / 아이들의 도덕적 발달 과정, 또는 다른 어떤 발달 과정이, 천성 '대' 양육이라는 견지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 발달 생물학자들은 이제 안다 / 그것이 진정 둘 다, 즉 양육을 '통한' 천성이라는 것을.

SHEAN.T environment, nurture 쪽이 B는 맞는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좀 더 큰 범주의 AB를 잡을 수 있다. 'AB를 대립(versus)으로 보는 것은 말도 안 되는(nonsensical) 방식이고, 오히려 AB는 상호작용(interact)한다'라고 하니, 정확히는 AB 사이의 '관계'의 AB구나 잡는다. 유전자와 환경은 not 대립, but 상호작용!

A complete scientific explanation of moral evolution and development in the human species(S) is a very **long way off(P)**.

* decency: 예의 ** inert: 비활성의
인간 종의 도덕적 진화와 발달에 대한 완전한 과학적 설명은 까마득히 멀다.

SHEAN.T 마지막까지 집중하셔야 한다. 결국 '최종' 로직이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이 AB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아직도 거리가 멀다고 하니, 쉽지 않다, 즉 P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구나. A vs. B가 아니라 A=B(서로 상호작용한다는 equal 표시), 그리고 이를 P로 바라보는 선지는 정확히 5번이 되겠다.

- ① **evolution of human morality from a cultural perspective(off)**
문화적 관점으로부터의 인간 도덕성의 진화
- ② **difficulties in studying the evolutionary process of genes(A)**
유전자의 진화 과정 연구에서의 어려움 → 작은 범주의 AB에서 A만 있다!
- ③ **increasing necessity of educating children(off) as moral agents**
도덕적 행위자로서 아이들을 교육해야 할 필요성의 증가
- ④ **nature versus nurture controversies(Avs.B) in developmental biology**
발달 생물학에서의 천성 대 양육 논쟁 (24.6%) → 필자의 논지는 기본적으로 A=B 쪽이다.
- ⑤ **complicated(P) gene-environment interplay(A=B) in moral development**
도덕적 발달에 있어서 유전-환경의 복잡한 상호 작용

SHEAN.T'S COMMENT **VOCABULARY**

주제 정답: ①번.

이렇게 첫 문장부터 '통념' '개인'을 언급하는 친구는 정말 지문 초반부터 '개인 vs. 집단(사회)' 개념이구나 하면서 지문을 가지고 놀아야 한다. 이렇게 초반부터 AB가 명확할 경우 뒤에 한번 뒤집을 수도 있는데, 뒤집지 않고 그대로 끝나는 걸 확인만 하자. 지문이 어렵지 않으니 선지에서 AB의 관계를 정확히(A<B) 물어보려는 시도가 보인다.

창의성은

not A: 개인성, but B: 사회성, 집단성

1. conventional wisdom	1. 일반 통념	9. fiction	9. 허구
2. credit A with B	2. A에게 B가 있다고 믿다	10. illusion	10. 환상, 착각
3. eliminate	3. 제거하다	11. inherent	11. 내재하는
4. be identified with	4. ~와 동일시되다	12. collectivity	12. 집단성
5. construction	5. 구성물	13. separate	13. 구별하다
6. embody	6. 구현하다, 구체화하다	14. acknowledgment	14. 인정, 시인
7. individuality	7. 개인성	15. interdependence	15. 상호의존
8. connectivity	8. 연결성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1.9.23

Conventional wisdom in the West, influenced by philosophers from Plato to Descartes, **credits individuals(A)** and especially geniuses **with** creativity and originality.

플라톤에서 데카르트에 이르는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서양의 일반 통념은 / 개인, 특히 천재들에게 창의력과 독창성이 있다고 믿는다.

SHEAN.T Conventional wisdom. 통념. 이 단어를 보자마자 '이 지문 쉽겠네' 생각이 드셔야 한다. 첫 문장부터 대놓고 A 문장. 그리고 individual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순간 이 지문은 '끝나야' 한다. 개인집단 개인집단 개인집단 AB일테니까! '아~ 이 지문은, 통념은 개인에게 창의적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 사회, 집단에 있다는 거구나.'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s and causes(B) are minimized, ignored, or **eliminated** from consideration at all.

사회적, 문화적 영향과 원인은 고려 대상에서 최소화되거나 무시되거나 완전히 배제된다.

SHEAN.T Social을 보자마자 신이 나서 B로 잡아준다. B를 무시하는 통념!

Thoughts, original and conventional, **are identified with individuals(A)**, and the special things that **individuals(A)** are and do are traced to their genes and their brains.

사상은, 그것이 독창적이든 종래의 것이든 개인과 동일시된다, / 그리고 개인이라는 존재이고 개인이 하는 특별한 것들은 / 그들의 유전자와 두뇌로 거슬러 올라간다.

SHEAN.T 되게 지금 '쉽다' 느껴셔야 한다. 생각, 사상이 다 '개인'에서 나왔다고 믿는구나! A 문장!

The “**trick**” here is to recognize that **individual humans(A)** are **social constructions(B)** themselves, **embodying** and reflecting the variety of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s they have been exposed to during their lives.

여기서 '요령'은 인식하는 것이다 / 개개의 인간이 사회적 구성 그 자체라는 것을, / 그들의 삶 동안 그들이 계속해서 노출되어왔던 사회적, 문화적 영향의 다양성을 구현하고 반영하면서.

SHEAN.T trick의 뜻이 '정확히' 와닿지 않더라도, 이에 당황하지 말고, A가 B! 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 이제 통념 부분에서 필자 부분(B)으로 넘어왔구나 인지한다. trick은 속임수, 요령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요령!

Our **individuality(A)** is **not denied**, **but** it is viewed as a product of specific **social and cultural experiences(B)**.

우리의 개인성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 특정한 사회적, 문화적 경험의 산물로서 여겨지는 것이다.

SHEAN.T not A but B이니 중요 문장이라 반응하시고, A를 그렇다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A가 B의 일부라는 것이구나 이해하시고!

The brain itself is a **social thing(B)**, influenced structurally and at the level of its **connectivities** by **social environments(B)**. The “**individual(A)**” is a legal, religious, and political **fiction(P)** just as the “**I**” is a grammatical **illusion(P)**.

뇌 그 자체가 사회적인 것이다, / 구조적으로, 그리고 그것의 사회 환경에 의한 연결성 수준에서 영향을 받는다. / '개인'은 법적,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허구이다 / '나'가 문법적 환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SHEAN.T social에 B 때려주고, individual을 허구, 환상이라는 P로 까는 걸 확인하면서 지문을 마무리 한다. 기본적으로 A(개인) < B(사회) 라는 지문이구나, 정도만 머릿속에 남으시면 된다.

- ① recognition of **the social nature(B) inherent** in **individuality(A)**
개인성에 내재한 사회적 속성의 인식 (B>A)
- ② ways of filling the gap between **individuality(A)** and **collectivity(B)**
개인성과 집단성의 간격을 채우는 방법
→ 이 선지는 A, B가 들어있지만 둘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니, A < B 느낌이라기보단 A=B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한 방법들(ways)도 지문엔 1도 보이지 않는다.
- ③ issues with **separating** original thoughts from conventional ones(off)
독창적인 생각과 종래의 생각을 구분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
→ 개인과 사회의 AB이지, 독창 vs. 기존(종래)의 AB가 아니다.
- ④ **acknowledgment of the true individuality(A)** embodied in human genes
인간 유전자에 구현된 진정한 개인성의 인정
- ⑤ necessity of shifting from **individualism(A)** to **interdependence(off)**
개인주의에서 상호의존으로 전환할 필요성
→ 매력적 오답. 1. 우선 상호의존은, B쪽으로 볼 수는 있는데, '사회'라는 B 범주에 비해 too specific하다. 항상 선지의 '세부의 함정!!!!'은 꼭 조심하도록 하자. 2. 이 지문은 A에서 B로 옮기자는, 즉 A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A를 인정은 하고 있다.

SHEAN.T'S COMMENT **VOCABULARY**

주제 정답: ③번.

P 지문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으나, '정확한 P'가 무엇인지 잡는 게 중요하다. 이 정확한 P를 잡는 데 있어 역시 AB의 개념이 활용된다. 인간과 기계를 '분리(A)'하고 인간도 기계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둘이 '협력(B)'하며 인간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

P(A): 인간과 기계의 업무를 분리하고 인간에게 기계 업무를 맡기는 것

S(B): 인간과 기계가 협력하며 인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것

1. arise	1. 발생하다	9. operation	9. 작업
2. collaborative	2. 협력의	10. precision	10. 정밀함
3. assign	3. 맡기다, 배정하다	11. component	11. 구성 요소
4. automate	4. 자동화하다	12. take advantage of	12. ~을 이용하다
5. end up	5. 결국 ~에 이르다	13. rely upon	13. ~에 의존하다
6. in ~ fashion	6. ~ 방식으로	14. unsuited	14. 부적합한
7. capability	7. 능력	15. blame(v)	15. 비난하다
8. keep alert	8. 경계를 유지하다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1.수능.23(오답률: 54.1%)

Difficulties(P) arise when we do not think of people and machines as collaborative systems(B), but assign whatever tasks can be automated to the machines and leave the rest to people(A). This(P) ends up requiring people to behave in machine-like fashion(P), in ways that differ from human capabilities(B).

어려움이 발생한다 / 사람과 기계를 협업 시스템으로 생각하지 않고, / 자동화될 수 있는 작업은 무엇이든 기계에 할당하고 / 그 나머지를 사람들에게 맡길 때. / 이것은 결국 사람들에게 기계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 즉 인간의 능력과 다른 방식으로.

SHEAN.T 첫 문장부터 바로 P를 말하는구나 잡아주고, P가 생기는 '상황'을 not A but B의 논리로 표현하고 있으니(여기서의 AB는 그냥 표현을 나타내는 AB..) 그 AB를 또 제발제발 천천히 읽고 생각해서 이해한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은 B가 된다. 즉, '협력(collaborative)'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but 기계랑 인간이 각기 따로 일을 하면 P가 생긴다. 전자를 B, 후자를 A로 잡아주자. A를 이해할 때, 제발 그냥 이해하지 말고, '협력'의 반대는 뭐지? 아 분리해서 할 때 문제 생긴다고~ 하면서 AB의 대립성을 느끼며 이해하자.

SHEAN.T 다음 문장에서 P 상황을 이어주고 있다. 인간이 기계처럼 행동하는 게 P구나 하고 P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We expect people to monitor machines(A), which means keeping alert for long periods, something we are bad at(P). We require people to do repeated operations with the extreme precision and accuracy required by machines(A), again something we are not good at(P).

우리는 사람들이 기계를 감시하기를 기대하는데, / 이는 오랫동안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 그것은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다. / 우리는 사람들에게 반복적인 작업을 할 것을 요구한다 / 기계에 의해 요구되는 극도의 정밀함과 정확성을 가지고, / 이 또한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다.

SHEAN.T 인간이 '기계처럼' 행동해서 나오는 P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인간이 기계처럼 '정확성!!!'을 추구하며 일하면 P가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bad at, not good at' 같은 표현을 통해 잡아주고 이해하자.

When we divide up the machine and human components of a task in this way(A), we fail to take advantage of human strengths and capabilities(P) but instead rely upon areas where we are genetically, biologically unsuited(P). Yet, when people fail, they are blamed(P).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과제의 기계적 구성요소와 인간적 구성요소를 나눌 때, / 우리는 인간의 강점과 능력을 이용하지 못하고, / 그 대신 영역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부적합한. / 하지만, 사람들이 실패할 때, 그들은 비난을 받는다.

SHEAN.T 글의 서두에서 예측했던 A의 개념, 즉 '분리(divide)'가 나오므로 바로 A 상황으로 잡아주시고, 그래서 P가 생기는구나 이해한다. Yet 뒤에 S라도 나오나!? 하지만, 사람들이 P가 생길 때 결국 비난 받는 건 사람들이라는 P가 강조되고 있구나 잡으면서 글을 마무리하자.

SHEAN.T 이 P를 정확하게 표현한 3번으로 가자. 이 지문의 P는 인간에게 기계처럼 행동하라는, 맞지 않는 일을 맡겨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둘이 잘 '협력'하는 게 B이자 S!

- ① difficulties of overcoming human weaknesses to avoid failure(off P) 실패를 피하기 위해 인간의 약점을 극복하는 것의 어려움
- ② benefits(off) of allowing machines and humans to work together 기계와 인간을 함께 일하게 하는 것의 이점 (17.3%)
- ③ issues of allocating unfit tasks to humans in automated systems(P) 자동화 시스템에서 인간에게 부적합한 작업을 할당하는 문제
- ④ reasons why humans continue to pursue machine automation(off, A 쪽) 인간이 계속해서 기계 자동화를 추구하는 이유 (17.1%)
- ⑤ influences of human actions on a machine's performance(off) 인간의 행동이 기계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SHEAN.T'S COMMENT VOCABULARY

주제 정답: ④번.

제발 지문의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가 파악부터 하도록 하자! 이 지문은 지문 처음, 중간, 끝 중 중간이 중요하다. 왜? 대놓고 통념의 표현과 not A but B의 논리를 때리고 있으니까 :) 여기서 확실히 B의 개념을 '놀이의 변화'로 잡아 답과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

A: 통념, 어른들은 놀이를 안 함 < B: 필자, 어른이 되어도 다른(변화된) 형태의 놀이를 함!

1. effortlessly	1. 쉽게, 노력 없이	9. transformation	9. 변신, 변화
2. absorption	2. 몰입, 흡수	10. moving	10. 감동시키는
3. narratively	3. 이야기식으로	11. stability	11. 안정성
4. adolescence	4. 청소년기	12. identify with	12. ~와 동일시하다
5. fiction	5. 소설, 허구	13. alter	13. 변경하다
6. regress	6. 퇴행시키다	14.	14.
7. derive from	7. ~에서 기인하다	15.	15.
8. metaphorical	8. 은유적인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2.6.23(오답률: 54%)

Children can move **effortlessly** between play and **absorption** in a story, as if both are forms of the same activity. The taking of roles in a **narratively** structured game of pirates is not very different than the taking of roles in identifying with characters as one watches a movie.

아이들은 쉽게 이동한다 / (역할) 놀이와 이야기로의 몰입 사이를, / 마치 그 둘이 같은 활동의 형태인 것처럼. / 이야기식 구조의 해적 게임에서 역할을 맡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 등장인물과 동일시하며 역할을 맡는 것과 / 영화를 감상하면서.

SHEAN.T 이 두 문장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답부터 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의식도 없고, 대립성도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지문 전체에서 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인식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문장은 'not different'이므로 대립성이 아니다. 아이들이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 놀이 같은 거 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It might be thought that, as they grow towards **adolescence**, **people give up childhood play(A)**, **but this(A) is not so. Instead, the bases and interests of this activity change and develop(B) to playing and watching sports, to the fiction of plays, novels, and movies, and nowadays to video games.**

여겨질 수도 있다 / 청소년기로 성장하면서, / 사람들이 아동기의 놀이를 그만둔다고, / 하지만 이는 그렇지 않다. / 대신에, 이런 활동의 기반과 흥미가 바뀐다 / 그리고 스포츠 활동과 관람으로 발전한다, / 연극, 소설, 영화의 허구로, / 그리고 최근에는 비디오 게임으로 발전한다.

SHEAN.T It might be thought that..에서 '통념' A구나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라는 뜻이니, 필자가 아니라 필자가 까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 그 내용을 A로 잡아준다. 통념은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서 놀이를 포기한다는 것. 그걸 not so!!!로 까주고, Instead를 통해 필자의 의견 B를 말해주고 있으니 집중해서 잡고 이해한다. 아 어른들이 놀이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놀이의 기반과 흥미가 '바뀌는' 것이구나.

In fiction, one can enter possible worlds. When we experience emotions in such worlds, this is **not** a sign that we are being **incoherent** or **regressed(A)**. It **derives from** **trying out metaphorical transformations** of our selves in new ways(B), in new worlds, in ways that can be **moving** and important to us.

* pirate: 해적 ** incoherent: 일관되지 않은 허구에서 사람들은 있을 법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 그런 세계에서 감정들을 경험하면, / 이는 신호가 아니다 / 우리가 일관되지 않거나 퇴행하고 있다는. / 그것은 기인한다 / 우리 자신의 은유적 변신을 시도하는 것에서 /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세계에서, / 우리에게 감동적이고 중요할 수 있는 방식으로.

SHEAN.T AB를 잡았으니 이 뒤는 이에 대한 부연이다. 혹 완전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앞서 잡은 AB가 중요한 부분이구나 기억에 남아야 한다.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이 부분도 이해하는 것. not!!!에 반응하면서, 다시 한번 not A (but) B를 잡아주자. 우리가 허구(연극, 소설..)에 빠지면, 이는 우리가 나쁘다는(incoherent, regressed)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변화(transformations)!!!! 하는 것이구나에 제발 반응하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SHEAN.T 머릿속에는 우리가 나이 먹어도 놀이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변한다!!!'라는 개념이 박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휘력이 된다면 4번의 'altered'라는 단어가 눈에 확 박혀야 한다. 어린 시절 '후'는 B를 뜻하고, 놀이의 변경된 형태에 B를 때리면서 4번으로 답을 고르자.

- ① relationship between play types and emotional **stability**(off)
놀이 유형과 정서적 안정 간의 관계
- ② reasons for **identifying with** imaginary characters in childhood(off)
아동기에 가상의 등장인물과 동일시하는 이유 (22.9%)
- ③ ways of helping adolescents develop good reading habits(off)
청소년이 좋은 독서 습관을 개발하도록 돕는 방법
- ④ **continued engagement in altered forms of play(B) after childhood(A)**
아동기 이후 변화된 형태의 놀이에의 지속적인 참여
- ⑤ effects of narrative structures on readers' imaginations(off)
이야기 구조가 독자의 상상력에 미치는 영향

SHEAN.T'S COMMENT

제목 정답: ②번.

문장도 길고, 용어도 어려운(invasibility라든지..) 전형적인 요즘 대외파악을 보여 준다. 굉장히 ‘어렵게 보인다.’ 단, 어렵게 보이는 것뿐이므로, 나는 이 긴~ 문장과 어려운 용어에 패닉되는 게 아니라, 문장 단위로 핵심 로직만 잡으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지문의 핵심 로직은 PS다.

P: 낮은 다양성 → 외래종 침입
 S: 높은 다양성 → 외래종 침입 방지

위 P를 A로, S를 B 관점으로 관점을 바꾸셔도 상관없다. 어차피 같은 얘기. 핵심은 내가 이 길고 어려워 보이는 지문을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했나 하는 것이다.

VOCABULARY

1. invasion	1. 침입	9. beside	9. -이외에도(besides: 게다가)
2. rate(v)	2. 평가하다	10. probability	10. 확률, 가망
3. global-scale	3. 세계적 규모의	11. competitor	11. 경쟁자
4. biodiversity	4. 생물 다양성	12. establish	12. 확고히 자리 잡다
5. invasibility	5. 침입성	13. broader range	13. 더 폭넓은 범위
6. hypothesis	6. 가설	14. species-poor	14. 종이 부족한
7. conduct(v)	7. 실시하다	15. carve out	15. 개척하다
8. mechanism	8. 방법, 기법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0.수능.24(오답률: 48.8%)

Invasions(P) of natural communities by non-indigenous species(P) are currently rat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global-scale environmental problems. The loss of biodiversity(P, not B) has generated concern over the consequences for ecosystem functioning and thus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oth has become a major focus in ecological research during the last two decades.

비토착종에 의한 자연 군집 침입은 현재 평가된다 / 가장 중요한 세계적 규모의 환경 문제 중 하나로. / 생물 다양성 상실은 생태계 기능에 대한 영향에 대한 염려를 불러일으켰고 / 그에 따라 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지난 20년 동안의 생태계 연구에서 주요 초점이 되어왔다.

SHEAN.T 첫 문장에서 Invasion부터 감이 오시면 좋고, 대놓고 ‘problems’라고 하니 P 지문이거나 잡는 게 중요하다. 그럼 ‘뭐가’ P인지 정확히 잡으셔야 하고, ‘비토착종(non-indigenous species)’의 침입(invasion)이 P임을 잡는다.

SHEAN.T 그 다음 문장에 ‘생물다양성 상실(the loss of biodiversity)’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생물 다양성 상실이 더 큰 P를 불러 일으키는구나~’만 잡으셔도 좋다. 역시 이 긴 문장을 ‘내가 모.든.정.보.’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딱 이만큼만 이해/기억을 하는 거다. 조금 더 나아가면, ‘생물 다양성이 없으면 P야? 생물 다양성은 B겠네?’라고 잡을 수도 있다. 이는 ‘between both’라는 AB의 관계를 드러내는 시그널에서도 알 수 있겠다.

The “biodiversity-invasibility hypothesis” by Elton suggests that high diversity(S) increases the competitive environment of communities(S) and makes them more difficult to invade(S). Numerous biodiversity experiments have been conducted since Elton’s time and several mechanisms have been proposed to explain the often observed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diversity(B) and invasibility(A).

Elton에 의한 ‘생물 다양성-침입성 가설’은 제안한다 / 높은 다양성이 군집의 경쟁력 있는 환경을 증가시켜 / 그 군집에 침투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 수많은 생물 다양성 실험이 Elton의 시대 이후로 수행되어 왔고, / 흔히 관찰되는 다양성과 침입성 사이의 부정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방법이 제안되어 왔다.

SHEAN.T P 지문이니 계속 P가 이어지는지, S가 나오는지 예의주시하며 읽다보니, ‘높은 다양성(high diversity)’이 나온다. 다양성 상실이 P였으니, 그 반대인 높은 다양성은 S가 되겠다. 내용을 읽어봐도 침입을 어렵게 한다고 하니 S인 것 확인. 제발 ‘문장의, 큼직큼직한, 로직 판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세부적으로 파고드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AB의 관점에서, 다양성을 B, 침입성을 A로 잡을 수도 있겠다.

Beside the decreased chance of empty ecological niches but the increased **probability** of **competitors** that prevent invasion success, diverse communities(S) are assumed to use resources more completely and, therefore, limit the ability of invaders to establish(S). Further, more diverse communities(S) are believed to be more stable because they use a **broader range** of niches **than species-poor communities(A)**.

* indigenous: 토착의 ** niche: 생태적 지위
 비어 있는 생태적 지위의 가능성은 감소하지만 / 침입 성공을 방지하는 경쟁자들의 가망성은 증가하는 것 이외에도, / 다양한 군집은 자원을 더 완전하게 사용하여 침입자가 확고히 자리잡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나아가, 더 다양한 군집은 더 안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 종이 빈약한 군집보다 더 광범위한 생태적 지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SHEAN.T Beside 문장이 긴데, 요런 친구일수록 부사구(콤마 전)는 가볍게, 주절(콤마 후)은 무겁게(핵심 로직 판단하며)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Beside가 ‘~이외에도’라는 전치사라는 걸 알아야겠지. 평소 단어/해석 연습이 되어 있어야 이것도 된다. 아무튼 그래서 콤마 뒤를 집중하면, 계속해서 S가 이어진다. 다양성이 부족한 것이 P였으니, 다양한 군집(diverse communities)은 S가 되겠다. 그 S 문장들을 서술하며 글을 마무리 하고 있다.

SHEAN.T 다 읽으시고, 큰~ PS 구조가 머리에 남으셔야 한다. 외래종 침입이 P인데, 생물다양성이 높으면 S구나. 이 정도는 머리에 남으셔야 한다는 거다. 이 PS가 너무나도 예쁘게 표현된 것이 2번이 되겠다. 특히 이 지문은, S가 마지막까지 강조된다는 점에 주목하자.

SHEAN.T 오답 선지들은, 세부적으로도 더 설명할 수 있지만, 우선 ‘큼직큼직’하게도, 3,4,5번은 P에 치중된 선지이다. 단어들을 보고 바로바로 이렇게 느껴서 날려버리셔야 한다.

- ① **Carve Out** More Empty Ecological Spaces(P)!
 비어 있는 더 많은 생태 공간을 개척하라!
 →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공간이 아닌 비어 있는 공간을 개척하는 것은 P이다
- ② **Guardian of Ecology: Diversity(S) Resists Invasion(P)**
 생태계의 수호자: 다양성은 침입을 격퇴한다
- ③ **Grasp All, Lose All: Necessity of Species-poor Ecology(P)**
 모든 것을 쥐면, 모든 것을 잃는다: 종이 빈약한 생태계의 필요성
- ④ **Challenges(P) in Testing Biodiversity-Invasibility Hypothesis**
 생물 다양성-침입성 가설 시험에서의 난제
- ⑤ **Diversity Dilemma(P): The More Competitive(S), the Less Secure(반) (18.7%)**
 다양성의 딜레마: 더 경쟁력이 있을수록, 덜 안정적이다
 → dilemma에서 너무 P에 치중된 선지일 뿐더러, 지문의 상단에서 잡았었지만 다양성과 경쟁은 모두 높아지면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S이기 때문에, ‘반대’로 서술된 선지이다.

SHEAN.T'S COMMENT **VOCABULARY**

제목 정답: ①번.

첫 문장부터 'error, assumption' 등 A(P)를 말하는 단어들(가득하니 천천히 정확하게 읽어서 '유전 vs. 환경'이라는 AB의 개념을 '확실히' 잡아주고, 그 뒤는 이 AB를 확인만 하며 빠르게 내려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지문 중간, 끝에 끊임없이 AB의 시그널로 AB를 유전 vs. 환경(행동)으로 말해주니, 이를 어느 지점이든 잡아주면 된다. 그리고 평가원이 제목 문제에서 사랑하는, 물어보고 답하기 1번 선지에서 A냐 B냐를 보고 바로 답으로 골라주자.

A: 진화에 있어 유전자가 먼저(중요)
 < B: 진화에 있어 환경에 따른 행동이 먼저(중요)

1. assumption	1. 가정	9. behavioural organs	9. 행동 기관
2. prime mover	2. 원동력, 견인차	10. adaptation	10. 적응, 변화
3. in the absence of	3. -의 부재 속에서	11. immediate	11. 즉각적인, 즉시의
4. natural selection	4. 자연 선택	12. non-random	12. 무작위가 아닌
5. un-biological	5. 생물학적으로 맞지 않는	13. vastly	13. 광대하게
6. emergence	6. 등장, 출현	14. follow	14. 뒤따라가다, 뒤따르다
7. domain-specific	7. 특정 영역의	15. gradually	15. 점차적으로
8. evolutionary psychologist	8. 진화 심리학자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1.6.24(오답률: 53.7%)

A common error(P) in current Darwinian thinking is the **assumption(A)** that "**selfish genes(A)**" are the **prime mover** in evolution. In strict Darwinism the prime mover is **environmental threat(P, B)**. **In the absence of threat, natural selection tends to resist change.**

현재의 다윈주의 사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류는 / "이기적인 유전자"가 진화의 원동력이라는 가정이다. / 엄격한 다윈주의에서 원동력은 환경적 위협이다. / 위협이 없을 때, 자연 선택은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

SHEAN.T 첫 문장 common error에서 바로 A,P 얘기구나 잡아주어야 한다. the assumption은 필자가 까려는 A 가정이 되겠고, 그 가정은 바로 이기적 유전자가 진화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이 가정에 반대하겠다. 따라서 이기적 유전자를 A로 잡아준다. 뒤에는 필자가 이기적 유전자보다 중시하는 B가 나올까 예상하면서.

SHEAN.T 첫 문장의 현재의 다윈주의 vs. 두번째 문장의 엄격한 다윈주의의 대립성을 느낀다면 제일 좋다. 이를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첫 문장에서 필자가 '유전'을 A로 까고 있고, 두번째 문장에서 '환경'이 등장하기 때문. 환경과 유전은 대표적인 AB 대립 개념이다. 따라서 여기서 '환경 위협'을 표면적으로는 P이자, 필자가 진화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B라고 잡으면 최고.

SHEAN.T 못 잡아도 상관없다. '잡자기 환경 위협이 왜 나오지?' 했어도, 뒤에서 유전에 대립되는 B를 잡을 수 있는 문장을 계속 준다.

It is **un-biological** to "explain" behavioural change as **resulting from genetic change(A)** or the **ex vacuo emergence of domain-specific brain modules**. **Evolutionary psychologists** surely know why brains evolved: as Cosmides and Tooby point out, **brains are found only in animals that move(B)**.

'설명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맞지 않다 / 행동의 변화를 유전적 변화나 영역별 뇌 모듈의 '무(無)에서의' 출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 진화 심리학자들은 왜 뇌가 진화했는지 확실히 안다: / Cosmides와 Tooby가 지적하듯, 뇌는 움직이는 동물에서만 발견된다.

SHEAN.T 한번 더 A를 '유전'이라고 잡을 수 있는 문장이 나온다. '행동 변화를 유전 변화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맞지 않다.' 여기서 un-biological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인 의미가 아닌, 필자가 '까려고 쓰는 표현이구나' 정도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필자는 '유전 변화라고 보는 것을 옳지 않다고 보는구나' 정도로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유전을 A로 잡을 수도 있다.

SHEAN.T 앞 문장에서 'un-biological'을 통해 사실상 not A 논리를 준 것이고, 따라서 다음 문장이 B 문장이다. 'found only in'이라는 표현을 통해, in 뒤에 있는 것이 필자가 강조하는 개념임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유전이 아닌, '움직이는(B)' 행동이 중요하구나. 역시 아직은 AB를 못 잡아도 괜찮다. 잡기가 쉽다.

Brains are **behavioural organs(B)**, and **behavioural adaptation(B)**, being **immediate and non-random**, is **vastly more efficient than genetic adaptation(A)**.

뇌는 행동 기관이며, / 즉각적이고 무작위적이지 않은 행동 적응이 유전적 적응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SHEAN.T 제일 중요!!!!!! 이 앞까지, 뭘 X소리지? 하고 읽어도 상관 없다. 이 문장에서는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반응했어야 한다. 왜? 'more than' 비교 문장이니까 무조건 AB 형성이지 이걸.. 여기서 정말 무조건, 님의 등급과 상관없이, 필자가 진화에서 강조하는 것은 '유전(A)'이 아니라 '행동(B)'이구나 잡아주셔야 한다. 그리고 머릿속에 이 AB를 막아야 한다.

So, in animals with brains, **behavioural change(B/S)** is the usual first response to **environmental threat(P)**.

그러므로 뇌를 가진 동물에게, / 행동 변화는 환경 위협에 대한 보통의 첫 번째 대응이다.

SHEAN.T 행동 변화가 환경 위협에 대한 첫 반응이구나, B로 확실히 잡아주자.

If the change is successful, **genetic adaptation(A)** to the new **behaviour(B)** will **follow more gradually**. Animals do not **evolve carnivore teeth(A)** and then decide it might be a good idea to eat meat(B).

* ex vacuo: 무(無)에서의 ** carnivore: 육식 동물

그 변화가 성공적이면, / 새로운 행동에 대한 유전적 적응이 더 점진적으로 뒤따를 것이다. / 동물들은 육식 동물의 이빨을 진화시키고 나서 결정하지 않는다 / 고기를 먹는 것이 좋은 생각일 수도 있다고.

SHEAN.T A는 B가 발생한 후 뒤따라갈 뿐이라면서 글을 마무리 하고 있다. 맨 마지막 문장의 이빨 예시는 AB로 이해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A=유전, B=행동으로 잡고 선지를 보시면, A선지가 3개, 헛소리가 1개, AB 중에 뭐가요? 선지가 1개 보인다. 평가원의 전형적인, 선지에서 물어보고 지문에서 답하기. 답은 1번!

- ① Which Adapts First, Behaviour(B) or Genes(A)?
 행동과 유전자, 어느 것이 먼저 적용하는가?
- ② The Brain Under Control of Selfish Genes(A) (22.7%)
 이기적 유전자의 통제 하에 있는 뇌
- ③ Why Animals Eat Meat: A Story of Survival(off)
 동물들이 고기를 먹는 이유: 생존 이야기
- ④ Genes(A) Always Win the Battle Against Nature!
 유전자는 자연과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한다!
- ⑤ The Superior Efficiency of Genetic Adaptation(A)
 유전 적응의 우월한 효율성

SHEAN.T'S COMMENT

제목 정답: ①번.

읽어내려가면서 '집요하게' AB의 개념을 잡아가야 하는 문제이다. 글의 서두부터 A는 정확, 완벽하다고 하니 B는 부정확, 불완전과 같은 개념으로, 선입견 없이 필자가 not A but B를 치는 대로 따라가서 아래와 같이 AB 개념 정립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A: 정확, 완전, 절대, 결과 < B: 부정확, 불완전, 상대, 과정

VOCABULARY

1. accurate	1. 정확한	9. summit	9. 정상, 꼭대기
2. humble(v)	2. 겸허하게 하다	10. integrate	10. 통합하다
3. adjust	3. 조정하다	11.	11.
4. uncertainty	4. 불확실성	12.	12.
5. emerge	5. 등장하다	13.	13.
6. attainable	6. 달성 가능한	14.	14.
7. precision	7. 정확, 정밀	15.	15.
8. inherently	8. 본질적으로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1.9.24(오답률: 59.7%)

The discovery that man's knowledge is **not**, and never has been, perfectly **accurate**(A) has had a **humbling** and perhaps a **calming effect**(B) upon the soul of modern man.

인간의 지식이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다는, 그리고 결코 완벽하게 정확했던 적이 없다는 발견은 / 현대 인간의 영혼에 겸허하게 하는, 그리고 아마도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SHEAN.T 첫 문장부터 not A!!! 반응하시고 신나야 한다.. 나만 신나니..? 인간의 지식은 '정확하지 않다'고 하니, 정확함이라는 개념이 A. 이것의 대립 개념, 즉 부정확함, 애매함과 같은 개념이 B겠구나 예측하셔야 한다.

The nineteenth century(A), as we have observed, was the last to believe that the world, as a whole as well as in its parts, could ever be **perfectly known**(A).

19세기는, 우리가 목격했듯이, 마지막 시기였다 / 세계가,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로서, 언젠가 완벽하게 알려질 수 있다고 믿은.

SHEAN.T 'perfectly'라는 개념이, '정확함'이라는 개념과 같은 범주라는 게 들어 오시면서, A 문장으로 정의. 19세기니까 '과거'에는 A. 뒤에 현재가 B일 것이 예상된다.

We realize **now**(B) that **this**(A) is, and always was, **impossible**. We know **within limits**(B), **not absolutely**(A), even if **the limits**(B) can usually be **adjusted** to satisfy our needs.

우리는 이제 이것이 불가능하며, 언제나 불가능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 우리는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닌, 한계 내에서 안다, / 비록 그 한계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통 조정될 수 있을지라도.

SHEAN.T 현재 A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드디어 B를 명확하게 지칭하는 표현 등장. '완벽하게(A)' 아는 것이 아닌, '한계 내에서 = 불완전하게(B)' 아는 것이 B임을 머릿속에 또렷하게 박으셔야 한다. 이제 내려가면서 각 범주 속에 AB grouping 하자.

Curiously, from **this new level of uncertainty**(B) even **greater goals**(B) **emerge** and appear to be **attainable**.

의외하게도, 이 새로운 수준의 불확실성으로부터 / 훨씬 더 위대한 목표가 나타나고 달성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SHEAN.T 새로운 B 단어, uncertainty를 B로 grouping! 조심하자. 일반적인 context라면 P 느낌이지만, 필자가 개입해서 B라고 딱 정의해주면 '선입견 없이' AB grouping 하셔야 한다.

Even if we **cannot** know the world **with absolute precision**(A), we can still control it(B). Even our **inherently incomplete knowledge**(B) seems to work as powerfully as ever.

비록 우리가 절대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세계를 알 수 없을지라도, /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제어할 수 있다. / 심지어 우리의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지식조차도 작동하는 듯 보인다 / 그 어느 때만큼이나 강력하게.

SHEAN.T 완벽하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not A), 통제하고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B!

In short, we may **never know precisely**(A) how high is the highest mountain, **but** we continue to be certain that **we can get to the top**(B) **nevertheless**.

간단히 말해, 우리는 결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 가장 높은 산이 얼마나 높은지, /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확신한다 / 그럼에도 우리가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SHEAN.T 'In short'로 결론을 마무리 해주니, 그리고 또 not(never) A but B를 해주니 또 반응하면서 AB를 다시 한 번 머릿속에 새긴다. 혹 이 앞까지 무슨 소리인지 1도 몰랐더라도, 이 문장을 기반으로 답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산의 정상(완벽한 정복)은 정확히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정상(top)에 도달하기를 계속한다(과정). 1번이 아름답게 이 AB를 드러낸 선지!

① **Summits**(A) **Yet** to Be Reached: **An Onward Journey to Knowledge**(B)

아직 정상에 이르지 못했다: 지식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② **Over the Mountain: A Single But Giant Step to Success**(A, 23.5%)

산을 넘어: 성공으로 가는 하나뿐이지만 거대한 발걸음

③ **Integrating Parts into a Whole**(off): **The Road to Perfection**(A)

부분들을 하나의 전체로 통합하기: 완벽으로 가는 길

④ **How to Live Together**(off) in an Age of **Uncertainty**(B)

불확실성의 시대에 함께 사는 방법

→ 매력적 선지. 수능에서도 항상 조심하도록 하자. 이렇게 'B' 선지이기도 하지만, 관련 없는 주제 / 세부적인 내용으로 헛소리를 지껄이는 선지는 탈락이다!

⑤ **The Two Faces of a Knowledge-Based Society**(off)

지식 기반 사회의 두 얼굴

SHEAN.T'S COMMENT **VOCABULARY**

제목 정답: ③번.

어휘, 해석, 소재가 어렵긴 하지만 AB, P가 명확해도 너무 명확한 지문. 지문 중반부터 AB를 공공서비스와 시민 참여로 '확실히' 잡아주고, 쪽 내려오다가, 결국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B가 A로 바뀌면서 P!!!!가 있다는 것이구나 요리하면서 가볍게 3번을 골라주면 되겠다.

P: 공공서비스(A)가 시민 참여(B)를 대체함

1. governance	1. 통치	9. replacement	9. 대체
2. administration	2. 행정	10. substitute(n), substitution	10. 대체자(물), 대체
3. institution	3. 제도, 기관	11. diminish	11. 줄어들다
4. citizenry	4. 시민들	12. have an implication	12. 영향을 미치다
5. taxation	5. 과세	13. preparedness	13. 준비 태세
6. utility	6. 공익사업	14. sound(a)	14. 건강한
7. displace	7. 대체하다, 쫓아내다	15. contemporary	15. 현대의, 동시대의
8. involvement	8. 참여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2.9.24

The world has become a nation of laws and **governance** that has introduced a system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to keep order. With this administrative management system, urban **institutions** of government have evolved to offer increasing levels of services to their **citizenry**, provided through a **taxation** process and/or fee for services (e.g., police and fire, street maintenance, **utilities**, waste management, etc.).

세상은 법과 통치의 나라가 되었다 / 공공 행정과 관리의 시스템을 도입한 /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 이런 행정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 도시의 정부 기관들은 진화했다 / 자신의 시민에게 증대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 과세 과정 그리고/또는 서비스 수수료를 통해 제공되는 / (예를 들면, 치안과 소방, 도로 유지 · 보수, 공익사업, 쓰레기 관리 등).

SHEAN.T 이 부분까지, 공공 행정이라는 참 어려운 얘기와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파악해야 할 중요한 점은 여기까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왜? 대립성과 P가 없으니까. 그저 공공 서비스 얘기이구나~ 정도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된다.

Frequently this(A) has displaced citizen involvement(B). Money for services(A) is not a replacement for citizen responsibility and public participation(B). Responsibility of the citizen(B) is slowly being supplanted by government(A) being the substitute provider.

빈번하게 이것은 시민 참여를 대체했다. / 서비스를 위해 내는 돈은 대체하는 게 아니다 / 시민의 책임과 공적인 참여를. / 시민의 책임이 서서히 대체되고 있다 / 대체 제공자가 되는 정부에 의해.

SHEAN.T 이 부분부터 AB를 할 수 있는 지점이 나오니 반응! '어휘'가 되는 친구는 displace부터 반응할 수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 not부터 반응하면 된다. displace를 '대체하다, 쫓아내다'로 아는 수험생이라면(많진 않을 것), 공공 서비스가 시민 참여(보통 필자가 좋은 쪽으로 판단하는)를 대체했어? 공공 서비스가 A고 시민 참여가 B네, 라고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not과 replacement에 반응하면서, 서비스 비용(money)이 A고 시민과 대중의 참여, 책임이 B구나 잡을 수 있겠다.

SHEAN.T 그 다음 문장 supplant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필자는 B가 A로 바뀌는 P!!!!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음을 느껴야 한다. 제발제발제발.. 이 시점부터 '공공서비스(A)', '시민 책임, 참여(B)'를 머릿속에 '박고' 내려가면서 이 개념들을 AB로 grouping만 할 뿐이다.

Consequently, there is a philosophical and social **change** in attitude and sense of responsibility of our urban-based society to become involved(B). The sense of community and associated responsibility of all citizens(B) to be active participants is therefore diminishing. Governmental substitution(A) for citizen duty and involvement(B) can have serious implications(P). This impedes(P) the nations of the world to be responsive to natural and man-made disasters(P) as part of global preparedness.

* supplant: 대신하다 ** impede: 방해하다
결과적으로,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변화가 있다 / 책임의 태도와 의식에서 /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사회가 참여해야 하는. / 공동체 의식과 모든 시민의 관련된 책임감은 / 적극적인 참가자가 되어야 한다는 / 그래서 줄어들고 있다. / 시민의 의무와 참여를 정부가 대신하는 것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이것은 전 세계의 국가들을 방해한다 / 자연재해와 인재에 반응하는 / 전반적인 준비 태세의 일부로.

SHEAN.T '결과적으로' 시민의 책임과 참여(B)에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변화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겠다. 왜? A로 대체되니까. 그것을 다음 문장 diminishing에서 명확히 말해주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 A가 B를 대체하면서 P!!!!가 켜다는 것을 여러 P단어들로 확실하게 느껴주시고, 이 AB, P를 진짜 예쁘게 예쁘게 꾸겨 넣은 3번으로 가면 되겠다. cost가 P로 느껴지는 것이 관건. A가 주도하게 됨으로써 그 비용(P)으로 (바람직한) B는 감소한다. 3번.

SHEAN.T 대의파악 ABPS로 요리 못했으면 정말 반성해야 한다 ㅠㅠ.

- ① A **Sound** Citizen Responsibility in a Sound Government(A 강조)
건전한 정부에 건전한 시민의 책임감이 있든다)
- ② Always Better than Nothing: The Roles of Modern Government(A)
없는 것보다 항상 더 낫다: 현대 정부의 역할
- ③ **Decreased** Citizen Involvement(B): A Cost(P) of Governmental Services(A)
줄어든 시민 참여: 정부 서비스의 대가
- ④ Why Does Global Citizenship Matter in **Contemporary** Society?(off)
현대 사회에서 세계 시민권은 왜 중요한가?
- ⑤ How to Maximize Public Benefits of Urban-Based Society(off)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의 공적인 혜택을 최대화하는 방법

SHEAN.T'S COMMENT

의미 정답: ①번.

간접연계였지만 EBS 지문을 공부했다면 충분히 익숙함에 읽기가 좀 더 수월했을 문제. PSPS로 이어지는 논리 흐름이 좋다. 밑줄 의미 문제도 무슨 다른 신박한 유형이 아니라, AB 혹은 PS로 '정의'할 뿐임을 명심하자.

P: 관광이 토착민 영역 침범 S: 경제 발전에 도움

P: 양날의 검(결국 전통 문화를 잃는 것) S: 그래도 관광할 수 있는 문화 유산은 있어야 함

This is a cage model이므로, cage model은 바로 이 S! 내가 마음대로 '새장'이니까 나쁘게(P) 인지하면 안 된다. 로직 구조를 따라가야 내가 말에 따라 판단하려 하면 절대 안 된다!

VOCABULARY

1. invade	1. 침입하다	9. folk(a)	9. 민족의
2. evil	2. 악(의)	10. normative	10. 규범적인
3. perceive	3. 인지하다	11. prevailing	11. 우세한
4. modernity	4. 현대성	12. authenticity	12. 진짜임
5. two-edged sword	5. 양날의 검	13. gaze at	13. ~을 응시하다
6. progress	6. 진보(하다)	14. social fabric	14. 사회 구조
7. uniqueness	7. 독특함	15.	15.
8. phony	8. 가짜의, 허위의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0.9.21(오답률: 59.5%)

For a long time, tourism was seen as a huge monster **invading** the areas of indigenous peoples(P), introducing them to the evils of the modern world.

오랫동안, 관광은 거대한 괴물을 간주되었다 / 토착민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 이들을 현대 세상의 악으로 인도하면서.

SHEAN.T 첫 문장 '거대한 괴물', '침범' 등의 단어를 통해 관광을 바로 P로 잡아야 한다. 오랫동안 관광은 토착민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P로 여겨졌다. AB적 선택이 있다면, '이제는 아니다'라는 내용까지 예상해볼 수 있겠다.

However, research has shown that **this(P)** is not the correct way to **perceive** it. In most places, **tourists are welcome and indigenous people see tourism as a path to modernity and economic development(S)**.

하지만, 연구는 보여주었다 / 이것이 관광을 인식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란 것을. / 대부분의 장소에서, / 관광객들은 환영받고 / 토착민들은 관광을 간주한다 / 현대성과 경제 발전으로 이르는 길로.

SHEAN.T 역시나 However!!가 나오면서 이 P를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까지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관광이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S라고 말하고 있다. 이 전환을 잘 잡아주자.

But such development(S) is always a **two-edged sword(P)**. Tourism can mean **progress(S)**, but most often also means the loss of traditions and cultural **uniqueness(P)**. And, of course, there are **examples** of 'cultural pollution', 'vulgarization' and '**phony-folk-cultures**'. The background for such characteristics(P부연) is often more or less romantic and the **normative** ideas of a former or **prevailing authenticity**.

하지만 그러한 발전은 항상 양날의 검이다. / 관광은 발전을 의미할 수 있다, / 하지만 가장 흔하게 또한 의미한다 / 전통과 문화적 독특함의 손실을. / 그리고 당연히, '문화 공해', '상스럽게 함' 그리고 '가짜 민족 문화'와 같은 예시가 있다. / 그러한 특성에 대한 배경은 종종 다소 낭만적이고 / 이전의 혹은 만연한 진짜 모습에 대한 규범적 생각이다.

SHEAN.T 최근 평가원 PS 대의과악 지문에서 참 좋아하는, PSP 논리 전개다. 그러한 S를 또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다. 양날의 검은 P, S가 다 포함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좀 더 'P'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한국어로도 '나를 보호할 수도 있지만, 나를 해칠 수도 있다'는 표현으로, 후자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무엇보다 'S, But' 했으니 P를 말하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관광에 대한 로직을 다시 P로 가져와야 한다. 아 관광은 문화 전통을 잃을 수 있는 P가 있구나!

Ideally (to some) there **should** exist ancient cultures for modern consumers to **gaze at**, or even step into for a while, while travelling or on holiday(S). This is (의미)a **cage model(S)** that is difficult to defend in a global world(P) where we all, indigenous or not, are part of the same **social fabric**.

* indigenous: 토착의 ** vulgarization: 상스럽게 함
이상적으로 (어느 정도) 고대 문화가 존재해야 한다 / 현대 소비자가 관찰할 수 있는, / 심지어 잠깐 들어가볼 수 있는, / 여행 중에 혹은 휴일에. / 이는 **새장 모형**이다 / 세계화 시대에 지키기 어려운 / 토착민이든 아니든, 우리 모두가 같은 사회 조직의 일부인.

SHEAN.T 어렵다. 이 문장에서 'Ideally' 'should'와 같은 표현을 보면서, 다시 S로 로직을 가져와야 한다. 아, 그래도 이상적으로는 현대 소비자(관광객)들이 고대 문화 탐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밑줄 의미는 'This'!!!를 통해 이 S를 이어 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친구들 마음대로 '새장 모형은 간혀 있는 거니까 안 좋은 건가..?' 이러시면 안 되고, 아 새장 모형은 어쨌든 필자가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모형, 즉 S라고 잡으셔야 한다. 물론 이 S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P가 제시되고 있지만, 'a cage model' 자체는 S가 맞다.

SHEAN.T 이 밑줄 S를 '관광도 가능하면서, 문화 유산에도 P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면서, 그대로 이를 표현한 1번으로 가자.

- ① **preserving a past culture in its original form for consumption(S)**
과거의 문화를 소비하기 위해 그것을 원래의 형태로 보존하기
- ② **restoring local cultural heritages that have long been neglected(off)**
오랫동안 무시되어왔던 현지 문화 유산을 복구하기
→ 무시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관광으로 많이 찾다보니 문제가 생긴다.
- ③ **limiting public access to prehistoric sites(반) for conservation**
보존을 위해 선사시대 장소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제한하기
→ 결국 마지막에는 관광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④ **confining tourism research to authentic cultural traditions(off) (27.6%)**
관광 연구를 진짜 문화 전통으로 제한하기
- ⑤ **maintaining a budget(off) for cultural policies and regulations**
문화 정책 및 규제를 위한 예산을 유지하기

SHEAN.T'S COMMENT **VOCABULARY**

의미 정답: ②번.

의미 문제는 이제 그 정체성이 확실하다. 밑줄 의미는 추상적인 ‘말’이 나오니, 나는 그 추상적인 말을 ‘단순한 로직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것. 환경 소재의 경우 보통 PS를 중심으로 읽으면 좋다는 팁 또한 챙겨가자.

P: 인권 중심으로 인한 환경 파괴 → S: 환경 권리도 중시하여 환경 보호

1. proverb	1. 속담	9. accelerate	9. 가속화하다
2. tale	2. 이야기	10. cut down on	10. ~을 줄이다
3. glorify	3. 미화하다	11. alter	11. 바꾸다
4. put across	4. ~을 이해시키다	12. violation	12. 침해
5. rate(n)	5. 속도, 비율	13. uncover	13. 밝히다
6. consumption	6. 소비	14. underrepresented	14. 잘 드러나지 않은
7. unsustainable	7. 지속 불가능한	15. lawmaker	15. 입법자
8. disposable	8. 마음대로 쓸 수 있는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1.수능.21(오답률: 51.4%)

There is an African **proverb** that says, ‘Till the lions have their historians, **tales** of hunting will always **glorify** the hunter’. The proverb is about power, control and law making.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 ‘사자들이 자신들의 역사가를 갖게 될 때까지, 사냥 이야기는 언제나 사냥한 자를 미화할 것이다.’라는. / 이 속담은 권력, 통제, 법 제정에 관한 것이다.

SHEAN.T 속담이 나오고 그 속담 인용구에는 추상적인 말이 넘쳐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해하려고 붙잡고 있거나 멘붕이 될 것인가? 절대 노노. 제발 아 이 속담은 권력, 법에 관한 거구나~ 하시고 쿨하게 넘어가야 한다.

Environmental journalists **have to play** (의미) **the role of the ‘lion’s historians(B,S)’**. They **have to put across** the point of view of the environment to people who make the laws(S). They **have to be the voice of wild India(S)**.

환경 저널리스트는 ‘사자의 역사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그들은 환경에 대한 관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 그들은 인도의 야생자연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

SHEAN.T 밑줄 의미 문장의 ‘사자의 역사가’라는 추상적 의미에 쫓지 마시고 이를 로직으로 단순화하자. ‘have to’에 반응하시고 밑줄을 B, S 쪽으로 잡아보자. 환경 얘기를 하는 걸 보니 PS 쪽으로 읽으면 더 직관적으로 와닿겠다. 나는 이제 ‘환경’ 문제에서 어떤 S를 말하는 건지를 잡으면 그게 밑줄의 의미다.

SHEAN.T 밑줄 바로 다음 문장에서도 have to를 치면서 S를 표현해주니 잡고 이해하자. 아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환경의 관점을(당연히 보호하자는) 전달해야 하는구나!

The present **rate** of human **consumption** is completely **unsustainable(P)**. Forest, wetlands, wastelands, coastal zones, eco-sensitive zones, they are all seen as **disposable** for the **accelerating** demands of human population(P).

현재 인간의 소비율은 완전히 지속 불가능하다. / 숲, 습지, 황무지, 해안 지대, 환경 민감 지역, / 모두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 수요를 위해.

SHEAN.T 이 두 문장은 P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 소비가 지속 불가능이고, 또 여러 환경은 인간을 위해 마음대로 쓸 수 있는(disposable) P를 말하는 거구나 ‘정도’ 잡아주고 넘어간다.

But to ask for **any change in human behaviour(S)** — whether it be to **cut down on consumption, alter** lifestyles or decrease population growth — **is seen as a violation of human rights(P)**.

하지만 인간의 행동에 어떤 변화든 요구하는 것은 / 소비를 줄이는 것이든,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든, 인구 증가를 줄이는 것이든, / 인권 침해로 여겨진다.

SHEAN.T But이 나왔으니 S가 등장하는데(인간 행동의 변화), 문장의 뉘앙스를 잘 이해해야 한다. 현재 상황이, 이 S를 요구하는 것은 인권 침해로 여겨져, 이 S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P를 말하는 것이다.

But at some point **human rights(A)** become **‘wrongs(P)’**. **It’s time we changed our thinking(S)** so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rights of humans(A) and the rights of the rest of the environment(B)**.

하지만 어느 시점에 인권은 ‘옳지 않은 것’이 된다. /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할 때이다 / 인간의 권리와 나머지 환경의 권리 사이에 차이가 없도록.

SHEAN.T 또 But이 나오니 초집중!! 항상 최종 역점은 가장 중요하다. 앞에 나온 ‘인권 중심 관점(A로 볼 수 있겠다)’을 P라고 깬 뒤, ‘~할 때이다(It’s time ~)’라는 표현으로 S를 말하고 있으니 답과 직결되는 문장이다. 집중해서 확실히 이해한다. 아, 우리의 사고 방식을 바꿔야 하는구나. 인권(A)과 환경 권리(B) 사이에 차이가 없도록, 좀 더 B에 중점을 뒀야 한다는 S의 뉘앙스를 느끼며 독해를 마무리하자.

SHEAN.T 이 ‘A에서 B로의 변화(shift)’를 S로 표현한 2번으로 가면 되겠다. 무슨 ‘사자의 역사가들’이라는 말과 답은 1도 상관 없는 것 명심. 나는 지문의 단순한 로직을 이해할 뿐이다.

- ① **uncovering** the history of a species’ biological evolution(off)
한 종의 생물학적 진화의 역사를 밝혀내는 것
- ② **urging** a shift to sustainable human behaviour for nature(S)
자연을 위한 인간의 지속가능한 행동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것
- ③ **fighting against** widespread violations of human rights(off S, 20.5%)
만연한 인권 침해에 맞서 싸우는 것
- ④ **rewriting** history for more **underrepresented** people(off S)
더 잘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를 다시 쓰는 것
- ⑤ **restricting** the power of environmental **lawmakers**(반, 19.1%)
환경법 제정자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

SHEAN.T'S COMMENT

의미 정답: ⑤번.

제발제발제발, 예시의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 뭐를 이해하려는 것보다(물론 그래도 되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쉽지 않을 뿐), 첫 문장에서 AB의 '개념'을 '핵심 vs. 주변'으로 잘 '사고'하여 잡아주고, 밑줄 부분을 B로 정의하고, 예시는 건너 뛰고, 지문 마지막 부분에서 이 AB를 다시 확정하며 선지와 연결시키는 '빠르고 정확한' 독해가 관건인 문항.

A: 사업의 핵심 < B: 사업의 주변부(부가서비스 등)

VOCABULARY

1. edge	1. 가장자리, 우위	9. maintenance	9. 유지(보수)
2. retailer	2. 소매업자	10. turn A into B	10. A를 B로 바꾸다
3. boost	3. 증진시키다	11. originally	11. 원래, 본래
4. accompanying	4. 수반하는, 동반하는	12. result from	12. ~에서 결과가 나온다
5. unassembled	5. 조립되지 않은	13.	13.
6. installation	6. 설치	14.	14.
7. incomplete	7. 불완전한, 미완성의	15.	15.
8. layer	8. 층, 쌓다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1.6.21(오답률: 48.3%)

Many ancillary businesses that today seem almost core(A) at one time started out as (의미) journey edges(B).

오늘날 거의 핵심인 것처럼 보이는 많은 보조 사업들이 / 한때는 여정의 가장자리로 시작했다.

SHEAN.T 밑줄 표현에 있는 어휘 자체에서 ABPS가 느껴지는 경우가 꽤나 많다. 이 경우가 그렇다. '여정의 가장자리.' 이 표현만 보면 바로 감이 오지 않지만, 해당 문장을 두세 번 읽었을 때에는, core와 edge의 대립성이 팍팍 느껴져야 한다. 그리고 두 AB 중 필자는 어느 것을 강조하는지 찬찬히 생각하셔야 한다. '오늘날 핵심으로 보이는 것이 한 때는 여정의 가장자리로 시작했다.' 핵심인 것 같지만~~~~ 사실 가장자리(별 중요하지 않은 것)로 시작했다는 뉘앙스. core를 A, edge를 B로 잡자.

For example, retailers often boost sales with accompanying support(B) such as assembly or installation services.

예를 들어 소매업자들은 흔히 판매를 촉진한다 / 조립이나 설치 서비스와 같은 수반되는 지원(서비스를) 통해.

SHEAN.T 첫 문장을 두세 번 읽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서도 명확하다. 첫 문장이 중요하니까 예시를 든다. 혹 못 잡았다면, 다시 back해서 첫 문장에서 로직을 잡아주어야 한다.

Think of a home goods retailer selling an unassembled outdoor grill(A) as a box of parts and leaving its customer's mission incomplete. When that retailer also sells assembly and delivery(B), it takes another step in the journey to the customer's true mission of cooking in his backyard.

가정용품 소매업자를 생각해 보자 / 조립되지 않은 야외 그릴을 부품 상자로 판매하고 / 고객의 임무를 미완성 상태로 내버려 두는. / 그 소매업자가 또한 조립과 배달도 판매할 때, / 이는 여정에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 그 고객이 자기네 뒤뜰에서 요리하는 자신의 진정한 임무를 향한.

SHEAN.T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는 이 부분은, 본인이 읽으며 AB로 들어오면 잡아도 되고, 뭔가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도 된다. 왜? 이 예시에 있는 물품들이 AB인가?를 물어보는 건 영어가 아니니까(국어에선 그럴 수 있겠지). 가장자리 서비스가 B라는 것만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된다.

Another example is the business-to-business service contracts(B) that are layered on top of software sales(A).

또 다른 예는 소프트웨어 판매에 더하여 층층이 얹어서 파는 기업 대 기업 간 서비스 계약이다.

SHEAN.T 이 부분도 예시이지만, 앞 예시보다 짧고 명확하므로 AB를 잡아주면 좋다. 본래 파는 핵심 소프트웨어(A)에, 서비스 계약(B)을 얹어서 판다. 허나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AB로 grouping이 애매하면 그냥 넘어가도 좋다.

Maintenance, installation, training, delivery, anything at all that turns do-it-yourself into a do-it-for-me solution originally resulted from exploring the edge(B) of where core products(A) intersect with customer journeys.

* ancillary: 보조의, 부차적인 ** intersect: 교차하다
유지, 설치, 교육, 배달, 스스로 하는 것을 대신 해주는 해결책으로 바뀌주는 것은 무엇이든 / 원래 핵심 제품이 고객의 여정과 교차하는 곳의 가장자리를 탐구함으로써 생겨났다.

SHEAN.T 마지막에 정리해주는 친절한 평가원. edge와 core라는 AB 단어도 보이니 무조건 반응해야겠지요. '주어와 같은 많은~~ 것들이, core의 edge를 탐구해서 생겨났다!' 정도로 단순화해서 보시면, 결국 이 문장도 edge를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느껴진다. core를 A로, edge를 B로 확정!

SHEAN.T 밑줄로 가서, edge라는 것은 핵심 제품이 아닌 부가 서비스 정도로 이해를 하고 선지를 본다. 너무나 아름답게도 5번 선지가, beyond라는 전치사를 활용하여, A를 넘어선 B라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① requiring customers to purchase unnecessary goods(off)
고객에게 불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것
- ② decreasing customers' dependence on business services(off)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
- ③ focusing more on selling end products than components (15.8%)
(off, 따지자면 end products를 A, components를 B라고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반대' 선지.)
부품보다 최종 제품 판매에 더 중점을 두는 것
- ④ adding a technological breakthrough(off) to their core products(A)
핵심 제품에 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추가하는 것
- ⑤ providing extra services(B) beyond customers' primary purchase(A)
고객의 기본적인 구매를 넘어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SHEAN.T'S COMMENT **VOCABULARY**

의미 정답: ①번.

밑줄 의미가 강력한 '명령문'이니, 바로 '박스'의 의미를 로직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박스는 넘어뜨리면 안 되는 대상이니 B로 잡고, 지문을 읽으면서 AB의 개념을 '변동 vs. 고정(예측)'으로 딱 잡아서 그대~로 B를 말하는 1번 선지로 가야 한다. 추상적이고 세부적인 말에 휩쓸리지 말고 핵심 로직 개념을 이해하려 하자.

A: 사건의 변동, 예측 불가능성 < B: 사건의 고정, 예측 가능성, 틀(박스)

1. figure out	1. ~을 알아내다	9.	9.
2. fluid	2. 액체	10.	10.
3. demanding	3. 고된, 힘든	11.	11.
4. pound(v)	4. 치다, 두드러다	12.	12.
5. fixedness	5. 고정성, 고착됨	13.	13.
6. relief	6. 안도(감)	14.	14.
7. curse	7. 저주	15.	15.
8.	8.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1.9.21(오답률: 67.8%)

By expecting what's likely to happen next(B), you prepare for the few most likely scenarios so that you don't have to figure things out while they're happening.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함으로써, / 여러분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몇 안 되는 시나리오에 대비한다 / 그것들이 일어나는 동안에 여러분이 상황 파악을 할 필요가 없도록.

SHEAN.T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상'해서 상황에 잘 대비할 수 있구나.. 다음을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는(B) 얘기네, 정도 잡으시면 된다.

It's therefore not a surprise when a restaurant server offers you a menu. When she brings you a glass with a clear **fluid** in it, you don't have to ask if it's water. After you eat, you don't have to figure out why you aren't hungry anymore. All these things are expected and are therefore not problems to solve.

그러므로 놀랄 일이 아니다 / 음식점 종업원이 여러분에게 메뉴를 제공하는 것은. / 종업원이 여러분에게 투명한 액체가 담긴 유리잔을 가져다줄 때, / 여러분은 그것이 물인지 아닌지 물어볼 필요가 없다. / 식사를 한 후에, 여러분은 왜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은지 알아낼 필요가 없다. / 이 모든 것들은 예상된다 / 그러므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SHEAN.T 식당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예시임을 알아채시고, '예상이 되니 잘 대비가 된다는 얘기' 정도로 속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한다. 첫 문장을 아무 생각 없이 읽었고 지금 이 부분이 예시임을 알아챘다면, 다시 첫 문장으로 가서 '다음 상황을 예상하는 것'을 B로 잡을 수 있다. 중요하니까 예시를 들겠지!

Furthermore, imagine how demanding(P) it would be to always consider all the possible uses for all the familiar objects with which you interact(A). *Should I use my hammer or my telephone to pound in that nail?*

더욱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상상해보자 / 모든 사용 가능한 방법들을 항상 고려하는 것이 / 여러분이 상호작용하는 모든 친숙한 물건들에 대해. / "내 망치나 전화기를 사용해야 할까 / 저 못을 박기 위해서?"

SHEAN.T demanding P로 반응!!!('요구하는'이 아니라 '힘든, 고된'으로 알고 있어야 반응을 한다. 단어 먼저.) 내가 항상 모든 쓰임을 고려해야 한다면 P. 다시 말해 나는 많은 것들을 '예상'해서 모든 쓰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 P가 없는 것.

On a daily basis, functional fixedness(B) is a **relief**, **not a curse(P)**. That's why you shouldn't even attempt to consider all your options and possibilities(A).

매일을 기준으로, 기능적 고정성은 저주가 아니라 안도이다. / 그것이 이유이다 / 여러분이 모든 선택권과 가능성을 고려하려는 시도를 해서도 안 되는.

SHEAN.T 제발 또 not A but B 논리에 반응하자. '기능적 고정성'이 저주, 즉 P가 아니라 안도(좋은 것)이다. 따라서 기능적 고정성을 바로 B로 잡아준다. 이 순간, 바로 A의 '개념'을 대립적으로 떠올리셔야 한다. A는 고정되지 않은 것, 계속 바뀌는 것. 그것을 다음 문장에서 'shouldn't'로 '가능성을 다 고려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You can't. If you tried to(A), then you'd never get anything done(P). So (의미)don't knock the box(not A = B). Ironically, although it(B) limits your thinking, it(B) also makes you smart. It helps you to stay one step ahead of re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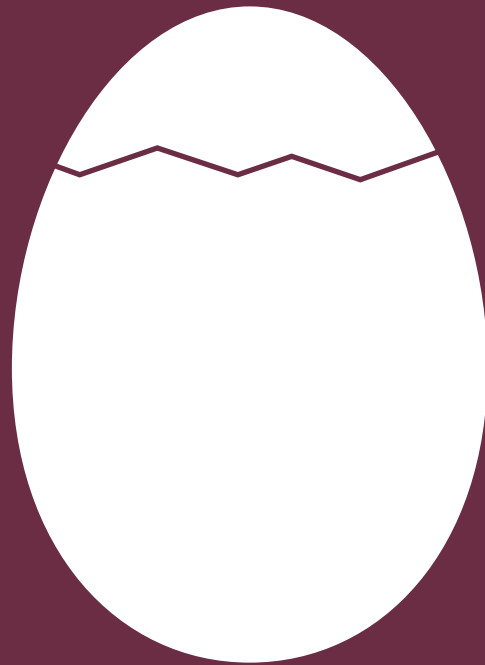
그럴 수도 없다. /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 어떤 일도 끝낼 수 없을 것이다. / 그러니 상자를 (두드려) 부수지 마라. / 역설적으로, 비록 그것이 여러분의 사고를 제한하지만, / 그것은 또한 여러분을 똑똑하게 만들어 준다. / 이는 현실보다 한발 앞서도록 여러분을 도와준다.

SHEAN.T 앞 문장에 계속 이어서, A를 하려고 하면, P가 생긴다. 그러니, 'not A!!!!'라는 게 don't knock the box일 뿐이다. 밑줄 부분을 ABPS로 '정의'하시고 답을 내시는 것이지, 밑줄 부분을 해석해서 그 세부적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 not A 곧 B. B는 뭔데? 상황들을 다 예상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이 대비가 되는 것. 이렇게 B를 확실히 잡으면, 사실상 다른 선지를 막 제긴다기보다(그럼 시간도 아깝다), 1번 선지의 '습관적인 예상'이 B로 눈에 딱!!! 들어오면서, 1번을 고르고 넘어가는 것이다.

- ① Deal with a matter based on your habitual expectations(B). 습관적인 예상을 바탕으로 하여 문제를 처리하라.
- ② Question what you expect from a familiar object.(반) 여러분이 익숙한 물건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으라.
- ③ Replace predetermined routines(B) with fresh ones(A). 미리 정해진 일상을 새로운 일상으로 교체하라. → 결국 A 선지.
- ④ Think over all possible outcomes of a given situation.(A, 33.9%) 주어진 상황의 모든 가능한 결과에 대해 숙고하라.
- ⑤ Extend all the boundaries(A) that guide your thinking to insight. 사고를 통찰력으로 이끄는 모든 경계를 확대하라.

WEEK 2

어법 및 로직 준킬러 유형



BREAK THE KISS EGG

DAY 1

* 작수, 올해 6/9 어법(29)

- 세 문항에서 공통적으로 출제된 어법 사항은, 역시 키그램 S급, '동사 vs. 준동사', '관계사'였다. 역시 올해 수능도 둘 중 하나가 정답일 '확률'이 아주 높다. 세 문항에서 두 번 출제된 사항은 병렬을 통해 수일치를 물어보는 것이었다. 여전히 정답 확률 높다. 작수에 출제된 '대동사' 또한 최근 몇 년 간 A급 다크호스였으니 체크. 나머지 선지들은 능동 vs. 수동, 형용사 vs. 부사로 구성될 확률이 높겠다.

DAY 2

* 작수, 올해 6/9 어휘(30)

- 세 문항 모두 지문 자체가 AB, PS가 예쁘게 결합된 형태였다. 그리고 역시 정답은, PS의 프레임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다(올6평의 경우 AB쪽이라 볼 수도 있다). 이번 수능도 높은 확률로 해당 밑줄이 P 혹은 S가 맞는지 판단해서 푸는 형태가 될 것이다. PS의 프레임을 깔고 입도록 하자.

DAY 3

* 작수, 올해 6/9 요약(40)

- 작수 및 올9평은 AB였다. 지문이 지문 중반을 기준으로 앞뒤 AB로 나뉘어 아주 전형적인 요약 지문 형태였다. 반면 올6평은 P의 뉘앙스가 강한 지문이었다. 이번 수능도 전형적 AB일 확률 70%, PS 쪽일 확률 30% 정도라 볼 수 있겠다. 다만 올6/9평 모두 '긍정(+)' 선지 속에서 디테일하게 구분하길 요구하고 있으니(necessary vs. desirable, coordinate vs. identify), AB 개념의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DAY 4

* 작수, 올해 6/9 장문(41~42)

- 세 지문 모두 ABPS가 예쁘게 결합된 형태이다. 세 지문 모두 어휘 밑줄은 AB 대립적 사고로 나온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문을 AB 대립 개념을 확실히 잡고 읽는 것이 중요하고, 어휘 밑줄을 대립적으로 사고하는 게 중요하다. '추상(복잡)'에 밑줄이 있으면 '단순'을, '정확'에 밑줄이 있으면 '부정확'을, '빠르게'에 밑줄이 있으면 '느리게'인가? 사고하자.

DAY 5

* 주간 KISS 최중요 평가원 4문제(어휘)

- 최근 평가원 기출 중 밑줄 선지 PS 판단이 명확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지문의 소재, AB는 달라도 밑줄 판단은 PS로 나옴을 확인하자.

DAY 6

* 주간 KISS 최중요 평가원 4문제(요약)

- classic한 AB 소재와 PS가 잘 결합된 지문들로 선정하였다. '고정 vs. 변화', '물질 vs. 가치(추상)', '같음 vs. 다름', '맥락 유무' 모두 요약 뿐만 아니라 주요 문항에 모두 출제될 수 있는 AB 개념들이다.

DAY 7

주간 KISS 최중요 평가원 4세트(장문)

- 명확한 AB 개념 속에 정답이 PS로 나오는 것 두 개, AB로 나오는 것 두 개를 선정하였다. 특히 '단순 vs. 복잡', '같음 vs. 다름'의 AB는 너무나 중요한 AB이기 때문에 유심히 봐두도록 하자.

SHEAN.T'S COMMENT

어법 정답: ④번

어렵지 않게 what vs. that 어법 사항이 정답이었다. 항상 동사 및 관계사가 1순위 (키그램으로 치자면 S급) 어법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VOCABULARY

1. a life span	1. 수명	9. differentiate	9. 분화하다
2. divide	2. 분열하다, 나뉘다	10. specialized	10. 특화된
3. absorb	3. 흡수하다	11. dynamic	11. 역동적인
4. amino acid	4. 아미노산	12. interaction	12. 상호 작용
5. nutrient	5. 영양소	13. distinct	13. 뚜렷한
6. assemble	6. 조합하다	14. well-defined	14. 명확한
7. shift	7. 변화하다	15.	15.
8. mature	8. 성숙하다, 성숙한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2.수능.29(오답률: 55.0%)

Like whole individuals, cells have a **life span**. During their life cycle (cell cycle), cell size, shape, and metabolic activities can change dramatically. A cell is “born” as a twin when its mother cell **divides**, ① producing two daughter cells.

개체 전체와 마찬가지로, 세포도 수명을 가지고 있다. / 그것의 생명 주기(세포 주기) 동안에, / 세포의 크기, 모양, 물질대사 활동이 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 / 세포는 모세포가 분열할 때 쌍둥이로 '탄생'하여, 두 개의 딸세포를 생성한다.

SHEAN.T **동사 vs. 준동사:** is born이라는 본동사가 있으니 접속사가 없는 한 또 동사가 나올 수 없다. 준동사 Ving 형태인 producing이 맞다!

Each daughter cell is smaller than the mother cell, and except for unusual cases, each grows until it becomes as large as the mother cell (22.8%) ② was.

각각의 딸세포는 모 세포보다 더 작다, / 그리고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자란다 / 모세포의 크기만큼 커질 때까지.

SHEAN.T **대동사:** 해석을 통해 was 뒤에 large가 생략됐구나~라고 인지하는 게 가장 편하다. 문법적으로 보자면, 접속사 until 뒤 2형식 동사인 become 뒤 보여 자리에 large가 온 것을 확인하자. was 뒤에도 large가 생략되었으니 일반 동사를 받는 did가 아니라 2형식 동사인 be동사가 맞다!

During this time, the cell **absorbs** water, sugars, **amino acids**, and other **nutrients** and **assembles** them into new, living protoplasm. After the cell has grown to the proper size, its metabolism **shifts** as it either prepares to divide or **matures** and ③ **differentiates** into a **specialized** cell. Both growth and development require a complex and **dynamic** set of **interactions** involving all cell parts.

이 기간 동안, 세포는 물, 당, 아미노산, 그리고 다른 영양소들을 흡수한다 / 그리고 그것들을 새로운 살아있는 원형질로 조합한다. / 세포가 적절한 크기로 성장한 후, 그것의 물질대사가 변화한다 / 그것이 분열할 준비를 하거나 혹은 성숙하여 특화된 세포로 분화하면서. / 성장과 발달 둘 다 일련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 작용을 필요로 한다 / 모든 세포 부분을 포함하는.

SHEAN.T **수일치(병렬):** 접속사 as 뒤만 보자. either A or B 구문을 통해 prepares와 matures and differentiates가 병렬되어 있음을 확인하자. 수일치를 단수에 맞추어 differentiates가 맞다!

④ That(←What) cell metabolism and structure should be complex would not be surprising, but actually, they are rather simple and logical.

세포의 물질대사와 구조가 복잡할 것임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 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은 꽤 간단하고 논리적이다.

SHEAN.T **what vs. that:** 명사절 what 뒤는 불완전하다. 한데 주어 cell metabolism and structure, 동사 should be, 보여 complex 2형식 문장으로 완전하다. 완전한 문장을 이끌 수 있는 That으로 수정!

Even the most complex cell has only a small number of parts, each ⑤ responsible for a **distinct, well-defined** aspect of cell life.

* metabolic: 물질대사의 ** protoplasm: 원형질
가장 복잡한 세포조차도 그저 몇몇 부분만을 가지고 있다, / 각각은 세포 생명의 뚜렷하고, 명확한 측면을 맡고 있다.

SHEAN.T **형용사 후치 수식:** 독립분사구문이라는 어려운 용어/해설은 쓰지 않으려 한다. each(각각)라는 명사를 responsible for ~이라는 형용사구가 후치 수식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SHEAN.T'S COMMENT VOCABULARY

어법 정답: ③번.

역시 관계사.. 관계사... 키그램 S급.... 다만, 관계사 뒤 '완전 vs. 불완전' 판단 시, 결국 해당 동사의 자타 여부가 핵심이다. 그리고 키그램에서도 설명했듯, 결국 내가 해당 동사를 목적어 유무에 따라 자동사처럼 혹은 타동사처럼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이 관계사 오답을 고르는 데 핵심이라 할 수 있겠다.

1. composition	1. 구성	9. cluster	9. 무리
2. range(v)	2. 범위가 ~에 이르다	10. micro-watershed	10. 작은 분수령
3. govern	3. 지배하다	11. confined to N	11. ~에 국한된
4. turn over	4. 바뀌다	12. element	12. 요소
5. rhythmic	5. 규칙적으로 순환하는	13. indivisibility	13. 불가분성
6. extensive	6. 광범위한	14. barrier	14. 장벽
7. biome	7. (특정 환경의) 생물군계	15. mobility	15. 이동성
8. involve	8. 포함하다	16. migratory	16. 이주[이동]하는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3.6.29(오답률: 56.2%)

Ecosystems differ in **composition** and extent. They can be defined as **ranging** from the communities and interactions of organisms in your mouth or ① those in the canopy of a rain forest to all those in Earth's oceans.

생태계들은 구성과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다. / 그것[생태계]들은 정의될 수 있다 / 범위가 여러분의 입안에 있는 유기체들의 군집과 상호작용 혹은 열대 우림의 덮개 안에 있는 그것[유기체들의 군집과 상호작용]들에서부터 / 지구의 바다에 있는 모든 그것[유기체들의 군집과 상호작용]들까지 이르는 것으로.

SHEAN.T 대명사: 정확한 해석을 통해 those가 가리키는 것을 파악하자. or 앞뒤로 '입 속에 있는' 것들과 '우림 덮개에 있는' 것들이 병렬된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the communities and interactions of organisms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고, 의심의 여지 없이 복수 those가 맞다.

The processes (21.4%)② **governing** them differ in complexity and speed.

그것들을 지배하는 과정들은 복잡성과 속도의 면에서 차이가 있다.

SHEAN.T 동사 vs. 준동사: 접속사가 없는 한 한 문장의 동사는 하나다. differ라는 본동사가 있으니 준동사 governing 형태로 The processes를 수식하는 게 맞다!

There are systems that **turn over** in minutes, and there are others ③ whose(←which) **rhythmic** time extends to hundreds of years. Some ecosystems are **extensive** ('biomes', such as the African savanna); some cover regions (river basins); many **involve clusters** of villages (**micro-watersheds**); others are **confined to** the level of a single village (the village pond). In each example there is an **element of indivisibility**.

몇 분 안에 바뀌는 시스템도 있고, / 규칙적으로 순환하는 시간이 수백 년까지 연장되는 시스템도 있다. / 어떤 생태계는 광범위하고(아프리카 사바나 같은 '생물군계'), / 어떤 생태계는 지역들에 걸쳐 있으며(강의 유역), / 많은 생태계가 마을 군집을 포함하고(작은 분수령들), / 다른 생태계들은 단 하나의 마을 차원으로 국한된다(마을 연못). / 각각의 사례에는 불가분성이라는 요소가 있다.

SHEAN.T 관계사(완전 vs. 불완전): which 뒤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한다. 완전 불완전을 알려면 동사의 자/타 여부를 알아야 하는데, extend는 자(연장되다), 타(~을 연장하다)로 둘 다 자주 쓰인다. 이때는 해석이 들어가야 한다. 만약 extend가 타동사로 쓰였을 경우, 시간이 생태계들을(others=other systems) 연장한다는 내용인데 말이 되지 않는다. 시간'이' 연장'되는' 것이다. 그래서 뒤에 '수백 년까지' 라는 전명구도 붙었다. which를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올 수 있게 of which 혹은 whose로 수정해야 한다.

Divide an ecosystem into parts by creating **barriers**, and the sum of the productivity of the parts will typically be found to be lower than the productivity of the whole, other things (25.3%)④ **being equal**.

어떤 생태계를 장벽을 만들어 부분들로 나누면, / 그 부분들의 생산성의 총합은 일반적으로 더 낮다는 것이 발견될 것이다 / 다른 것이 동일하다면, 전체의 생산성보다.

SHEAN.T 동사 vs. 준동사: 베스트 시나리오는 'other things being equal'이라는 관용 표현을 '다른 것이 동일하다면'이라고 알고 있어서, 맞네~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준동사 being에 밑줄이 가 있으므로 동사 are인가 준동사 being인가 확인하자. 접속사 and 뒤만 보자. 주어 the sum, 동사 will be found... 로 완전한 문장이 나왔는데, 접속사가 없이 또 동사를 써서 다른 문장과 연결될 수 없다. 준동사인 being이 맞다!

The **mobility** of biological populations is a reason. Safe passages, for example, enable **migratory species** ⑤ **to survive**.

* canopy: 덮개 ** basin: 유역

생물학적 개체군의 이동성이 한 가지 이유이다. / 예를 들어, 안전한 통행은 이동하는 생물 종들을 생존하게 한다.

SHEAN.T to V: 큰 의미는 없고 enable O to V(O가 to V 가능하게 하다)를 알고 있나 물어보는 어법. 문제 없다!

SHEAN.T'S COMMENT

어법 정답: ②번

최근 수능 어법은 크게 꼬지 않고 우선순위 어법을 기본만 잘 공부하면 맞힐 수 있게 주는 편이다. 이 문항도 동사 vs. 준동사라는 가장 중요한 어법 사항을 어렵지 않게 물어보고 정답으로 하고 있다. 수능날에도 동사 vs. 준동사, 그리고 관계사는 항상 critical하게 체크해야 한다.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3.9.29(오답률: 56.6%)

Recognizing **ethical** issues is the most important step in understanding business ethics. An ethical issue is an **identifiable** problem, situation, or opportunity that requires a person to choose from among **several actions** that may ① **be evaluated** as right or wrong, ethical or unethical.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 비즈니스 윤리를 이해하는 데. / 윤리적 문제는 식별 가능한 문제, 상황 또는 기회이다 / 여러 가지 행동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선택하기를 요구하는 / 옳거나 그르다고, 윤리적 또는 비윤리적이라고 평가 될 수 있는.

SHEAN.T 능동 vs. 수동: 의미적으로는 여러 행동들은 평가가 '되는' 것이고, 형식적으로는 밑줄 뒤 목적어가 없으니 수동태가 맞다.

② **Learning**(←Learn) how to choose from **alternatives** and make a decision **requires** not only good personal values, but also knowledge **competence** in the business **area of concern**.

대안 중에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 훌륭한 개인적 가치관뿐만 아니라 관계가 있는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지식 역량도 필요로 한다.

SHEAN.T 동사 vs. 준동사: 우선 들어야 하는 생각은, Learn 명령문이거나... 그럼 make가 병렬로 이어지는구나.. 근데 requires라는 완전 본동사 같은 애가 갑툭튀한다고?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다. 애가 이 문장의 동사여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고, 따라서 Learn이 Learning이라는 동명사가 되면서 주어가 되고, make는 how to choose의 choose와 병렬이거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SHEAN.T 이렇게 문두에서 명령문을 만드는 동사나 준동사나 하는 것은 평가원이 좋아한다고 키그램 혹은 마스터피스 어법 문제에서도 출제되면 꼭 말씀드리는 부분이다.

Employees also need to know when to **rely on** their organizations' policies and codes of ethics or ③ **have** discussions with co-workers or managers on **appropriate conduct**.

또한 직원들은 알아야 한다 / 언제 자신이 속한 조직의 정책과 윤리 강령에 의존할지를 / 혹은 언제 동료 또는 관리자와 적절한 행동에 대해 논의해야 할지를.

SHEAN.T 병렬: 사실 이 친구는 혹 이 밑줄 앞 동사에 '단수' 동사가 있으면 면밀히 체크할 가치가 있는데, need, know, rely on... 모든 동사에 's'가 붙어있지 않으므로 틀리기가 힘든 밑줄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쉬운 부분이었지만 선티 개인적으로는 잘 낸 어법 사항은 아니라 생각.

VOCABULARY

1. (un)ethical	1. (비)윤리적인	9. dilemma	9. 딜레마
2. identifiable	2. 식별 가능한	10. theft	10. 절도, 훔치기
3. evaluate	3. 평가하다	11. leave out	11. ~을 생략하다
4. alternative	4. 대안(의)	12. guidance	12. 지침
5. competence	5. 능력, 역량	13.	13.
6. area of concern	6. 관심 분야	14.	14.
7. appropriate	7. 적절한	15.	15.
8. conduct(n)	8. 행동	16.	16.

Ethical decision making is not always easy because there are always **gray areas** ④ **that** create **dilemmas**, no matter how decisions are made.

윤리적 의사결정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 왜냐하면 딜레마를 만드는 회색 영역이 늘 있기 때문이다 /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든.

SHEAN.T 관계대명사 that: gray areas를 수식해주고 있고 뒤에 주어가 없는 불안정한 문장. 문제 없다. that이 명사 수식으로 쓰일 때는 뒤가 완전할 수도(동격), 불안정한 수도(관대) 있기 때문에 틀리기 쉽지 않다.

For instance, should an employee report on a co-worker engaging in time **theft**? Should a salesperson **leave out** facts about a product's poor safety record in his presentation to a customer? Such questions require the decision maker to evaluate the ethics of his or her choice and **decide** (18.1%)⑤ **whether** to ask for **guidance**.

예를 들어, 직원은 시간 훔치기를 하는 동료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가? / 판매원은 어떤 제품의 안전 상태가 좋지 않다는 기록에 대한 사실을 생략해야 하는가 / 고객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 그러한 질문은 의사결정자에게 요구한다 / 자신이 선택한 윤리를 평가할 것을 / 그리고 지침을 요청할 것인지 말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을.

SHEAN.T whether to V 명사절: '의문사 + to V' 용법은 '의문사 + S + should V'가 축약된 형태가 된다. 뭐 이런 건 알면 좋지만.. 알 필요도 없고.. 그냥 'whether to V: ~할지 말지' 'how to V: 어떻게 ~할지'라고 '해석'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문제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NOTE

SHEAN.T'S COMMENT

어휘 정답: ③번

당시 동일연도 6, 9평을 통해 어휘 문제는 PS가 중요하다 많이 얘기했었고 '특수한 맥락이 아니면' benefit에는 S, cost에는 P를 때리라고 많이 강조했었다. 그 속에 유기 vs. 무기라는 AB도 들어있으니 역시 ABPS가 결합된 딱 깔끔한 수능 지문이라 할 수 있겠다. 올해도 올해 6, 9평 분석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A: 유기농법, P

B: 무기농법, S

VOCABULARY

- | | | | |
|----------------|-------------|--------------------|-------------|
| 1. (in)organic | 1. 유(무)기질 | 9. extensive | 9. 광범위한 |
| 2. input | 2. 투입(물) | 10. sensible | 10. 합리적인 |
| 3. biosphere | 3. 생물권 | 11. rotation | 11. 교대, 회전 |
| 4. adoption | 4. 채택 | 12. livestock | 12. 가축 |
| 5. yield | 5. 산출량 | 13. enterprise | 13. 기업, 경영 |
| 6. essential | 6. 필수적인 | 14. contribution | 14. 이바지, 공헌 |
| 7. moderate | 7. 보통의, 중간의 | 15. sustainability | 15. 지속 가능성 |
| 8. fertilizer | 8. 비료 | 16. rural | 16. 농촌의 |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2.수능.30(오답률: 61.1%)

It has been suggested that “organic” methods, defined as those in which only natural products can be used as **inputs**, would be **less damaging to the biosphere(P)**. Large-scale **adoption of “organic” farming methods(A)**, however, would ① **reduce yields and increase production costs(P)** for many major crops.

시사되어 왔다 / 천연 제품들만 투입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정의되는 '유기농' 방식은 / 생물권에 해를 덜 끼친다고. / 그러나 '유기농' 경작 방식의 대규모 채택은 / 많은 주요 작물의 산출량을 감소시키고 생산비를 증가시키게 된다.

SHEAN.T 첫 문장에서 that절의 주어 유기농 방법에 집중하고, 이를 정의하는 콤마콤마는 넘어간 뒤 서술부에서 less damaging을 not P로 잡아주자. 다음 문장에 역접 however가 있으니, P의 내용이 나오겠다. 생산량을 줄이고(reduce)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P가 되겠다.

Inorganic nitrogen supplies(B) are ② **essential** for maintaining **moderate** to high levels of productivity for many of the non-leguminous crop species, because **organic supplies(A)** of nitrogenous materials often are either **limited or more expensive(P)** than **inorganic nitrogen fertilizers(B)**.

무기질 질소 공급은 필수적이다 / 많은 비(非)콩과 작물 종의 생산성을 중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 그것은 질소성 물질의 유기적 공급이 흔히 제한적이거나 더 비싸기 때문이다 / 무기 질소 비료보다.

SHEAN.T 무기질 공급이 나온다. 이 순간 앞에 나온 유기농과의 대립성을 느끼며 유기농을 A, 무기농을 B로 잡아주자. A가 P였으니 B는 필수적인(essential) 것이라 빠르게 추론할 수 있겠다. because 뒤를 보면 더 명확해진다. than에 반응하면서 무기농을 B로 잡아주고 than 앞은 A의 P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자. A는 P가 있으니 B가 필수적이겠다.

In addition, there are ③ **constraints(P ← benefits, S)** to the **extensive use of either manure or legumes as “green manure” crops(A)**.

게다가, 제약(← 이점)이 있다 / 거름이나 콩과 식물의 광범위한 사용에는 / '친환경적인 거름' 작물로서의.

SHEAN.T 순접 In addition이 나온 후 benefits가 있다는 S가 나온다. 한데 '친환경 비료' 사용은 유기농법, 즉 A이다. A의 사용에는 P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S 단어인 benefits가 아닌 P의 단어로 바꿔주어야 한다. 원문은 constraints(제약)였다!

In many cases, weed control can be **very difficult or require much hand labor(P)** if **chemicals(B)** cannot be used, and (33.6%)④ **fewer people** are willing to do **this work(P)** as societies become wealthier.

많은 경우, 잡초 방제가 매우 어렵거나 많은 손일이 필요할 수 있다 / 화학 물질이 사용될 수 없으면, / 그리고 이 작업을 기꺼이 하려는 사람이 더 적을 것이다 / 사회가 부유해짐에 따라.

SHEAN.T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잡초 방제가 어렵다는 내용이다. 화학 물질은 무기농법, 즉 B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B를 사용하지 않으면 P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P가 있는 일을 하려는 사람은 더 적을 것이다(fewer).

Some methods used in “organic” farming(A), however, such as the **sensible use of crop rotations** and specific combinations of cropping and **livestock enterprises**, can make important ⑤ **contributions** to the **sustainability of rural ecosystems(S)**.

* nitrogen fertilizer: 질소 비료 ** manure: 거름
*** legume: 콩과(科) 식물

그러나 '유기농' 경작에서 사용되는 몇몇 방식들은 / 돌려짓기의 합리적인 사용과 경작과 가축 경영의 특정한 조합과 같은 / 농촌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이바지를 할 수 있다.

SHEAN.T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역접을 통해, 몇몇 A 방식은 중요한 기여(contributions)를 할 수 있는 S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자!

SHEAN.T'S COMMENT VOCABULARY

어휘 정답: ④번

AB, PS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어려우나 역시 평가원 지문다운 어려운 문항이다. 첫 문장 rather than에 반응하면서 AB의 개념을 확실히 잡고, 연결사들을 기준으로 구조적으로 글을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즉,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SA인가 SB인가 '생각'하고 지문을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P: 자동차 수요 증가 및 이에 따른 문제들

S - A: 수요 수용 < B: 수요 관리

However, SB도 결국 P!

- 1. urban transport 1. 도시 교통 9. resident 9. 거주자
2. accommodate 2. 수용하다, 부응하다 10. prosperous 10. 부유한
3. inevitably 3. 필연적으로 11. persuade 11. 설득하다
4. motorization 4. 자동차 보급 12. alternative 12. 대안적인
5. physical constraint 5. 물리적 제약 13. central element 13. 핵심 요소
6. densely inhabited 6. 인구 밀도가 높은 14. administrative rule 14. 행정 규정
7. corresponding 7. 상응하는 15. contribution 15. 기여
8. livability 8. 거주 적합성 16. reinforce 16. 강화하다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3.6.30(오답률: 58.8%)

In recent years urban transport professionals globally have largely acquiesced to the view that automobile demand in cities needs to be managed(B) rather than accommodated(A).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도시 교통 전문가들은 대체로 따랐다 / 도시의 자동차 수요에 부응하기보다는 관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SHEAN.T need to, rather than에 반응하면서 AB를 잡아주자. 자동차 수요 수용이(accommodate를 이걸로 보통 알고 있으므로 일단 이걸로 하자, 이걸 '부응'이라고 해석하는 수험생은 거의 없다) A, 관리가 B이다.

SHEAN.T 여기서 '수용 vs. 관리'라는 단어를 보고 얼마나 이해하는지가 바로 많은 지문 학습을 통한 국어/영어력 차이라고 볼 수 있겠다. 얼마나 그 기저에 있는 개념을 끌어내나 하는 것. 선티 및 언어력이 좋은 친구들에게는 자동차 수요를 '수용'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소극적, 수동적' 조치처럼 느껴진다. 자동적으로 B에는 '적극적, 능동적' 개념이 있겠다. 아 자동차 수요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하자는 S의 얘기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Rising incomes inevitably lead to increases in motorization. Even without the imperative of climate change(P), the physical constraints of densely inhabited cities(P) and the corresponding demands of accessibility, mobility, safety, air pollution, and urban livability all limit(P) the option of expanding road networks purely to accommodate this rising demand(SA).

소득 증가는 필연적으로 자동차 보급의 증가로 이어진다. / 기후 변화로 인한 불가피성이 없다 하더라도, /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의 물리적 제약과 / 그에 상응하는 접근성, 이동성, 안전, 대기 오염, 그리고 도시 거주 적합성에 대한 요구 모두가 / 도로망을 확장하는 선택권을 제한한다 / 단지 이러한 증가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SHEAN.T 소득 증가를 통한 자동차 증가 문장에서는 로직을 느끼기 쉽지 않다. 1번 문장에서 '기후변화', '물리적 제약'과 같은 P 단어에 반응하면서 해당 문장을 P로 잡아주자. 즉 해당 문장은 기후 변화와 같은 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이를 고려 안 해도), 밀도 높은 도시의 물리적 제약과 그 수요에 따른 P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사 limit은 별일 없으면 P로 맞다. limit의 목적어에 'accommodate'에 반응하면서, 수요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의 S, 즉 SA는 제한된다는 P를 정확히 확인하자.

As a result, as cities develop and their residents become more prosperous, persuading people to choose not to use cars(PS) becomes an increasingly key focus of city managers and planners. Improving the quality of alternative options(SB), such as walking, cycling, and public transport, is a central element of this strategy(S).

결과적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도시의 거주자들이 더 부유해짐에 따라, /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 도시 관리자와 계획 설계자들의 핵심 중점 사항이 된다. /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과 같은 대안적인 선택 사항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 이 전략의 핵심 요소이다.

SHEAN.T 따라서 사람들에게 차를 쓰지 말자 설득하는(persuading) S가 핵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3번의 alternative!!를 대안의 해결책, 즉 SB로 인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다. SA(수요 수용)는 제한되니 SB(적극적 관리)가 필요하겠다.

However, the most direct approach to managing(B,S ← accommodating, A) automobile demand is making motorized travel more expensive or restricting it with administrative rules(S).

하지만 자동차 수요를 관리하는(← (에) 부응하는) 가장 직접적인 접근 방법은 / 자동차 여행을 더 비싸게 만들거나 행정 규정으로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SHEAN.T However!가 나오니 민감하게 반응하자. 앞의 S보다 더 직접적인 S가 나온다. 이 순간 앞의 S는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S였다고 인식할 수 있다. 근데 밑줄의 S가 이상하다. accommodating은 SA인데?? 애는 이미 1번 문장에서 끝이 났고, 이 4번 앞 문장은 SB인데?? 따라서 managing이 되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 얼마나 첫 문장에서 AB를 '확실히' 잡고 기억하는지,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둘 중 무엇인지 민감하게 체크하며 읽기를 요구하는 고난도 문항 :)

The contribution of motorized travel to climate change(P) (22.8%) reinforces this imperative(S).

* acquiesce: 따르다 ** imperative: 불가피한 것 *** constraint: 압박

자동차 여행이 기후 변화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이런 불가피성을 강화한다.

SHEAN.T 마지막 문장. 기후변화에 대한 기여라는 P가 4번 문장 S의 불가피성(당위성)을 강화한다. 기후변화에까지 문제를 일으키므로 자동차 운전을 제한하자는 S가 더 당위성을 얻는 것이다.

SHEAN.T'S COMMENT **VOCABULARY**

어휘 정답: ⑤번

적당한 난이도의, 익숙한 인터넷 소재의, ABPS가 예쁘게 결합되어 있는 지문이다. 기술 학습이 충분한 친구라면 어렵지 않게 PS, AB를 전개하며 선지를 체크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고를 수 있겠다.

A,P: 인터넷에 있는 자격 없는 사람들의 정보
B,S: 많은 연구를 한 과학자들의 신뢰 있는 정보

1. ancestor	1. 선조	9. structural	9. 구조적인
2. downside	2. 불리한 면	10. misinformation	10. 잘못된 정보
3. virtual	3. 가상의, 사실상의	11. differentiate	11. 구별하다
4. infinite	4. 무한한	12. summarily	12. 즉각적으로
5. qualification	5. 자격, 단서	13. credibility	13. 신뢰성
6. regulation	6. 규정, 규제	14.	14.
7. prevent	7. 방지하다	15.	15.
8. physician	8. 의사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3.9.30(오답률: 58.8%)

Although the wonders of modern technology have provided people with opportunities(S) beyond the wildest dreams of our ancestors, the good(S), as usual, is weakened by a downside(P).

현대 기술의 경이로움이 사람들에게 제공했지만 / 우리 조상들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만큼의 기회를, / 늘 그렇듯이 좋은 점은 부정적인 면에 의해 약화된다.

SHEAN.T Although가 있으니 반응하시고, 콤마 앞뒤 대립성을 잡아주자. 부사절 부분이 기므로 문장 뒷부분 is를 보며 the good이 주어구나~ 하면서 the good 앞 콤마 앞뒤 로직 대립을 잡으려 해야 한다.

SHEAN.T 콤마 앞은 현대 기술의 놀라움이 제공한 기회이니 S로, 콤마 뒤는 이 좋은 점이 단점, 불리한 점(downside)에 의해 약화된다고 하니 어렵지 않게 P로 잡아주자. 이 지문은 기본적으로 P 뉘앙스를 강하게 느끼며 읽으려 해야 한다.

One of those downsides(P) is that anyone who so chooses can pick up the virtual megaphone that is the Internet(A) and put in their two cents on any of an infinite number of topics(P), regardless of their ① qualifications(B,S).

그 부정적인 면 중 하나는 /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 누구나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확성기를 집어 들고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무한히 많은 주제 중 어느 것에 대해서라도 / 자신의 자격에 상관없이.

SHEAN.T P를 이어가고 있다. P를 이어가며 인터넷을 말하고 있으니 A, P 쪽으로 잡아주어야 하고, 이때 또 꼭 잡아주어야 하는 시그널이 regardless of! 앞뒤 개념 대립성이 생긴다. 어떤 주제에 대한 '자격(qualification)'은 기본적으로 B,S 쪽 단어가 되겠다. 이와 상관없이 인터넷은 수많은 정보를 (자격 없이) 얘기하고 있다. regardless of 앞은 A,P 뒤는 B,S가 맞다.

After all, on the Internet(A), there are no regulations(S) ② preventing(S) a kindergarten teacher from offering medical advice(P) or a physician from suggesting ways to safely make structural changes to your home(P).

결국, 인터넷에는 규정이 없다 / 유치원 교사가 의학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막는 / 혹은 의사가 제안하는 것을 막는 / 여러분의 집에 안전하게 구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을.

SHEAN.T 인터넷의 P가 계속 이어짐을 인지하고 보자. 기본적으로 이 맥락에서 '규제(regulation)'는 이미 S 단어로 느껴져야 한다. 인터넷은 이 규제(S)가 없다는 것이고, 별일 없다면 preventing은 from 뒤의 P를 막는 S단어로 쓰인 것이 되겠다. 이 부분 이해가 쉽지 않다. 앞서 등장한 '자격'이라는 키워드를 끌고 와서, 유치원 쌤이 의학적 조언을 하고, 내과 의사가 집 구조 변화를 얘기하는 것을 '자격 없는 조언'이라는 P라고 인지해야 한다.

As a result, misinformation(A,P) gets disseminated as information(B,S), and it is not always easy to ③ differentiate the two(A and B).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보가 정보로 퍼지게 된다, / 그리고 그 둘을 구별하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다.

SHEAN.T P에 대한 결과이니 P이다. misinformation은 단어 자체만 봐도 바로 P로 잡아주어야 하고, 뒤에 있는 information과 대립되니 A로 인지할 수도 있겠다. 이 AB 대립은 3번 선지를 보면서 더욱 느낄 수 있겠다. 이 A와 B를 구분하기(differentiate) 어려우니 P가 되겠다.

This(P) can be particularly frustrating(P) for scientists(B), who spend their lives learning how to understand the intricacies of the world around them(S), only to have their work summarily (22.5%)④ challenged by people(A) whose experience with the topic can be measured in minutes.

이것은 과학자에게 특히 좌절감을 줄 수 있다, / 그런데 그들은 자기 주변 세상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느라 일생을 보낸다, / 하지만 결국 그들의 연구는 즉석으로 도전을 받게 된다 / 그 주제에 대한 경험이 분 단위로 측정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SHEAN.T 앞 문장의 P를 이어오면서, 과학자라는 대상을 등장시키는 한편, 4번 선지 challenge에 제발 반응하면서 아 '사람들 vs. 과학자'의 AB가 생기는구나~ 생각해야 한다. challenge 동사로 쓰이면 그냥 '반대하다'로 해석하라고 내가 맨날 하잖아 ㅠ. 이 사람들의 경험은 '분'으로 측정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험이 적은, 입만 산!! 그런 비전문가들을 말하겠다.

This frustration(P) is then ⑤ amplified(P ← S diminished) by the fact that, to the general public, both the scientist(B) and the challenger(A) are awarded equal credibility(P).

* put in one's two cents: 의견을 말하다 ** disseminate: 퍼뜨리다 *** intricacy: 복잡성

그러면 이 좌절감은 증폭된다(← 줄어든다) / 사실에 의해 / 일반 대중들의 눈에는 과학자와 도전자 둘 다 동등한 신뢰성을 부여받는다.

SHEAN.T 기술 학습을 많이 한 친구라면 어렵지 않은 출제 포인트이다. This frustration을 P로 잡아주고, 이 P가 감소하는(diminished) 것은 S가 된다. 이 P가 S되는지는 by 이하가 결정하겠다. by 뒤를 보니 대중에게는 A와 B가 '같은 신뢰도'로 받아들여진다고 한다. 과학자의 의견과 비전문가의 의견이 똑같이 받아들여지면, 우리 상식적으로... P이다. 증폭된다는 amplified로 수정하자.

NOTE

SHEAN.T'S COMMENT | **VOCABULARY**

요약 정답: ①번.

요약문 및 지문의 구조가 명확한 AB 지문이다. 요약문에서 A의 내용과 B의 내용을 기억하고 지문으로 들어가 열려 대응되는 단어를 발해하는 효율적 풀이가 중요하다.

과학적 설명

A: 모든 현상을 다루는 소수의 원리(일반화)

B: 개별 현상의 규칙성에서 끌어낸 원리(일반화)

1. alternative	1. 대안(적인)	9. phenomenon	9. 현상(pl. phenomena)
2. philosophical	2. 철학적인	10. organize	10. 조직하다
3. consist in	3. ~에 있다	11. systematize	11. 체계화하다
4. unification	4. 통합	12. causal	12. 인과적인
5. generalization	5. 일반화	13. mechanical	13. 기계론적인
6. construct	6. 구성하다	14. consist of	14. ~로 구성되다
7. framework	7. 틀	15. uncover	15. 밝히다
8. observable	8. 관찰할 수 있는	16. regularity	16. 규칙성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2.수능.40(오답률: 43.4%)

Scientific explanations can be made either by seeking the (A) number of principles covering all observations(A) or by finding general (B) drawn from individual phenomena(B).

과학적 설명은 이루어질 수 있다 / 모든 관찰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원리를 찾거나 / 개별 현상으로부터 도출된 일반적인 패턴을 발견함으로써.

SHEAN.T 요약문을 먼저 보자. either A or B 표현부터 보이는 게 중요! 과학적 설명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나오고 있다. 실제 요약 (A)에는 로직 A, 요약 (B)에는 로직 B가 들어가면 되겠다.

SHEAN.T 사실 과학 이론 논증의 대표적인 두 이론, 즉 귀납법(induction)과 연역법(deduction)에 익숙한 친구라면, '모든 관찰을 다루는 원리를 찾는 것'은 연역법, '개별 현상에서 일반적인 무언가를 찾는 것'은 귀납법 쪽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고, 이미 대략 무슨 얘기인지 알고 지문을 들어가니 더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역시 국어, 영어 과목은 많은 양의 독해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도 너무나 중요하다.

Philip Kitcher and Wesley Salmon have suggested that there are two possible alternatives among philosophical theories of explanation.

Philip Kitcher와 Wesley Salmon은 제안했다 / 설명에 대한 철학적 이론 중 두 가지 가능한 대안이 있다고.

SHEAN.T 너무나 대놓고 이론 설명에 두 가지 대안이 있다고 하니, 지문의 전개도 A 먼저 설명하고 B를 설명하지 않을까 예상도 해보자.

One(A) is the view that scientific explanation consists in the unification of broad bodies of phenomena(A) under a minimal number of generalizations(A). According to this view(A), the (or perhaps, a) goal of science is to construct an economical framework of laws or generalizations(A) that are capable of subsuming all observable phenomena. Scientific explanations organize and systematize our knowledge of the empirical world(A); the more economical the systematization(A), the deeper our understanding of what is explained.

하나의 과학적 설명이 광범위하게 많은 현상들을 '통합'하는 데 있다는 견해이다 / 최소한으로 적은 수의 일반화 아래에. / 이 견해에 따르면 과학의 목표(혹은 어쩌면 한 가지 목표)는 / 법칙이나 일반화의 경제적인 틀을 구성하는 것이다 / 모든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을 포섭할 수 있는. / 과학적 설명은 경험적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조직하고 체계화한다 / 체계화가 더 경제적이수록, 설명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더 깊어진다.

SHEAN.T 'One!'이 나오니 바로 A로 잡아주고 A의 개념 키워드를 잡아보자. A는 최소한의 수의 일반화로 현상을 통합하는 것이다. 요약문에 the ... number of principles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요약 (A)에는 minimal의 유의어인 least 혹은 limited 쪽으로 선지 후보를 줄이자. 뒤에서는 generalization이나 systematization과 같은 A의 개념을 딱! 잡아주는 단어들을 A로 잡는 정도로만 읽으면 되겠다.

The other view(B) is the causal/mechanical approach(B). According to it, a scientific explanation of a phenomenon consists of uncovering the mechanisms that produced the phenomenon of interest(B). This view(B) sees the explanation of individual events(B) as primary, with the explanation of generalizations flowing from them. That is, the explanation of scientific generalizations comes from the causal mechanisms(B) that produce the regularities(B).

* subsume: 포섭(포함)하다 ** empirical: 경험적인
다른 관점은 '인과 관계적/기계론적' 접근이다. / 그것에 따르면, 어떤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은 밝혀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 관심있는 그 현상을 만들어 낸 메커니즘을. / 이 관점은 개별 사건들에 대한 설명을 일차적으로 보고, / 일반화에 대한 설명이 그것들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본다. / 즉, 과학적 일반화에 대한 설명은 비롯된다 / 규칙성을 만들어 내는 인과적 메커니즘에서.

SHEAN.T The other view!!라고 하니 바로 반응하며 B에 대한 설명을 하는구나 인지하자. B는 '인과적/기계적' 접근방식이다. 이 방식은 요약문에 나와있듯 '개별(individual)' 사건/현상에서 일반적인 것을 끌어낸다. 근데 이 상태에서는 아직 (B) 선지에서 연결되는 것이 없다. 마지막 문장까지 B의 키워드를 잡아보자. 과학적 일반화의 설명은 규칙성(regularities)을 만드는 인과 메커니즘에서 나온다. 드디어 이 regularities를 선지의 patterns와 연결할 수 있겠다!

(A)	(B)	(A)	(B)
① least ... patterns	최소한의 패턴	② fixed ... features (15.3%)	고정된 특징
③ limited ... functions	제한된 기능	④ fixed ... rules	고정된 규칙
⑤ least ... assumptions	최소한의 가정		

SHEAN.T'S COMMENT **VOCABULARY**

요약 정답: ①번

지문 자체도 난이도가 좀 있지만, 무엇보다 요약 (A) 선지에서 necessary와 desirable을 구분하게 하는 것을 보고 참 평가원이 갈수록 학생들이 더 디테일하게 사고하기를 원하는구나.. 느낀 문항이다. 이 둘을 구분하는 '객관 vs. 주관' 느낌을 해설지에 상세하게 써놓았으니 꼭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객관 주관의 AB는 평소 교재/강의에서 선지가 목터져라 강조함을 꾸준히 따라온 친구들은 알 것이다.

A: 신체 움직임

B: 기술 이동성

→ P: 운동 부족 및 사회 불평등

1. mobility	1. 이동성	9. artefact	9. 인공물
2. transit	2. 수송, 통행	10. load up with	10. ~을 가득 싣다
3. discipline	3. 학과	11. (im)mobile	11. 움직일 수 있는(없는)
4. faculty	4. 학부	12. terminal	12. 불치의
5. the humanities	5. 인문학	13. disproportion	13. 불균형
6. acceleration	6. 가속화	14. exercise	14. 발휘(행사)하다
7. virtual	7. 가상의	15. exclusion	15. 제외, 배제
8. transport	8. 운송하다	16. desirable	16. 바람직한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3.6.40(오답률: 55.0%)

In a technology and information society, human beings, whose bodily movement(A) is less (A), appear to have gained increased mobility and power(B), and such a mobility-related human condition(B) raises the issue of social (B).

기술과 정보 사회에서, 신체의 움직임이 덜 필요한 인간은 / 이동성과 권력의 증가를 이룬 것처럼 보이고, / 이동성과 관련된 그러한 인간의 상태는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SHEAN.T 요약문을 통해 최대한 로직을 잡아보려 하자. 요약 (A)는 less에 걸리는 부분이니 기본적으로 not A의 로직이다. 선지를 보니 necessary와 desirable 둘 중에 하나일테니(높은 확률로 ^^), 요약 (A)에는 둘 중 어느 것이 들어가도 신체 움직임을 부정하는 내용이 되겠다. 따라서 신체 움직임을 A로, 그리고 이와 반대로 증가한 이동성, 권력은 B로 잡는 게 좋겠다. 요약 (B)에는 이 B가 일으키는 사회의 어떤 '문제(issue)'를 말하니 이미 P라고 생각도 하면 베스트.

SHEAN.T 요약 (A)의 necessary와 desirable 구분이 쉽지가 않은데, 지문을 읽으면 더 와닿겠지만, 이런 개념을 구분할 때도 AB 기저 개념을 활용해야 한다. 신체 움직임이 '덜 필수다'라는 것과 '덜 바람직하다'의 차이는, 필자의 '주관'이 얼마나 개입되어 있나 하는 것이다. 즉, 뭔가가 덜 필요하다는 것은 덜 바람직하다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팩트, 객관적인 진술이 된다(아니 당연히 여기도 필자의 주관이 조금은 들어가 있지.. '상대적으로'). 반면 뭔가가 덜 바람직하다는 것은 덜 필요하다는 것에 비해 P의 느낌이 물론 나고, 더 주관적인 진술이 된다.

Mobilities in transit offer a broad field to be explored by different disciplines in all faculties, in addition to the humanities.

통행의 이동성은 탐구할 수 있는 광범위한 분야를 제공한다 / 인문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부의 여러 다른 학과에서.

SHEAN.T 통행 이동성의 다양한 탐구 분야를 말하고 있다. 다양하다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뒤에 AB 개념으로 이어질 때가 많으니 체크하는 정도로 읽자.

In spite of increasing acceleration(A), for example in travelling through geographical or virtual space, our body becomes more and more a passive non-moving container(B,P), which is transported by artefacts or loaded up with inner feelings of being mobile in the so-called information society.

속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예를 들어, 지리적 공간이나 가상의 공간을 이동하는 데에서 / 우리의 몸은 점점 수동적이고 움직이지 않는 컨테이너가 되는데, / 그것은 인공물 에 의해 운송되거나 / 이른바 정보 사회에서 이동한다는 내적 느낌으로 가득 채워진다.

SHEAN.T In spite of 콤마 앞뒤 대립성에 주목하자. 가속화가 되었지만, 신체는 '수동의' '움직이지 않는' 컨테이너가 되었다. P이자 B로 잡아주면 되겠다.

SHEAN.T 요약문의 AB와 반대로 잡히는 느낌이나 두 개념의 '대립'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실전에서 유연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

Technical mobilities turn human beings into some kind of terminal creatures(B,P), who spend most of their time at rest and who need to participate in sports(S) in order to balance their daily disproportion of motion and rest(P).

기술적 이동성은 인간을 일종의 불치병에 걸린(가련한) 존재로 바꾸는데, /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휴식을 취하며 보내고 / 스포츠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 그들의 일상적인 운동과 휴식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SHEAN.T 기술 이동성에 의해 인간이 '말기의(terminal)' 생명체로 바뀌어 움직임과 휴식의 불균형(P)으로 인해 운동을 해야 하는(S) 상태가 된다. 여기서 terminal이라는 단어 뉘앙스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이 말기가 정말 암 말기.. 라는 맥락에서의 말기라, P의 뉘앙스를 더 잘 느낄 수 있겠다.

SHEAN.T 여기서 이제 요약 (A)를 확정할 수 있겠다. desirable이 될 경우 필자가 신체 움직임을 '덜 바람직하다', 즉 P로 까는 뉘앙스가 되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다. 필자는 신체 움직임(운동)을 S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기술에 의해 움직임이 필수가 아니게 됐다는 팩트만 서술하는 necessary로 가야 한다.

Have we come closer to Aristotle's image of God as the immobile mover, when elites(B) exercise their power to move money, things and people, while they themselves do not need to move at all? Others(A), at the bottom of this power, are victims of mobility-structured social exclusion(P). They(A) cannot decide how and where to move(B), but are just moved around or locked out or even locked in(A,P) without either the right to move or the right to stay(B).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움직이는 존재로서의 신의 이미지에 더 가까워졌는가 / 엘리트가 돈, 사물,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행사하면서 / 자신은 전혀 움직임 필요가 없을 때? / 이 권력의 밑바닥에 있는 또 어떤 사람들은 / 이동성으로 구 조화된 사회적 배제의 희생자들이다. / 그들은 어떻게 어디로 이동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지만, / 그저 이리저리 옮겨지거나 내쳐지거나, / 아니면 심지어 갇히기도 한다 / 이동할 권리도 머무를 권리도 없이.

SHEAN.T 아리스토텔레스의 신.. 이런 부분은 실전에서 이해하는 부분은 아니다. 우리는 'Others'에 반응하면서 앞뒤로 AB가 생기는구나 이해하면서 엘리트와 하층민들을 AB로 잡아줄 뿐이다. 둘 중 어느 대상이 A, B인지 크게 중요하진 않다. 이 하층민들이 사회적 배제, 이동권이 없다는 P만 잡아주면서, 1번으로 답을 확정하면 되겠다.

(A)	(B)	(A)	(B)
① necessary.....	inequality	② necessary	growth (21.0%)
필요한	불평등	필요한	성장
③ limited	consciousness	④ desirable	service
제한된	의식	바람직한	봉사
⑤ desirable	divide		
바람직한	분열		

SHEAN.T'S COMMENT | **VOCABULARY**

요약 정답: ①번

어렵지 않은 '작 vs. 큰', '개인 vs. 집단'의 AB 지문이다. 지문 논리 독해는 정말 빠르고 정확해야 하고, 요약 (B)에서 identify와 coordinate만 구분하여 답을 내야 한다.

디자인 프로젝트

A: 작은, 개인

B: 큰, 집단

1. literature	1. 문학, 문헌	9. implement	9. 시행하다
2. countless	2. 수없이 많은	10. overlook	10. 간과하다
3. reference	3. 언급, 참조	11. emphasis	11. 강조
4. absolute	4. 완전한, 완벽한	12. problematic	12. 문제가 있는
5. relatively	5. 비교적	13. distinction	13. 차이
6. technological	6. 기술적인	14. latter	14. 후자의
7. exercise	7. 발휘하다	15. relevant	15. 관련 있는, 적절한
8. substantial	8. 상당한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3.9.40(오답률: 45.1%)

Depending on the (A) of a project, the capacity of designers to (B) team-based working environments can be just as important as their personal qualities.

프로젝트의 크기에 따라 / 팀 기반 작업 환경을 조정하는 디자이너의 능력이 / 그들의 개인적 특성 못지않게 똑같이 중요할 수 있다.

SHEAN.T 프로젝트의 (A)에 따라 (B)에 대한 디자이너의 능력이 중요하다. (A)는 프로젝트의 조건이 되었고, (B)는 조건에 따른 중요한 디자이너의 능력, 즉 B가 되겠다.

A striving to demonstrate individual personality(A, however 보고 확정) through designs should not be surprising. Most designers are educated to work as individuals(A, however 보고 확정), and design literature contains countless references to 'the designer'. Personal flair(A, however 보고 확정) is without doubt an absolute necessity in some product categories, particularly relatively small objects(A), with a low degree of technological complexity, such as furniture, lighting, small appliances, and housewares.

디자인을 통해 개인의 개성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은 / 놀라운 것이 아닐 것이다. / 대부분의 디자이너는 개인으로 일하도록 교육받고, / 디자인 문헌은 '그 디자이너'에 대한 무수히 많은 언급을 담고 있다. / 개인적인 재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 일부 상품 범주에서는, / 상대적으로 작은 물건들에서 특히 그렇다 / 낮은 단계의 기술적 복잡성을 가진 / 가구, 조명, 소형 가전, 그리고 가정용품들과 같은.

SHEAN.T individual... individuals... personal... 이라고 계속 해주니, 기술 학습을 좀 한 친구라면, 이 지문은 디자인에 대한 개인 vs. 집단의 AB인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다.

In larger-scale projects(B), however, even where a strong personality(A) exercises powerful influence, the fact that substantial numbers of designers are employed(B) in implementing a concept can easily be overlooked.

그러나,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 심지어 강한 개성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곳에서도, / 상당한 수의 디자이너가 계획을 실행하는 데 참여한다는 사실이 / 쉽게 간과될 수 있다.

SHEAN.T however!!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however 후 'larger'이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앞 문장에 small이 있는 걸 확인하면서 요약 (A)는 size로 확정하자. 이 지문은 '작은 프로젝트, 개인 vs. 큰 프로젝트, 집단'의 AB가 되겠다. 근데 B 프로젝트에서도 A(개인)의 영향력이 커서 B(집단)가 무시당하는 P 상황이 나와있다.

The emphasis on individuality(A) is therefore problematic(P) — rather than actually designing(S), many successful designer 'personalities'(A) function more as creative managers.

그러므로 개성에 대한 강조는 문제가 있다, / 실제로 디자인을 하기보다는 / 많은 성공한 디자이너 '유명 인사들'이 창의적인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더 많이 한다.

SHEAN.T B 프로젝트에서 A를 강조하는 것이 P라고 대차게 까는 문장. 요약 (B)는 B, S 쪽이니 다음 문장까지 확인하자.

A distinction needs to be made between designers working truly alone(A) and those working in a group(B). In the latter case(B), management organization and processes(B) can be equally as relevant as designers' creativity.

* strive: 애쓰다 ** flair: 재능

구분이 필요하다 / 진정으로 혼자 일하는 디자이너와 집단을 이루어 일하는 디자이너는. / 후자의 경우, / 관리 조직과 과정들이 똑같이 의미 있을 수 있다 / 디자이너들의 창의성 못지않게.

SHEAN.T S로 AB를 구분하자는 내용이 나오는 걸 확인하며 독해를 마무리하자. 요약 (B)의 목적이 'team-based working environments'는 로직 B가 되었고, 이 B를 '조직화, 조율하는(coordinate)' 능력이 B가 되겠다. 이 B 환경을 '확인(identify)'만 하는 것은 S로 부족하다.

(A)	(B)	(A)	(B)
① size	coordinate	② cost.....	systematize
크기	조정하는	비용	체계화하는
③ size	identify(25.0%)	④ cost.....	innovate
크기	확인하는	비용	혁신하는
⑤ goal.....	investigate		
목표	조사하는		

NOTE

SHEAN.T'S COMMENT **VOCABULARY**

제목 정답: ②번 | 어휘 정답: ③번

어렵지 않은 장문 지문이다. B의 키워드를 '분류'로 확실히 잡고 not B는 P를 핵심으로 지문 독해를 하면 되겠다. 다만 어휘 선지에서는 해당 개념을 AB 대립적 사고로 푸는 것이 중요하고, 제목에서는 B 키워드를 정확히 넣은 선지를 고르되 매력적 오답의 잘못된 로직을 잡아 소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 A: 새로 만든 분류 체계
- B: 언어에 따른 분류 체계

1. classify	1. 분류하다	9. master	9. 숙달하다
2. arrange	2. 배열하다	10. get the hang of	10. ~을 이해하다
3. aisle	3. 통로	11. unorganized	11. 정돈되지 않은
4. time-consuming	4. 시간이 많이 걸리는	12. infant	12. 유아
5. ready-made	5. 기성의	13. unfamiliar	13. 익숙하지 않은
6. embody	6. 포함하다, 구현하다	14. principle	14. 원칙, 원리
7. distinguish	7. 구별하다	15. structure	15. 구조
8. abstract	8. 추상적인	16. linguistic	16. 언어적인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2.수능.41~42(오답률: 49.0%, 52.8%)

Classifying things together into groups(B) is something we do all the time, and it **isn't hard(P)** to see why.

사물들을 묶어서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은 /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이며, /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SHEAN.T 사물들을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고 그 이유를 알기 어렵지 않다고 한다. '사물 분류'를 B로 잡아볼 수 있겠다.

Imagine trying to shop in a supermarket where the food was **arranged in random order(P)** on the shelves: tomato soup next to the white bread in one aisle, chicken soup in the back next to the 60-watt light bulbs, one brand of cream cheese in front and another in aisle 8 near the cookies. The task of finding what you want would be (a) **time-consuming(P)** and **extremely difficult(P)**, if not impossible. In the case of a supermarket, someone **had to (b) design** the system of classification(S).

슈퍼마켓에서 쇼핑하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라 / 음식이 진열대에 마구잡이로 배열된. / 한 통로에서는 흰 빵 옆에 토마토 수프가 있고, / 치킨 수프는 뒤쪽에 있는 60와트 백열전구 옆에 있고, / 한 크림치즈 브랜드는 앞쪽에, 또 다른 하나는 쿠키 근처의 8번 통로에 있다. /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찾는 일은 /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매우 어려울 것이다. / 슈퍼마켓의 경우, 누군가는 분류 체계를 설계해야 했다.

SHEAN.T Imagine!!하면서 예시가 시작된다. 아무 생각없이 읽지 말고, 음식이 랜덤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하니 P구나, 라고 인지하자. 콜론(:) 뒤는 '어지럽혀져 있구나~' 정도 하고 넘어가야 한다. 어휘 (a)에서 원하는 걸 찾는 것이 시간이 걸린다(time-consuming)라고 하니 어렵지 않게 P로 잡아볼 수 있겠다. 이 P 상황에서 누군가 설계해야(design) 하는 것은 S가 되겠다. 아 '분류' 개념이 B이자 S구나! 라고 확정하자.

But there is also a **ready-made** system of classification(B) **embodied in our language(B)**. The word "dog," for example, groups together a certain class of animals and **distinguishes** them from other animals. Such a grouping(B) may seem too (c) **obvious** (← **abstract**) to be called a classification, **but this is only because you have already mastered** the word.

하지만 또한 우리 언어에 포함되어 있는 기성의 분류 체계도 있다. / 예를 들어, '개'라는 단어는 특정 부류의 동물들을 함께 분류하여 / 그것들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한다. / 그러한 분류가 너무 분명해(←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 / 분류라고 하기에는, / 그러나 이것은 단지 여러분이 이미 그 단어를 숙달했기 때문이다.

SHEAN.T But also!가 나오니 반응하고 로직을 잡아보자. But 앞의 분류 체계와 달리 우리의 언어에는 이미 만들어진(ready-made) 분류 체계도 있다고 한다. not only A but also B의 논리이니 B로 잡아보자. 이 순간 But 앞에 있던 (새로 만든) 분류 체계는 A 쪽이 되겠다.

SHEAN.T '개'를 분류하는 예시를 가볍게 읽고 어휘 (c)를 보자. 이 분류가 너무 '추상적(abstract)'으로 보일지도 모른다고 한다. 이때 꼭 대립적으로 사고할 것. 추상의 반대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 상식적으로도 개를 분류하는 것은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다. 따라서 이미 어휘 (c)를 답으로 고를 수 있어야 한다.

As a child learning to **speak(B)**, you **had to** work hard to (d) **learn the system of classification** your parents were trying to **teach you(B)**. **Before you got the hang of it(B)**, you probably **made mistakes(P)**, like calling the cat a dog.

말하기를 배우는 아이로서, 여러분은 열심히 노력해야 했다 / 부모님이 가르쳐주려 애 썼던 분류 체계를 익히기 위해. /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 아마 실수를 했을 것이다 / 고양이를 개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SHEAN.T 앞 내용을 통해 '언어'에 기반한 '분류 체계'가 B임을 알 수 있다. 말하기를 배우는 아이 입장에서는 분류 시스템을 배우야(로직을 따지면 S) 한다. 이 B를 배우기 전에는 실수(P)를 저지른다.

If you **hadn't learned to speak(B)**, the whole world would seem like the (e) **unorganized(P)** supermarket; you would be in the position of an **infant**, for whom every object is new and **unfamiliar(P)**. In learning the **principles** of classification(B), **therefore**, we'll be learning about the **structure** that lies at the core of our language.

만약 여러분이 말하기를 배우지 않았다면, / 온 세상이 정돈되지 않은 슈퍼마켓처럼 보일 것이다 / 여러분은 유아의 처지에 있을 것이다 / 모든 물건이 새롭고 낯선. / 그러므로 분류의 원리를 배울 때, / 우리는 언어의 핵심에 있는 구조에 대해 배우고 있는 것이다.

SHEAN.T 말을 배우지 않으면(not B), P가 생기겠다. 정돈되지 않은(unorganized)이라는 P의 단어를 확인하며 독해를 마무리 하자.

1. 앞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Similarities of Strategies in Sales and Language Learning(off) (18.1%)
영업과 어학학습 전략의 유사성
 - ② Classification(B): An Inherent Characteristic of Language(B)
분류: 언어의 본질적 특성
 - ③ Exploring Linguistic Issues(P, off) Through Categorization(B)
범주화를 통한 언어학적 문제 탐색
- * 3번이 매력 오답이다. 왜? '분류, 언어'라는 지문의 B 키워드를 그대로 넣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 3번이 남는 게 일반적일테고, 이 때 둘의 차이는 뭐지? 생각하셔야 하고, 아 3번은 issues라는 'P' 단어가 있네, 이 지문은 언어의 P를 말하나? 아니네 2번으로 가자 - 까지 사고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
- ④ Is a Ready-Made Classification System Truly Better? (세부 off)
기성의 분류 시스템이 정말 더 나은가?
- ⑤ Dilemmas(P, 반) of Using Classification in Language Education
언어교육에서 분류 활용의 딜레마

2. 밑줄 친 (a)~(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22.2%)

SHEAN.T'S COMMENT **VOCABULARY**

제목 정답: ①번 | 어휘 정답: ③번

무난한, 그리고 너무나 classic한 AB의 평가원 장문 지문이다. 크게 크게 거시적으로 읽으면서 P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집단)의 반응이 S일 수도 있고 P일 수도 있다는 논리를 잡으면 되겠다. 다른 사람들(집단)이 B이니, 자동적으로 자신(개인)은 A가 되겠다.

P: 위급 상황

S: 다른 사람들의 반응

But, P: 잘못된 정보 가능성

1. onlooker	1. 구경꾼	9. blind conformity	9. 맹목적인 순응
2. emergency	2. 비상 상황	10. derive	10. 끌어내다, 얻다
3. indicate	3. 나타내다	11. occasionally	11. 가끔
4. leak	4. 유출	12. accurate	12. 정확한
5. quarrel	5. 다툼	13. embarrassing	13. 당황스러운
6. interpret	6. 해석하다	14. acute	14. 극심한
7. indifferent	7. 무관심한	15. imply	15. 암시[시사]하다
8. alert	8. 경계하는	16. passivity	16. 수동성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3.6.41~42(오답률: 53.2%, 61.5%)

Once an event is noticed, an **onlooker** must decide if it is truly an **emergency**(P). **Emergencies**(P) are **not** always clearly (a) **labeled** as such(A); “smoke” pouring into a waiting room may be caused by fire, or it may merely **indicate** a **leak** in a steam pipe. Screams in the street may signal an attack or a family **quarrel**. A man lying in a doorway may be having a coronary — or he may simply be sleeping off a drunk.

일단 어떤 사건이 목격되면, 구경하는 사람은 그것이 정말로 비상 상황인지 결정해야 한다. / 비상 상황은 항상 명확하게 그와 같은 것으로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것은 아니다 / 대기실로 쏟아져 들어오는 ‘연기’는 화재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고 / 단순히 증기 파이프의 누출을 나타낼 수도 있다. / 거리에서의 비명은 공격을 나타내거나 가족 간의 다툼을 나타낼 수도 있다. / 출입구에 누워 있는 한 남자는 관상 동맥증을 앓고 있을 수도 있고 / 그저 술을 깨려고 잠을 자고 있을 수도 있다.

SHEAN.T 어떤 상황이 긴급 상황, 즉 P인지 판단하는 얘기이다. 근데 이 P는 항상 분명한 꼬리표(딱지, label)가 붙진 않는다. 예시를 가볍게 읽으며 이해할 수 있겠다.

A person trying to **interpret** a situation often looks at **those** around him to see how he should react(B,S). If everyone else is calm and **indifferent**, he will tend to remain so; if everyone else is reacting strongly, he is likely to become **alert**.

어떤 한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은 흔히 자기 주변 사람들을 본다 / 자신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 만약 다른 모든 사람이 침착하고 무관심하다면, / 그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 / 다른 모든 사람이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면, / 그는 아마 경계하게 될 것이다.

SHEAN.T 상황이 P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본다. B, S로 잡아주자. 다른 사람들이 가만 있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들이 강하게 반응하면 우리도 경계한다.

This tendency(B,S) is **not** merely **blind conformity**(A); ordinarily we **derive** much valuable information about new situations from how others around us behave(B).

이러한 경향은 단순히 맹목적인 순응이 아닌데, / 보통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 관한 많은 귀중한 정보를 얻는다 /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로부터.

SHEAN.T 이 BS를 not only(merely) A, but also(;) B의 논리로 설명해주고 있으니 중요한 문장이다 잡아주자. 이 다른 사람의 반응으로 PS를 정하는 것은 맹목적 순응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얻는 방식이다.

It's a (b) **rare** traveler who, in picking a roadside restaurant, chooses to stop at one where **no** other cars(B) appear in the parking lot.

길가의 식당을 고를 때 멈추는 여행객은 드물다 / 주차장에 다른 차가 없는 곳에서.

SHEAN.T 내용은 쉬운 문장이거나, 로직적으로는 '이중부정'을 잡아야 rare가 맞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다른 차들은 B이고, 이 B가 없으면 그 식당을 고를 여행자는 드물겠다(거의 없겠다).

But occasionally the reactions of others(B) provide (c) **false**(P ← **accurate**) information. The studied nonchalance of patients in a dentist's waiting room is a **poor** indication of their inner anxiety(P). It is considered **embarrassing** to “lose your cool” in public.

그러나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거짓(←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 연구원 치료 병원 대기실 환자의 무관심은 / 그들의 내면의 불안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 사람들 앞에서 ‘냉정을 잃는’ 것은 창피한 일로 여겨진다.

SHEAN.T But 나오니 집중! 이 앞까지 B,S 내용이었으니 P 내용이지 않을까 예상해보면 좋다. 근데 B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S 내용이다. 이미 '이상한데?' 생각하면서 뒤의 내용을 보니 poor 정보를 드러내는 P의 내용이다. 따라서 (c)를 P 단어인 false로 바꿔주어야 한다.

In a potentially **acute** situation(P), then, **everyone** present will appear more (d) **unconcerned** than he is in fact(P). A crowd(B) can thus force (e) **inaction**(P, not S) on its members by **implying**, through its **passivity**, that an event is **not** an **emergency**(P). Any individual in such a crowd fears that he may appear a fool if he behaves as though it were.

* coronary: 관상 동맥증 ** nonchalance: 무관심, 냉담

그렇다면, 잠재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실제보다 더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 따라서 군중은 구성원들이 가만히 있도록 강제할 수 있다 / 수동성을 통해 사건이 비상 상황이 아님을 넘기지 비중으로써. / 그런 군중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한다 / 그 사건이 비상 상황인 것처럼 행동하면 자신이 바보처럼 보일까 봐.

SHEAN.T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오히려 P가 될 수 있는 내용임을 확인하자. 심각한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실제보다 관심이 없는 것처럼(unconcerned) 보일 수 있어서 조치를 취하지 않게(inaction) 할 수 있다.

SHEAN.T 제목은 '개인 vs. 집단' '자신 vs. 다른 사람들'의 AB가 명확히 보이는 1번으로 가자!

3. 밑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Do We Judge **Independently**(A)? The Effect of **Crowds**(B)
우리는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는가? 군중의 영향
 - ② **Winning Strategy: How Not to Be Fooled by Others**(off)
승리 전략: 다른 사람에 의해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③ Do **Emergencies** Affect the Way of Our Thinking?(off)(23.0%)
비상 상황이 우리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끼치는가?
 - ④ **Stepping Towards Harmony with Your Neighbors**(off)
이웃과의 조화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기
 - ⑤ **Ways of Helping Others in Emergent Situations**(off)
비상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
4. 밑글 친 (a)~(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② (b) ③ (c) ④ (d)(30.7%) ⑤ (e)

SHEAN.T'S COMMENT

제목 정답: ③번 | 어휘 정답: ③번

아주 클래식한 소재, 기후변화이나, 역시 뭔가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이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기후 변화 지문을 많이 학습한 친구라면 익숙하게 읽을 터이니, 평가원 기출 반복 학습은 필수다. 또한, 기본적으로 P의 프레임 속에서, 이 P의 원인 속에 AB 대립성(빠른, 짧은 vs. 느린, 긴)으로 전개하는 부분이 아주 좋다. 꼼꼼히 단어/해석/논리를 챙기도록 하자.

P: 기후변화가 소설(상상)에 등장 X

P의 원인

not A: 기후변화가 빠르게, 짧은 시간 내에, 인식 가능하게 발생

not B: 기후변화가 느리게, 긴 시간에 걸쳐, 인식하기 어렵게 발생

VOCABULARY

1. humanist	1. 인문주의자	9. explosive	9. 폭발성의
2. climate crisis	2. 기후 위기	10. spectacular	10. 극적인
3. popular	3. 대중의	11. confront	11. 직면하게 하다
4. believably	4. 믿을 수 있게	12. representational	12. 표현상의, 대의의
5. contemporary	5. 현대의, 동시대의	13. glacier	13. 빙하
6. improbable	6. 사실 같지 않은	14. highlight	14. 강조하다
7. imperceptible	7. 감지할 수 없는	15. gradually	15. 점진적으로
8. occasionally	8. 가끔	16. ecocriticism	16. 생태학 비평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3.9.41~42(오답률: 43.9%, 57.1%)

Climate change experts and environmental **humanists** alike agree that the **climate crisis**(P) is, at its core, a crisis of the **imagination**(P) and much of the **popular** imagination is shaped by **fiction**(P).

기후 변화 전문가들과 환경 인문주의자들은 똑같이 동의한다 / 기후 위기가 근원적으로 상상력의 위기이며 / 대중적 상상력의 많은 부분이 소설에 의해 형성된다는 데.

SHEAN.T 거의 평가원 기출 소재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후 변화 얘기다. 기본적으로 P의 프레임을 강하게 깔고 읽자. 역시 단골 소재이지만 또 새로운 관점에서 제시를 한다(상선에서는 새로운 게 아니지만 평가원 기출에서는). 즉, 기후 변화가 사람들의 상상의 문제이고 이 상상은 허구 소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아~ 기후 변화가 실재가 아닌 허구 아니냐는 얘기구나~'라고 이미 이해하면(지문의 정확한 논지와 결은 비슷하고 살짝 다른 이해긴 하지만) 뒷부분 이해가 빠를 수 있겠다.

In his 2016 book *The Great Derangement*, anthropologist and novelist Amitav Ghosh takes on this relationship between imagination and environmental management(P), arguing that humans have failed to respond to climate change(P) at least in part because fiction (a) fails to believably represent it(P). Ghosh explains that climate change is largely absent from contemporary fiction(P) because the cyclones, floods, and other catastrophes it brings to mind simply seem too **“improbable”** to belong in stories about everyday life(A).

인류학자이자 소설가인 Amitav Ghosh는 자신의 2016년도 책 'The Great Derangement'에서 상상과 환경 관리 사이의 이러한 관계를 다룬다, / 주장하면서 / 인간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실패한 것은 /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소설이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 Ghosh는 기후 변화는 현대 소설에 대체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 그것이 상기시키는 사이클론, 홍수, 그리고 다른 큰 재해들이 그야말로 너무 '있을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 일상생활에 관한 이야기에 속하기에는.

SHEAN.T P 내용을 그대로 이어오면서, 인간이 기후 변화 대응에 실패한(P) 원인이 소설이 이 P를 믿을 수 있게 나타내지 못해서(fail)라고 말하고 있다. P이니 당연히 맞다. 다음 문장도 absent, improbable과 같은 부정어에 반응하며 잡고 이해하자. 기후 변화라는 P는 현대 소설에 부재한 P가 있는데, 이는 재앙과 같은 눈에 띄는 기후 변화들이 우리 일상에서는 '가능성 없게' 보이기 때문이다.

But climate change(P) does not only reveal itself as a series of (b) extraordinary events(A). In fact, as environmentalists and ecocritics from Rachel Carson to Rob Nixon have pointed out, environmental change can be **“imperceptible**(P,B)”; it proceeds (c) gradually(B ← rapidly), only occasionally producing **“explosive and spectacular”** events(A).

그러나 기후 변화는 일련의 놀라운 사건들로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 사실, Rachel Carson에서 Rob Nixon에 이르는 환경론자들과 생태 비평가들이 지적했듯이, / 환경 변화는 '감지할 수 없을' 수 있다. / 즉 그것은 점진적으로(← 빠르게) 진행된다, / 단지 이따금 '폭발적이고 극적인' 사건들을 만들어 낼 뿐이다.

SHEAN.T But 나오니 초집중! 하시고 not only를 통해 앞서 나온 '특이한(extraordinary) 사건들'을 A로 받아주는 것 확인하자. 다음 문장 In fact가 사실상 but also 역할을 한다. 즉 기후 변화는 '인식 불가능(imperceptible)'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SHEAN.T 이를 부연하는 어휘 (c)에서, rapidly를 보자마자 우선 '빠르게 vs. 느리게'라는 대립성을 떠올려야 한다. 이미 어휘, 언어 감각이 좋은 친구라면, '인식 불가능'하려면 느리게, 천천히, 알게 모르게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좋다. 그렇게 눈여겨 보다가 정답 확정은 지문 마지막까지 읽고 할 수 있겠다.

SHEAN.T 때때로 발생하는 폭발적 사건은 extraordinary events이니 A로 잡아줄 수 있겠다.

Most climate change impacts cannot be observed day-to-day(A), but they become (d) visible when we are confronted with their accumulated impacts(B).

대부분의 기후 변화의 영향은 매일 관찰될 수는 없다, / 하지만 그것들은 가시화된다 / 우리가 그것들의 축적된 영향에 직면할 때.

SHEAN.T 어휘 (d)는 가볍게 이 문장 내의 AB로 문제 없다 판단할 수 있겠다. 대부분의 기후 변화는 매일매일 (빠르게, 짧은 시간 내에) 관찰되는 게 아니라(not A), but 영향이 축적되면 (느리게, 긴 시간이 흐르면) 보인다(visible, B).

Climate change evades our imagination(P) because it poses significant representational challenges(P). It cannot be observed in “human time,”(A) which is why documentary filmmaker Jeff Orlowski, who tracks climate change effects on glaciers and coral reefs, uses “before and after” photographs taken several months apart(B) in the same place to (e) highlight changes that occurred gradually(B).

* anthropologist: 인류학자 ** catastrophe: 큰 재해 *** evade: 피하다
기후 변화는 우리의 상상에서 벗어난다 / 그것이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 그것은 '인간의 시간' 동안에는 관찰될 수 없다, / 그것이 이유이다 / 빙하와 산호초에 미치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 Jeff Orlowski가 / 수개월 간격으로 같은 장소에서 찍은 '전과 후' 사진을 이용하는 / 점진적으로 일어난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

SHEAN.T 2단락에서 P를 이어가면서, 다시 한번 not A but B로 AB 개념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자. 이 때, '빠른 속도, 짧은 시간' vs. '느린 속도, 긴 시간'이라는 AB를 사고에 깔고 읽지 않으면 '인간의 시간이 뒤지..' 이럴테니 유의하자. 인간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즉 A가 되고, 그래서 영화감독이 사용하는 '수 개월에 걸친 전후 사진'은 상대적으로 긴 시간, 즉 B가 되겠다. 이 긴 시간을 마지막 단어 gradually(점진적으로) 발생한 변화를 강조하며(highlight) 마무리하고 있다.

SHEAN.T '점진' vs. '급진'의 AB도, 평가원 빈출 개념이었기에, 이게 되어있는 친구라면 지문의 이 마지막 단어 gradually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다. 결국 경험의 차이이다. 여기서 확실히 어휘 (c)를 답으로 확정할 수 있겠다.

5. 밑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Differing Attitudes Towards Current Climate Issues(매력 off)
현재의 기후 문제에 대한 다양한 태도
* 이 지문은 필자가 일관되게 기후변화가 P인데 느리고 긴 시간에 걸쳐 발생하는 거라 눈치 채기 어렵다는 입장을 어필하고 있다. 필자와 대립되는 입장이 나와 이 둘을 대립적으로 전개하는 지문이 아니다.
- ② Slow but Significant: The History of Ecological Movements(off)
느리지만 중요하다: 생태 운동의 역사
- ③ The Silence of Imagination in Representing Climate Change(P)
기후 변화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상상력의 침묵
* '침묵'이라는 단어가 사실상 부정어로 쓰이면서, 기후 변화를 나타내는 데 상상이 침묵했다(실패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Vivid Threats(반대 쪽): Climate Disasters Spreading in Local Areas(off)
뚜렷한 위협: 지역에서 퍼져나가는 기후 재앙들
- ⑤ The Rise and Fall of Environmentalism and Ecocriticism(off)
환경주의와 생태 비평의 흥망성쇠

6. 밑글 친 (a)~(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② (b) ③ (c) ④ (d) (24.0%) ⑤ (e)

NOTE

SHEAN.T'S COMMENT

어휘 정답: ⑤번.

꼭 명심하자. '인간이 동물을 사냥하는 이야기네...' 하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말 토씨로' 답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니까 PS로 읽어야지, 지문 구조적으로 P인가 S인가 판단하는 거다. 이 지문은 지문 상단 however 앞까지는 인간의 P, 그 뒤는 인간의 S(순록 입장에서는 P)를 말하고 있다. 선지를 'S 기준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한다.

P: 크고 빠른 동물(특히 순록) 사냥 어려움 → S: 물에 약한 순록의 P를 겨냥하여 배 발명!

VOCABULARY

1. game	1. 사냥감	9. antler	9. (사슴의) 가지진 뿔
2. reindeer	2. 순록	10. glide	10. 미끄러지다
3. spear	3. 창	11. laboriously	11. 힘들게, 어렵게
4. uncertain	4. 불확실한	12. overtake	12. 따라잡다
5. mankind	5. 인류	13. prey	13. 먹이
6. mercilessly	6. 무자비하게	14. tribal camp	14. 부족 주둔지
7. afloat	7. (물에) 뜬	15. goods	15. 재화
8. vulnerable	8. 취약한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19.수능.30(오답률: 60.7%)

Europe's first *Homo sapiens* lived primarily on large **game**, particularly **reindeer**. **Even** under ideal circumstances, hunting these fast animals with **spear** or bow and arrow is an ① **uncertain task(P)**.

유럽 최초의 '호모 사피엔스'는 주로 큰 사냥감, 특히 순록을 먹고 살았다. / 심지어 이상적인 상황에서도, / 이런 빠른 동물을 창이나 활과 화살로 사냥하는 것은 / 불확실한 일이다.

SHEAN.T 첫 문장은 중요한가? ABPS 관점에서 그렇지 않다. 대립성도 없고 P도 없다. 인간이 큰 동물을 먹고 살았구나~ 하면 된다. 1번 선지 문장을 보자. Even을 통해 콤마 앞뒤의 대립성을 확인하자. 콤마 앞은 '이상적인 케이스'이니, 콤마 뒤는 P!!여야 한다. 따라서 동물 사냥이 '불확실(uncertain)'하다는 선지는 맞다. 꼭 강조한다. '불확실한가~ 확실한가~'와 같은 말장난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P인가 P가 아닌가' 판단하는 것.

The reindeer, **however**, had a ② **weakness that mankind would mercilessly exploit(인간 입장에서는 S!): it swam poorly. While afloat, it is uniquely ③ vulnerable (22.5%), moving slowly with its antlers held high as it struggles to keep its nose above water.**

하지만, 순록에게는 인류가 무자비하게 활용할 약점이 있었다: / 바로 순록이 수영을 잘 못한다는 것이었다. / 순록은 물에 떠 있는 동안, / 특이하게도 공격받기 쉬운 상태가 된다 / 가지진 뿔을 높이 쳐들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 코를 물 위로 내놓으려고 애 쓰면서.

SHEAN.T however!!! 나왔으니 집중하시고 로직적으로 반응하자. 이 앞까지 P였으니 S겠네? 생각하셔야 한다. 다만, 역시 수능이다. '추가적인 사고력'을 요구한다. weakness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P의 느낌이 맞다. 하지만, 이는 '순록의 입장에서 P이다. 인간의 입장에서 이 약점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exploit) S가 된다. 3번 선지도 마찬가지로. 순록 입장에서는 P지만, 인간 입장에서 이는 S다. 역시 수능!이라는 생각이 든다. '각 입장(순록과 인간을 AB로 잡아도 되나, 기호는 최대한 줄이는 게 좋다. 항상 이해가 본질)'에 따라서 PS가 다르다.

At some point, a Stone Age genius realized the enormous **hunting ④ advantage(S)** he would gain **by being able to glide over the water's surface(S)**, and built the first **boat(S)**.

어느 시점에서, 석기 시대의 한 천재가 깨달았다 / 자신이 얻을 엄청난 사냥의 이점을 /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이 움직일 수 있음으로써 / 그리고 최초의 배를 만들었다.

SHEAN.T 4번 선지도 마찬가지로 S의 프레임에서 맞다. 순록이 헤엄에 취약한 P가 있으니, 인간은 이를 활용해 배라는 S를 만들면, 이점(S)이 되겠다.

Once the ⑤ **easily(S, ←laboriously, P) overtaken and killed prey had been hauled aboard, getting its body back to the tribal camp would have been far easier by boat(S) than on land. It would not have taken long for mankind to apply this advantage to other goods.**

* exploit: 이용하다 ** haul: 끌어당기다

쉽게(←힘들게) 따라잡아서 도살한 먹잇감을 일단 배 위로 끌어 올리면, / 사체를 부족이 머무는 곳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훨씬 더 쉬웠을 것이다 / 육지에서보다는 배로. /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 인류가 이런 장점을 다른 물품에 적용하는 데는.

SHEAN.T 다시 한번, 제발제발제발 세세한 말장난으로 답을 판단하지 말고, P인가 S인가 판단하자. 인간은 배라는 S를 개발했으니, 순록을 '어렵게, 힘들게(laboriously)' 즉 P!!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S, 즉 쉽게(easily) 끌어 올리겠다. 답은 5번!

SHEAN.T'S COMMENT **VOCABULARY**

어휘 정답: ⑤번.

결국 '정답'은 P에서 S로 전환되는, 지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나온다는 걸 눈여겨 보자. P.. P.. P... 뉘앙스 느끼며, 내용 잡으며 읽다가 P에서 S로 전환되면서 집중하고 답 딱 내고 넘어가는 깔끔한 풀이 좀 해보자!

빛의 속력 측정

P: 실험 결과 '예측'에 실제 결과를 맞춤 → S: 실제 결과로 실험 보고!

1. demonstrate	1. 입증하다	9. subconsciously	9. 잠재의식적으로
2. basis	2. 기초	10. adjust	10. 조정하다
3. theory of relativity	3. 상대성 이론	11. fit	11. 부합하다
4. frequently	4. 빈번하게	12. intentionally	12. 의도적으로
5. quantity	5. 양, 수량	13. dishonest	13. 부정직한
6. as far as	6. ~하는 한	14. conventional wisdom	14. 일반 통념
7. opposite(n)	7. 정반대	15.	15.
8. bias	8. 편향, 편견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1.수능.30(오답률: 46.4%)

How the bandwagon effect occurs is **demonstrated** by the history of measurements of the speed of light. Because this speed is the **basis** of the **theory of relativity**, it's one of the most **frequently** and carefully measured ① **quantities** in science. **As far as** we know, the speed hasn't changed over time.

편승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입증된다 / 빛의 속력 측정의 역사로. / 이 빛의 속력은 상대성 이론의 기초이기 때문에, / 과학에서 가장 빈번하고 면밀하게 측정된 물리량 중 하나이다. / 우리가 아는 한, / 빛의 속력은 시간이 흘러도 이제껏 아무런 변함이 없었다.

SHEAN.T 이 부분까지는 아직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저 '편승 효과'에 대한 얘기구나~ 정도로 읽어주자. 1번 quantities는 '수량, 수치'를 뜻하고 빛의 속력 측정하기에 상식적으로 당연히 맞는 얘기다.

However, from 1870 to 1900, all the experiments found speeds that were **too high(P)**. Then, from 1900 to 1950, the ② **opposite** happened — all the experiments found speeds that were **too low(P)**!

하지만, 1870년부터 1900년까지 / 모든 실험에서 너무 높은 속력이 발견되었다. / 그리고 나서, 1900년부터 1950년까지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 즉, 모든 실험에서 너무 낮은 속력이 발견되었다!

SHEAN.T However!! 반응하시고, 드디어 본격적인 필자의 메시지, 로직의 시작이다. P의 시그널인 too에서도 팍팍 느끼자. 아 빛의 속도가 너무 높은, 너무 낮은 P케이스가 있구나! 높고 낮음의 대립성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opposite이 쓰였다.

This kind of error(P), where results are always on one side of the real value, is called "**bias(P)**." It probably happened because over time, **experimenters subconsciously adjusted** their results to ③ **match** (15.4%) what they expected to find(P). If a result **fit** what they expected, they kept it. If a result didn't fit, they threw it out. They weren't being **intentionally dishonest**, just ④ **influenced by the conventional wisdom(P)**.

이런 형태의 오류를, / 결과치가 항상 실제 값의 어느 한쪽에 있는, / '편향'이라고 한다. / 그것은 아마 생겨났을 것이다 / 시간이 지나면서 실험자들이 잠재의식적으로 결과를 조정했기 때문에 / 자신들이 발견할 것이라 예상한 것과 일치하도록. / 결과가 그들이 예상한 것과 부합하면, / 그들은 그것을 유지했다. / 결과가 부합하지 않으면, / 그들은 그것을 버렸다. / 그들은 의도적으로 부정직한 것은 아니었다, / 단지 일반 통념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뿐이었다.

SHEAN.T 3, 4번 선지 모두 'P'의 프레임에서 '맞구나' 이해한다. 아~ 문제가 뭐냐면, 실험 결과를 '예상치'에 맞도록 맞추고(match) 또 통념(conventional wisdom)에 영향을 받으니 P가 발생한다.

The pattern(P) only **changed** when someone ⑤ **had** (← lacked) the courage to report **what was actually measured(B,S)** **instead of what was expected(A,P)**.

* bandwagon effect: 편승 효과

그 패턴은 비로소 바뀌었다 / 누군가가 용기가 있었을(← 부족했을) 때가 되어서야 / 예상된 것 대신에 실제로 측정된 것을 보고할.

SHEAN.T 크... 역시 수능이다. 어휘 문제도 뭐다? PS 전환. changed!!!에 반응하자. The pattern은 앞까지 서술한 P를 받아주고, 이것이 바뀌었다고 하니 S, 즉 문제 해결 상황이 되겠다. instead of에도 반응하면서 앞뒤 대립성도 느껴주자. '예상한 것'에 맞추면 P이다. '실제로 측정된 것'에 맞춰야 S가 되겠다. 이렇게 할 용기가 '있어야'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 그 용기가 부족한(lacked) 것이 아니라!

SHEAN.T'S COMMENT

어휘 정답: ④번.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지문이 중간 'While'을 기준으로 위가 S, 아래가 P로 '양분' 되기 때문에 그 구조를 빨리 파악하셔서,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내는 게 중요하다. 역시 어휘 정답 선지는 PS로 나오는 것도 확인!

스포츠에서의 애착(팀, 상품 등)

S: 충성도 유지 vs. P: 효율성, 생산성 하락

VOCABULARY

1. trigger(v)	1. 촉발하다	9. emotional glue	9. 정서적 접착제
2. bring forth	2. 일으키다, 낳다	10. bind A to B	10. A를 B에 묶다
3. loyalty to N	3. ~에 대한 충성심	11. on-field	11. 구장 위에서 하는
4. identify with	4. ~와 동일시하다	12. intensity	12. 격렬함, 강도
5. insurance	5. 보험	13. attachment to N	13. ~에 대한 애착
6. border on	6. ~에 가깝다	14. nostalgia	14. 향수
7. obsession	7. 집착	15. defeat	15. 무산시키다
8. addiction	8. 중독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2.6.30(오답률: 54%)

Sport can **trigger** an emotional response in its consumers(B) of the kind **rarely brought forth** by other products(A). Imagine(예시 시작) bank customers buying memorabilia to show **loyalty to** their bank, or consumers ① **identifying** so strongly with their car **insurance** company(B) that they get a tattoo with its logo. We know that some sport followers are so ② **passionate about** players, teams and the sport itself(B) that their interest **borders on obsession**.

스포츠는 그것의 소비자에게 정서적 반응을 촉발시킬 수 있다 / 다른 제품이 좀처럼 일으키지 못하는 종류의. / 상상해 보라 / 은행 고객이 기념품을 구입하는 것을 / 그들은 은행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 혹은 고객이 그들 자동차 보험 회사에 대해 매우 강한 동일감을 가져서 / 회사 로고로 문신을 하는 것을. / 우리는 알고 있다 / 일부 스포츠 추종자들이 선수, 팀, 그리고 그 스포츠 자체에 매우 열정적이어서 / 그들의 관심이 집착에 아주 가깝다는 것을.

SHEAN.T 첫 문장부터 부정어 'rarely'가 보이니 앞뒤로 AB를 잡아보도록 하자. 스포츠를 통해 '다른' 제품이 아닌 '자신의' 스포츠에 대한 감정적 반응, 즉 애착을 느낀다는 어렵지 않은 얘기이다. 이 감정적 반응(애착)을 B로 잡아주자.

SHEAN.T Imagine!! 하면서 예시가 시작된다. 1, 2번 선지는 모두 B의 프레임에서 판단한다. 회사와 동일시(identify with)하고, 선수에게 열정이 있는 것은 (passionate), 모두 이 애착(B)에 대한 예시이다. 물론 은행의 예시는, 스포츠팀과 달리 은행 기업에 자신을 감정적으로 동일시하기는 어렵다는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음을 참고!

This **addiction**(B) provides the **emotional glue**(S) that **binds fans to teams**, and maintains **loyalty**(S) even in the face of **on-field** ③ **failure**(P) (27.8%).

이런 중독은 정서적 접착제를 제공한다 / 팬을 팀과 묶어주는, / 그리고 충성심을 유지하게 한다 / 구장에서 일어나는 실패에도.

SHEAN.T This addiction으로 로직 B를 계속 이어오는 것 확인. failure는 P!! 로 반응하면서, 이 P에 직면해서 B가 충성도 유지와 같은 S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한다. 어려운 얘기 아니다. 낱장두가 경기장에 등장하지 않은 것은 이 P를 메꿀 정도의 S가 불가능한, 도를 넘었던 상황인 거지.. 팬들의 충성도가 추락했다.

While most managers can only dream of **having** customers that are as **passionate** about their products as sport fans(S), the emotion triggered by sport can also **have a negative impact**(P). Sport's emotional **intensity** can mean that organisations have **strong attachments to the past**(P) through **nostalgia** and club tradition.

대부분의 관리자는 오직 꿈꿀 뿐이지만 / 스포츠팬만큼 그들 제품에 열정적인 고객을 가지기를, / 스포츠로 인해 촉발되는 감정은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스포츠의 정서적 격렬함은 의미할 수 있다 / 조직이 과거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 향수와 클럽 전통을 통해.

SHEAN.T While에 반응! 평가원 지문일수록 콤마 앞뒤 대립성을 짝꿍 드러내는 쓰임일 때가 많다. 콤마 앞은 여전히 B, S 얘기를 하고 있는 것 확인. 콤마 뒤에 P가 생기겠다. 어렵지 않게 '부정적 영향'을 P로 잡아주자. 중요!!!! 이 시점부터 내용을 P의 프레임에서 읽어야 한다. 즉, 두 번째 문장의 '과거에 대한 강한 애착'은, 언뜻 그냥 보면 좋아 보이지만, 필자가 이 내용을 꺼낸 이유는 'P'이기 때문이다.

As a result, they may ④ **increase**(S→ignore, P) efficiency, productivity and the need to respond quickly to changing market conditions. **For example**, a proposal to change club colours in order to project a more attractive image may be ⑤ **defeated**(P) because it breaks a link with tradition.

* memorabilia: 기념품 ** obsession: 집착
그 결과, 그것[조직]은 늘릴(→ 무시할) 수도 있다 / 효율성, 생산성 및 필요성을 /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 예를 들어, 클럽 색깔을 바꾸자는 제안은 / 더 매력적인 이미지를 투사하기 위해 / 무산될 수도 있다 / 그것이 전통과의 관계를 끊기 때문에.

SHEAN.T 계속해서 P의 프레임 속에 있어야 한다. 그 결과, 효율성이 증가하면 P가 아니라 S의 내용이다. '마이너스' 동사가 들어가야 P의 의미가 된다. 원문은 'ignore(무시하다)'였다. 어휘 5번도 P의 단어, 내용이네~를 확인하며 독해를 마무리한다.

SHEAN.T'S COMMENT	VOCABULARY			
<p>어휘 정답: ④번.</p> <p>산업, 운송... 같은 원가 되게 세부적인 내용이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에 현혹되지 않고 선지 2번부터 로직 P의 프레임으로 크게크게 읽어주는 게 중요하다. 선지가 P의 프레임에 있는데 S거나, S의 프레임에 있는데 P인 방식으로 최근 평가원 어휘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 꼭꼭 이 로직을 머릿속에 박아두도록 하자.</p> <p>운송의</p> <p>P: 재고 저장 X → 공급이 수요 초과</p> <p>S: 예기치 못한 수요 수용</p>	<p>1. take place</p> <p>2. sector</p> <p>3. be derived from</p> <p>4. trigger(v)</p> <p>5. replacement</p> <p>6. extraction</p> <p>7. transport, transportation</p> <p>8. store(v)</p>	<p>1. 발생하다</p> <p>2. 부문</p> <p>3. ~에서 파생되다</p> <p>4. 촉발하다</p> <p>5. 보충, 대체</p> <p>6. 추출</p> <p>7. 운송</p> <p>8. 저장하다</p>	<p>9. capacity</p> <p>10. bring back</p> <p>11. seize</p> <p>12. exceed</p> <p>13. equivalent</p> <p>14. accommodate</p> <p>15. unforeseen</p> <p>16.</p>	<p>9. 용량, 능력</p> <p>10. ~을 되돌리다</p> <p>11. 포착하다</p> <p>12. 초과하다</p> <p>13. 상응하는</p> <p>14. 수용하다</p> <p>15. 예측하지 못한</p> <p>16.</p>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2.9.30(오답률: 63%)

In economic systems what **takes place** in one sector(A) has impacts on another(B); demand for a good or service in one sector **is derived from** another. For instance, a consumer buying a good in a store(A) will likely **trigger** the **replacement** of this product, which will generate ① demands for activities such as manufacturing, resource **extraction** and, of course, **transport(B)**.

경제 시스템에서는 / 한 부문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부문에 영향을 미치며, / 한 부문에서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파생된다 / 다른 부문에서. / 예를 들어, 상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 아마 이 상품의 보충을 촉발할 것이고, / 이것은 창출할 것이다 / 활동에 대한 수요를 / 제조, 자원 추출, 그리고 물론 운송과 같은.

SHEAN.T 첫 문장에서 '두 부문'이 등장하니 가볍게 AB로 잡아주고, 둘의 관계를 이해하자. A가 B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 그 예시에 1번이 들어있고, 1번 앞의 A가 B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며 가볍게 1번을 넘어가자.

What is **different** about transport(B) is that it **cannot exist alone** and a movement **cannot be** ② **stored(P)**. An unsold product can remain on the shelf of a store until bought (often with discount incentives), **but** an unsold seat on a flight or unused cargo capacity in the same flight(B) **remains unsold(P)** and **cannot be brought back** as additional capacity ③ **later(P)**.

운송이 (상품과) 다른 점은 / 그것이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그리고 이동은 저장될 수 없다는 것이다. / 팔리지 않은 상품은 매장 진열대에 남아 있을 수 있다 / 구매될 때까지(흔히 할인 인센티브로), / 하지만 항공편의 팔리지 않은 좌석이나 / 동일 항공편의 미사용 화물 적재 용량은 / 팔리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된다 / 그리고 되돌릴 수 없다 / 이후에 추가 용량으로.

SHEAN.T 처음으로 반응해야 할 단어는 different가 되겠다. '운송에 대해 다른 점은..'이라고 하니, 필자가 말하고 싶은 '키워드'는 운송이 되겠다. 그 앞에 다른 것들은 이 순간 다 A가 되는 것(제조, 자원 추출 등..). 두 번째로, 이 B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는 부분(2번 선지 포함)을 P!!! 상황이구나 받아들여야 한다. 혼자로는 존재할 수 없고 이동은 저장될 수 없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P 상황이 되겠다.

SHEAN.T 이 2번 선지는 '상식적으로도' 운송이라는 서비스를 저장할 수 없으니 P가 맞고, 그 다음 문장의 but 다음에서도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겠다. 2번 선지부터 내 머릿속은 P의 프레임으로 독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즉, 3번 선지도 '나중에(later) 추가 용량이 될 수 없다'는 P를 서술하고 있구나~ 맞네,라고 이해해야 한다.

In this case(P) an opportunity has been ④ **seized(S → missed, P)**, since the amount of transport being offered has **exceeded** the demand for it(P). The derived demand of **transportation** is often very **difficult(P)** to reconcile with an **equivalent** supply, and actually transport companies would **prefer to have some additional capacity to accommodate** ⑤ (28.7%) **unforeseen demand(S)** (often at much higher prices).

* reconcile: 조화시키다

이 경우, 기회가 포착되었다(→ 상실되었다) / 제공되는 운송량이 그것에 대한 수요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 파생된 운송 수요는 흔히 매우 어렵다 / (그에) 상응하는 공급과 조화를 이루기가, 그래서 실제로 운송 회사들은 선호할 것이다 / 얼마간의 추가 용량을 갖는 것을 / 예측하지 못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 (흔히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SHEAN.T In this case!!!는 무슨 케이스인가? 바로 앞에서 계속 로직 P 케이스였으니 P를 이어온다. 이 상태에서, 세.부.적.으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P인지, P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기회를 잡는 것은(seize), P가 아니다. 기회를 놓쳐야(miss) P 케이스가 되겠다. 답은 4번. 당연히 전제는, 네가 seize의 뜻을 알아야 했다는 것! 어휘 암기는 다다익선이다. 어휘를 계속해서 암기하지 않고 영어 고정 1을 받았다는 생각은 어불성설이다.

SHEAN.T 마지막 5번 선지의 경우 이 예기치 못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용량을 갖는 것을 선호한다는 S 내용이구나 확인하면서 문풀을 마무리하자.

SHEAN.T'S COMMENT

요약 정답: ②번.

요약 문제로서는 '드물게도' PS가 좀 더 핵심 구조로 나오는 지문(물론 AB 개념이 같이 간다). S가 너무 나중에 나오는 것 빼고는, PS 구조적으로 요약문을 풀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

요약문에서 이미 PS임을 알아차리시고, 지문을 읽을 때 P는 뭐지??하고 읽어서 P를 잡아 요약 (A)에 넣고, 그 후에는 쟁~충 건너 뛰어서 S는 언제 나오지??라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읽어 요약 (B)를 빠르게 찾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히 이 짓을 위해 어휘력은 필수다.

건축의 P: 고정, 반복, 답습 → S: 변화 촉진 노력!

VOCABULARY

1. architecture	1. 건축	9. unparalleled	9. 비견할 데 없는
2. definition	2. 정의	10. marketable	10. 상품화 가능한
3. foreseeable future	3. 가까운 미래	11. radical	11. 급진적인
4. instrumentality	4. 수단, 방편	12. popularity	12. 인기
5. effect(v)	5. (결과를) 가져오다	13. commodity	13. 상품
6. dominance	6. 지배	14. comforting	14. 편안하게 하는
7. commercial	7. 상업의	15. rule(v)	15. 다스리다, 지배하다
8. diminish	8. 감소하다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0.9.40(오답률: 62.2%)

Seemingly innovative, architecture has actually become (A) (P) in its own convention and commercialized environment, so efforts(S) should be made to (B) (S) its power to change us.

겉보기에는 혁신적인, 건축은 실제로는 간하게 되었다 / 그 자체의 관습과 상업화된 환경에, / 따라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우리를 바꿀 건축의 힘을 활성화할.

SHEAN.T 문장 단위의 논리구조를 읽는 능력이 있다면, 요약문만 읽고도 이미 PS인 게 나오고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나오셔야 한다. 'Seemingly!!!!'에 환장해야 한다. '겉보기엔' 혁신적인 건축은.. 겉보기엔 혁신.. 실제론 아니란 거네? 뒤를 보니 actually(실제로는) 등장. 생각. 생각. 생각. 겉보기에는 좋은데(혁신적인데), 실제로는 이렇다. 이렇다의 뉘앙스는? P. (A)에는 P가 들어간다. 그러니 콤마 뒤에서 should라는 완벽한 시그널과 함께 efforts가 S로 임하고, (B)는 S구나. 지문의 구조도 전반부는 P, 후반부는 S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요약문에서 이미 지문의 구조를 머릿속에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Over the past few decades, architecture as an idea and practice has increasingly limited(P) its definition of itself. In the foreseeable future, the instrumentality of architecture in effecting actual change — that is, change that challenges the dominance of commercial institutions, their aims, and values — will diminish(P).

지난 몇십 년 간, / 생각과 실행으로서의 건축은 / 점차 그 자체에 대한 정의를 제한해 왔다. / 가까운 미래에, 건축이라는 수단은 / 실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 / - 즉, 상업적 기관의 지배, 목적, 그리고 가치에 반대하는 변화 - / 감소할 것이다.

SHEAN.T 단어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읽는 느낌이 아니라, 핵심 P를 잡는 느낌으로 잡는다. 아, 건축은 그 정의가 한정(limited)되어 있고, 또 변화를 일으킬 수단(instrumentality)이 감소하고(diminish) 있구나. P, P. 두 번째 문장의 하이픈 하이픈 부분은 제발 건너 뛰시고. 이미 P가 어떤 느낌인지 오셔야 한다. 제한적이고, 변화가 어렵고.. (A) 선지에서 이 타이밍에 결국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겠군, 하고 오시는 건 개념력(?)과 어휘력이다.

While the present day seems to be a time of unparalleled innovation and freedom of choice, the reality is that architectural styles and forms are often the attractive packaging and repackaging of the same proven, marketable concepts(A,P).

현재가 비견할 데 없는 혁신과 자유 선택의 시대로 보이는 반면, / 현실은 건축 양식과 형태가 종종 매력적인 포장과 재포장이라는 것이다 / 증명된, 팔릴 수 있는 똑같은 개념의.

SHEAN.T while이니 바로 문장의 구조를 그린다. 콤마 앞과 콤마 뒤. 콤마 앞은 'innovation, freedom' 등으로 건축이 좋다는 얘기. 콤마 뒤는 '같은 개념만 포장한다는' P. 계속 P가 이어진다. 사실 이쯤 되면 요약 (A)는 1, 2번으로 확실하 나와야 하고, '실전 풀이'를 하자면, 나의 눈은 빨리 'S!!!!'문장이 어딴지 찾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다음, 다다음 문장이 사실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S 문장이 아니고 뭔가 P를 부여하는 거 같네~ 하시고 훌쩍 마지막 문장으로 뛰어 넘을 줄 아셔야 한다. 요약 문제는, 발췌득이다.

The speed with which “radical” designs by celebrity architects achieve acceptance and popularity demonstrates that formal innovation has itself become an important commodity. However, beneath the cloak of radicalism, the conventions of existing building typologies and programs(A,P), with all their comforting familiarity(A), still rule — and sell.

유명 건축가에 의한 “급진적인” 디자인이 수용과 인기를 달성하는 속도는 보여준다 / 공식적인 혁신이 그 자체로 중요한 상품이 되었다는 것을. / 하지만, 이 급진주의의 망토 아래는, / 기존 건물 유형학과 프로그램의 관습이, / 이것들의 편안한 익숙함과 더불어, / 여전히 지배적이고 — 팔린다.

What is needed desperately today are approaches(S) to architecture that can free its potential to transform our ways of thinking and acting(S).

* cloak: 망토 ** typology: 유형학
오늘날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건축에 대한 접근방식이다 / 잠재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바꿀.

SHEAN.T 마지막 문장에서야 'needed!!!!'로 S를 표시해준다. 아, 우리의 사고를 '바꿀(transform)' 접근 방식이 필요하구나. 사실상 AB와 PS가 같이 가는 친구다. A,P: 변하지 않음, 옛날 방식에 고여있음. B,S: 바뀌어 함. (B)는 share야니면 activate인데, 변화의 힘(power to change)을 활성화(activate)시켜야지, 공유(share)하는 것은 뜬금 없는 소리가 되겠다.

(A)	(B)	(A)	(B)
① fixed 고정된 share (18%) 공유하다	② trapped 갇힌 activate 작동시키다
③ standardized 표준화된 control 통제하다	④ localized 국지적인 share 공유하다
⑤ underestimated 과소평가된 activate (18.8%) 작동시키다		

SHEAN.T'S COMMENT **VOCABULARY**

요약 정답: ②번.
 요약문부터 AB 대립적 사고를 천천히 해서 이미 답을 거의 예상하고 지문으로 들어가 발췌해야 한다(어휘력은 필수). 그러지 않으면 요즘 어려워지고 있는 요약 문제 지문에 크게 데일 수 있다.

- | | | | |
|------------------|------------------|------------------|---------------------|
| 1. materialism | 1. 물질주의 | 9. isolate | 9. 소외시키다, 고립시키다 |
| 2. detached from | 2. ~로부터 분리된, 소외된 | 10. focus group | 10. 포커스그룹(소수의 실험집단) |
| 3. entitled | 3. (~라는) 제목의 | 11. unite | 11. 합치다, 결속하다 |
| 4. nationwide | 4. 전국적인 | 12. cause(n) | 12. 대의 |
| 5. gain(n) | 5. 이익 | 13. unease | 13. 불안함 |
| 6. greed | 6. 탐욕 | 14. purely | 14. 순전히, 전적으로 |
| 7. priority | 7. 우선순위 | 15. cut off from | 15. ~와 단절시키다 |
| 8. atomize | 8. 개별화하다, 세분화하다 | 16. | 16. |

A: 물질주의로 인해 '혼자'만 불안 < B: 다른 사람들도 같이 불안(사회적)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1.9.40(오답률: 58.1%)

Many Americans(A), believing that **materialism** keeps them from (A) **social values**(B), feel **detached from most others**(not B = A), but this is actually a fairly (B) concern.
 물질주의가 자신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막는다고 믿는 많은 미국인은 / 대다수의 다른 사람들로 부터 동떨어진 듯하다고 느낀다, /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상당히 공통적인 우려이다.

SHEAN.T 요약문은 요약문부터 이미 거의 답을 내고 가셔야 한다. 찬찬히 AB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우선 Many Americans. 바로 A 느낌이 난다. A는 물질주의가 사회적 가치를 (A)하지 못한다고 믿는다. 선지를 보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거나(pursuing), 부인하는(denying) 것이다. 음... 통념은... 물질을 추구하면 사회적 가치(정신적)를 추구하는 걸 막는다(keep from)는 게 아닐까? 이 미 1, 2번이 아닐까 80퍼 정도 확정하셔야 한다.

SHEAN.T 그리고 이 A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다(detached) 느끼는데, but!!!!!!!!!!!!!! 반응!!!!!!!!!!!!!! but 앞뒤는 대립성이 있다 제발. 그렇다면, 이 문제는 동떨어져서 혼자 느끼는 게 아니라, '같이!!!' 느끼는 거겠네? unnecessary보다는 common이 아주 어울릴 것 같다. 지문에서 각각의 단어가 맞는지 확인만 발췌독으로 하는 거다!

Research from the Harwood Institute for Public Innovation in the USA shows that people feel that '**materialism**' somehow comes between them and the satisfaction of **their social needs**.

미국에서 Harwood Institute for Public Innovation의 연구는 보여준다 / 사람들이 그들과 그들의 사회적 욕구의 만족 사이에 '물질주의'가 어떻게든 끼어든다고 느낀다고.

SHEAN.T ... (A)는 끝. 물질주의가 사회적 욕구 충족과 자신 사이에 위치한다(즉 길을 막는다). pursuing 확정.

A report **entitled** *Yearning for Balance*, based on a **nationwide** survey of Americans, concluded that they were 'deeply ambivalent about wealth and material **gain**'. A large majority of people wanted society to 'move away from **greed** and excess toward a way of life more centred on values, community, and family'.

미국인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토대로 한 Yearning for Balance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결론지었다 / 그들이 '부와 물질적 이익에 관해 대단히 가치적 양면성을 띄고 있다'고. / 대다수의 사람들은 원했다 / 사회가 '탐욕과 과잉에서 벗어나 / 삶의 방식으로 향하기를 / 좀 더 가치, 공동체, 가족 중심의'.

But they also felt that these **priorities** were not **shared** by most of their fellow Americans, who, they believed, had become 'increasingly **atomized**, selfish, and irresponsible'. As a result they often felt **isolated**.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우선순위가 공유되지 않는다고 느끼기도 했다 / 대다수의 동료 미국인에 의해 / 그들이 믿기에 '점차 개별화되고, 이기적이며, 무책임해진.' / 그 결과, 그들은 종종 소외된 기분이 들었다.

SHEAN.T 선티는 이 But 앞까지는 거의 안 읽는 느낌으로 속 내려왔다. 선지(B)의 경우는 But 뒤에나 등장하겠지.. 그리고 드디어, (B)의 단어와 동의어가 등장한다. shared = common.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가치가 다른 이들과 공유되지 못한다고 느끼는데..

However, the report says, that when brought together in **focus groups** to discuss these issues, people were 'surprised and excited to find that others **share[d]** their views'.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포커스그룹으로 모였을 때, /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견해를 공유한다[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놀라고 흥분'했다.

SHEAN.T However, 실제로는 share한다. 바로 common을 답으로 확정하고, 뒤는 거의 안 읽다시피 해야 '시간'이 단축된다.

Rather than **uniting** us with others in a **common**(B) **cause**, the **unease** we feel about the loss of social values and the way we are drawn into the pursuit of material gain is often experienced as if it were a **purely** **private**(A) **ambivalence** which **cuts us off from** others.

* ambivalent: 양면 가치의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공동의 대의로 결속하기보다는, /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은 / 사회적 가치의 상실과 물질적 이익의 추구로 끌려 들어가는 방식에 대해 / 종종 경험된다 / 마치 이것이 순전히 개인의 양면 가치인 것처럼 /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단절시키는.

SHEAN.T 마지막에 Rather than을 통해 not A but B 논리로 정확하게 common을 제시해주니, 당연히 여기서 답을 확정해도 좋다!

- | | | | |
|-------------------------------------|-----------|-------------------------|-----------|
| (A) | (B) | (A) | (B) |
| ① pursuing unnecessary(27.5%) | 추구하는 불필요한 | ② pursuing common | 추구하는 공통적인 |
| ③ holding personal | 지니는 개인적인 | ④ denying ethical | 부정하는 윤리적인 |
| ⑤ denying primary | 부정하는 주된 | | |

SHEAN.T'S COMMENT **VOCABULARY**

요약 정답: ③번.

당해연도 6월 평가원에서 보였듯, 요약문은 쉽고 지문이 너무 어려운 형태로 나왔다. 그러니 제발제발제발 요약문부터 선지와 함께 찬찬히 상식적으로 읽고 답을 거의 내고 지문에서 확인만 하는 발체독을 하도록 하자.

문화 정치 권력

not A: 균일, 동일, but B: 다 다른

→ A로 보는 건 P!

1. equation	1. 동일시함, 등식	9. fixation	9. 고정, 집착
2. dominance	2. 지배력	10. leap(n)	10. 도약, 비약
3. questionable	3. 의심스러운	11. shaky	11. 불안정한
4. conceivably	4. 아마도	12. personhood	12. 개성
5. bothersome	5. 성가신	13. obsession	13. 강박 관념, 집착
6. be fond of	6. ~을 좋아하다	14. bias	14. 편견
7. autonomy	7. 자율성	15. construct(n)	15. 생각
8. allergic to N	8. ~을 몹시 싫어하는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1.수능.40(오답률: 60.5%)

It is (A) (P) to understand political power in other cultures through our own notion of it because ideas of political power are not (B) (A) across cultures.

잘못 이해된 것이다 / 다른 문화에서의 정치 권력을 이해하는 것은 / 정치 권력에 대한 우리 자신의 개념을 통해 / 왜냐하면 정치 권력에 관한 생각은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 여러 문화에 걸쳐.

SHEAN.T 요약문부터 찬찬히 읽고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그러지 않으면 지문의 쓸데없는 어려움에 털릴 수 있다. 요약은 상식적으로 나온다.

SHEAN.T 우선 because 앞 주절에 해당하는 (A)부터 보자. 다른 문화의 정치 권력을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A)라는 것. 선지를 보자. 제발제발 선지 grouping부터 봐야 한다. 어떻게? P냐 아니냐로. 3, 4번은 P이고, 나머지 선지는 P가 아니다. 우리 문화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다른 문화들(예를 들어 서양) 우리 문화의 관점(예를 들어 동양)으로 이해하면 옳다고 하는가!?!? 누가??? 보통은 문화는 상대적인 것이라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 않니...? 당연히 P 단어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제발 요약은 상식선에서 낸다. (A)는 3, 4번으로 줄이자.

SHEAN.T 그럼 요약 (B)를 볼까? 요약 (B)는 친구들이 'P의 이유'가 되겠네? 또한 선지가 AB로 grouping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1, 4번은 '변화'의 그룹에, 2, 3번은 '고정, 동일'의 그룹에. 정치 권력에 대한 생각이 문화에 걸쳐.. 다 '다르니까' 문제일까 '똑같으니까' 문제일까? 다 상대적으로 관점이 다르니까 문제 아닐까??? 너랑 나랑 의견이 똑같으면 문제가 없잖아. 근데 요약 (B) 앞에 not이 있으니, 합쳐서 '똑같지 않다'로 가야겠지. 3번으로 답을 거의 확정하고, 지문에서 확인만 하자.

SHEAN.T 방금 선지가 한 짓거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어휘력, 해석력, 상식만 있으면 된다. 이 정도가 아직 안 된다면 어휘 해석 부단히 채우셔야 한다.

From a cross-cultural perspective the **equation** between **public leadership(A)** and **dominance(B)** is **questionable**. What does one mean by 'dominance'? Does it indicate coercion? Or control over 'the most valued'? 'Political' systems may be about both, either, or **conceivably** neither. The idea of 'control' would be a **bothersome** one for many peoples, as for instance among many native peoples of Amazonia where all members of a community **are fond of** their personal **autonomy** and notably **allergic to** any obvious expression of control or coercion.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 대중적인 지도력과 지배력 사이의 등식은 의심스럽다. / '지배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 그것은 강제를 나타내는 것인가? / 아니면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대한 통제인가? / '정치적' 시스템은 둘 다에 관한 것일 수도, / 둘 중 하나에 관한 것일 수도, / 아니면 아마도 둘 다에 관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 '통제'라는 생각은 많은 부족에게는 성가신 것일 것이다, / 예를 들어 아마존의 많은 원주민 부족 사이에서처럼 말이다 /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개인의 자율성을 좋아하고 / 통제나 강제가 명백하게 표현되는 어떤 것이든 몹시 싫어하는.

SHEAN.T '실전적' 해설을 하자면, 선택도 요약은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지 하고 읽었을 때 딱 이 지점까지 '어렵게' 느껴진다. 수험생은 오죽할까. 제발 요약문 통해서 대략 답이 나왔다면 이런 너무 어려운 말을 서술하는 부분들 쿨하게 넘어가주자.

The conception of political power as a *coercive* force, while it may be a Western **fixation**, is **not a universal(A)**. It is very unusual for an Amazonian leader to give an order. If many peoples do **not** view political power as a *coercive* force(A), *nor as the most valued domain*, then the **leap from 'the political(A)' to 'domination(B)'** (as coercion), *and from there* to 'domination of women', is a **shaky one(P)**. As Marilyn Strathern has remarked, **the notions of 'the political' and 'political personhood'(A)** are **cultural obsessions** of our own(P), a **bias(P)** long reflected in anthropological constructs.

* coercion: 강제 ** autonomy: 자율

*** anthropological: 인류학의

'강제적인' 힘으로서 정치 권력이라는 개념은, / 서양의 고정관념일지 모르겠지만, /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 매우 이례적이다 / 아마존의 지도자가 명령을 내리는 것은. / 많은 부족이 정치 권력을 강제적인 힘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 '또한 가장 가치 있는 영역으로' / '정치적인 것'에서 (강제로서의) '지배'로 비약하는 것은 / '그리고 거기에서' '여성에 대한 지배'로 (비약하는 것은) / 불안정한 비약이다. / Marilyn Strathern이 말한 것처럼, / '정치적인 것'과 '정치적 개성'이라는 개념은 우리 자신의 문화적 강박 관념이다, / 즉 편견이다 / 인류학적 구성 개념에 오랫동안 반영된.

SHEAN.T 어유.. 말 너무 어렵게 한다. 선택은 우선 'not'에 반응하면서 보편적인 게(universal) 아니라고~에서 요약 (B)를 확정하고, 마지막 부분 obsession, bias 등의 단어에서 요약 (A)를 확정했다. 지배가 무슨 말이고 강제가 무슨 말인지 사후적으로 설명은 다 가능하겠지만, 실전에서 전혀 도움 안 되는 부분이기 에, 로직만 표시해 둔다.

	(A)	(B)
①	rational 합리적인	flexible 유연하지 (22.5%)
②	appropriate 적절한	commonplace(A) 흔하지 (19%)
③	misguided(P) 잘못 이해된	uniform(A) 일률적이지
④	unreasonable(P) 불합리한	varied 다양하지
⑤	effective 효과적인	objective 객관적이지

SHEAN.T'S COMMENT VOCABULARY

요약 정답: ①번.

요약문에 Although가 보이는 순간 아싸 ㄱㅇㄷ! 외치시고 앞뒤 대립적으로 문장 독해를 한다. PS로 콤마 앞뒤를 잡아 (A)의 답 후보를 좁히고, AB 적으로 사고해(좁다 vs. 넓다) (B)의 후보를 좁히고 지문에서 '확인만' 해야 한다.

A: 컴퓨터, 맥락 없는 정보 처리 가능

B: 맥락이 있는 포괄적 정보 처리(판단)

- 1. decontextualized 1. 탈맥락화된 9. diminish 9. 감소시키다
2. interfere with 2. ~을 방해하다 10. perspective 10. 관점
3. effectively 3. 사실상, 효과적으로 11. instantaneous 11. 순간적인
4. manageable 4. 다루기 쉬운 12. anticipate 12. 예상하다
5. unattainable 5. 얻을 수 없는 13. isolated 13. 고립된
6. package(v) 6. 포장하다, 제시하다 14. continuum 14. 연속
7. memorization 7. 기억 15. manipulation 15. 조작
8. unimaginable 8. 상상할 수 없는 16. principal(a) 16. 주요한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2.9.40(오답률: 63%)

Although the computer is clearly (A) (S) at handling information in a decontextualized way, it interferes(P) with our making (B) (B) judgments related to the broader context(B), as can be seen in policymaking processes.

컴퓨터는 유능한 것이 분명하지만 / 탈맥락화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 컴퓨터는 방해한다 / 우리가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 더 광범위한 맥락과 관련된, /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SHEAN.T 요약문에 Although!!라는 콤마 앞뒤 대립 표현이 있으니, 아싸!!!를 외치며 요약문을 콤마 앞뒤 대립적으로 천천히, 읽어주자. 콤마 앞은 컴퓨터의 정보 처리 능력이 (A)라는 얘기이다. 콤마 뒤에 interfere를 P!!!로 반응해보자. 왜? 우리의 어떤 판단 능력을 방해하니까. 그렇다면 콤마 앞은 P가 아니라 뭐여야 할까? S. 쉽게 말해서 (A)에는 우리가 정보 처리를 '잘한다' 정도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

SHEAN.T (A) 선지를 보자. 3, 5번은 P 단어로 제길 수 있어야 한다. 1, 2, 4번이 S에 해당하는 '잘한다'의 단어가 되겠다. 뉘앙스도 좀 느낄 수 있다면 '지배적인(dominant)'이라는 것은 단순히 잘한다라는 의미라기엔 좀 어색하다. 1, 4번 정도로 후보를 줄일 수 있겠다. 나는 이제 우리의 '포괄적(comprehensive)' 판단 능력을 방해하는지, '법적(legal)' 판단 능력을 방해하는지 지문을 발췌해두면 된다.

SHEAN.T 물론, AB 감이 좋은 친구라면, (B) 뒤의 '더 넓은 맥락'을 보고 넓은 것.. 맥락... 포괄...로 이미 (B) 단어도 1번으로 좁힐 수 있겠다(아니 사기가 아니고.. 반에 영어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봐... 어휘 해석 논리력이 있으면 이렇게 되지).

The computer has, to a considerable extent, solved the problem of acquiring, preserving, and retrieving information(S). Data can be stored in effectively unlimited quantities and in manageable form. The computer(B) makes available a range of data unattainable in the age of books(A). It packages it effectively; style(A) is no longer needed to make it accessible, nor is memorization(A). In dealing with a single decision separated from its context, the computer(B) supplies tools unimaginable even a decade ago(A).

컴퓨터는 상당한 정도로 문제를 해결했다 / 정보를 획득하고, 보존하고, 추출하는. / 데이터는 저장될 수 있다 / 사실상 무한량으로 / 그리고 다루기 쉬운 형태로. / 컴퓨터는 이용할 수 있게 한다 / 다양한 데이터를 / 책의 시대에는 얻을 수 없는. / 그것(컴퓨터)은 그것(데이터)을 효과적으로 제시한다, / (특수한) 방식은 더는 필요하지 않다 /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 또한 암기도 필요하지 않다. / 단 한 가지 결정을 처리할 때 / 맥락과 분리된 / 컴퓨터는 도구들을 제공한다 /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SHEAN.T 이 지문의 중반까지, 컴퓨터의 S 능력을 not A but B로 표현해주는 걸 확인하자. 정말 확인만 한다. 우리는 어떤 판단 능력에 P!!를 일으키는지를 봐야 한다.

But it(B) also diminishes perspective(P). Because information is so accessible and communication instantaneous, there is a diminution of focus on its significance(P), or even on the definition of what is significant.

하지만 그것은 또한 관점을 감소시킨다. / 정보에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고 / 의사소통이 순간적이기 때문에, / 관심 집중이 감소한다 / 그것의 중요성에 관한 / 혹은 심지어 중요한 것의 정의에 관한.

SHEAN.T But!!!이 나왔으니 집중하시고, 여기서부터 '관점을 감소시킨다'는 P를 잡아주자. 여기서 '관점'이라는 것은 단순 정보와 대비되는, 좀 더 '큰 맥락'이 구나라고 AB 대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This dynamic(P) may encourage policymakers to wait for an issue to arise(P) rather than anticipate it(S), and to regard moments of decision as a series of isolated events(A,P) rather than part of a historical continuum(B,S). When this happens(P), manipulation of information(A,P) replaces reflection(B,S) as the principal policy tool.

* retrieve: (정보를) 추출하다 ** diminution: 감소
이런 역학은 장려할 수 있다 / 정책 입안자들이 쟁점이 발생하기를 기다리도록 / 쟁점을 예상하기보다는, / 그리고 결정의 순간을 간주하도록 / 일련의 고립되어 일어나는 일로 / 역사적인 연속의 일부라기보다는. / 이런 일이 일어나면, / 정보 조작은 대체한다 / 주요한 정책 도구로서의 속고름.

SHEAN.T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 rather than!!!에 반응하면서 더 확실하게 AB 느낌을 잡아주자. 특히 두번째 rather than 앞뒤로 '단독 vs. 연속'이라는, '단일 vs. 전체' 느낌의 AB를 팍팍 잡아줄 수 있어야 한다. 이미 기출에 직접 등장했거든. 따라서 B 능력은 '연속, 전체, 맥락'을 보는 능력이구나, '포괄적' 능력이구나, 1번으로 답을 확정 짓자. 지금 이 짓(?)은, 어휘력이 확실하면 아주 빠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comprehensive가 뭐였더라..), 말짱 도루묵이다.

- (A) (B) (A) (B)
① competent ... comprehensive ② dominant ... biased (23.7%)
유능한 종합적인 지배적인 편향된
③ imperfect ... informed ④ impressive ... legal
불완전한 잘 아는 인상 깊은 합법적인
⑤ inefficient ... timely
비효율적인 시기적절한

SHEAN.T'S COMMENT VOCABULARY

제목 정답: ③번. | 어휘 정답: ②번.

무난한 AB가 보이는 장문이다. 제발 2장문은, 단락1 단 순화, 단락2 단순화를 통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단순화 에 더욱 더 AB가 강력하게 쓰이고, 이 지문 또한 첫 문 장부터 AB를 잡아준 뒤, 여가가 자본주의의 결과라는 핵 심만 단순화해서 쪽 읽어내려가면 문제 없다. 구조도를 그 리면 다음과 같다.

A와 B의 분리
by 자본주의(고용주)

A와 B의 분리
by 자본주의(시장 형성)

1. industrial capitalism	1. 산업 자본주의	9. bounded work time	9. 구분되는 근무 시간
2. leisure	2. 여가	10. enlarge	10. 확대하다
3. in the modern sense of the term	3. 현대 용어로 말하자면	11. entitlement	11. 자격, 권리
4. cotton masters	4. 면직 공장주	12. commercialization	12. 상업화
5. rule out	5. exclude	13. pastime	13. 여가 시간
6. explicitly	6. 대놓고(외부적으로)	14. exploit	14. 이용하다, 착취하다
7. distinct	7. 구분되는	15. consumer demand	15. 소비자 수요
8. taking of days off	8. 휴가 쓰기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19. 수능. 41~42(42번 오답률: 62.1%)

Industrial capitalism not only created **work(A)**, it also created **'leisure(B)'** in the modern sense of the term. This might seem surprising, for the early **cotton masters** wanted to keep their machinery running as long as possible and forced their employees to work very long hours.

산업 자본주의는 일을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 현대 용어로 말하면 '여가'도 만들어냈다. / 이는 놀라워 보일지도 모른다, / 초기 면직 공장주들은 자신들의 기계를 가능한 한 계속 돌 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 그리고 직원들을 매우 긴 시간 동안 일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SHEAN.T 첫 문장부터 not only A but also B를 해주니, 바로 AB를 우선 잡아준 다. 물론 이 AB가 뒤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다. 다행히 이 지문에서는 이 AB가 그대로 가지만. 자본주의가 일(A)뿐만 아니라 여가(B)도 만든다니! 일만 시켜야 하는 자본주의에서! 신기하다!는 내용.

However, by requiring continuous work during work hours and **ruling out** non-work activity, employers had (a) **separated** out **leisure(B) from work(A)**.

하지만, 근무 시간에는 계속 일하게 요구하고 / 비근무 활동을 배제함으로써, / 고용주들 은 여가를 일로부터 분리시켰다.

SHEAN.T However, AB 분리는 고용주가 '일부러' 한 것. (a)는 문제 없다.

Some did this quite **explicitly** by creating **distinct** holiday periods, when factories were shut down, because it was better to do this than have work (b) **promoted**(→ **disrupted**) by the casual **taking of days off**.

몇몇은 이를 대놓고 했다 / 공장이 문을 닫는 구분되는 휴가 기간을 만들었으므로, /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았기 때문에 / 일이 일상적인 휴가로 인해 **촉진되는**(→**방해받는**) 것보다.

SHEAN.T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어휘 정답 부분. 지문 논리 속에서 나온다기 보다(뒤 연결은 되지만), 해당 문장 부분만 읽고도 답이 쉽게 나온다. 일(work)은 일상적인 휴가를 가는 것(the casual taking of days off)에 의해 당연히 '방해받 겠다(disrupted)'. '촉진되는(promoted)' 게 아니라. 밑줄 어휘 정답은 2번!

'Leisure(B)' as a **distinct non-work time(B)**, whether in the form of the holiday, weekend, or evening, was a result of the disciplined and **bounded work time** created by capitalist production.

구분되는 비근무 시간으로서의 '여가'는 / 휴일, 주말, 저녁 어떤 형태로든, / 통제되고 구 분되는 근무 시간의 결과였다 / 자본주의 생산으로 만들어진.

SHEAN.T B는 (신기하게도) 자본주의의 결과!

Workers then wanted more leisure and leisure time was **enlarged** by union campaigns, which first started in the cotton industry, and eventually new laws were passed that (c) **limited** the **hours of work(A)** and gave workers holiday **entitlements(B)**.

근로자들은 그 후 더 많은 여가를 원했고 / 노조 운동으로 여가 시간이 더 확장되었다, / 면직 산업에서 처음 시작했지만 / 결국 새로운 법이 통과되었다 / 근무 시간을 제한하고 근로자들에게 휴일 권리를 부여한.

SHEAN.T 여가 시간을 더 원했으니, A는 제한되고(limited), B는 늘었다.

Leisure(B) was also the creation of capitalism in another sense, through the **commercialization** of leisure. This no longer meant participation in traditional sports and **pastimes**. Workers began to (d) **pay** for leisure activities organized by capitalist enterprises. Mass travel to spectator sports, especially football and horse-racing, where people could be charged for entry, was now possible.

여가는 또한 다른 관점에서는 자본주의의 창조물이었다, / 여가의 상업화를 통해서. / 이 는 더 이상 의미하지 않았다 / 전통 스포츠와 여가시간에 대한 참여를. / 근로자들은 여가 활동에 돈을 내기 시작했다 / 자본주의 기업들이 조직한. / 특히 축구나 경마 같은 관중 스포츠로 대거 모이는 것은 / 사람들이 입장료를 내야 하는, / 이제 가능한 얘기다.

SHEAN.T 여가가 자본주의의 산물이라는 얘기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 자본주의의 것이니 이제 돈을 지불하기(pay) 시작한다. 넘 당연.

The importance of this can hardly be exaggerated, for whole new industries were emerging to **exploit** and (e) **develop** the **leisure market(B)**, which was to become a huge source of **consumer demand**, employment, and profit.

* discipline: 통제하다 ** enterprise: 기업(체) *** exaggerate: 과장하다
그 중요성은 과장된 것이 아니다, / 완전 새로운 산업이 등장해 여가 시장을 이용하고 발전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 그 시장은 소비자 수요, 고용, 수익의 큰 원천이 될 것이었다.

SHEAN.T B 시장이 더 커진 것으로 마무리 - 제목은 그대로 자본주의 속 B, 3번으로!

1. 앞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What It Takes to Satisfy Workers(off)
근로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
 - ② Why Workers Have Struggled for More Leisure
근로자들이 더 많은 여가를 위해 싸워온 이유
→ 여가는 근로자가 아닌 오히려 자본주의에 기반해 고용주가 만들어낸 것.
 - ③ The Birth and Evolution of **Leisure(B)** in Capitalism(O)
자본주의 속 여가의 탄생과 진화
 - ④ How to Strike a Balance Between **Work(A)** and **Leisure(B)**
일과 여가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 → 선지는 A=B 쪽인데, 지문은 A<B.
 - ⑤ The Light and Dark Sides of the Modern Leisure Industry(off)
현대 여가 산업의 명암
2. 밑줄 친 (a)~(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a) ② (b) ③ (c) (23.7%) ④ (d) ⑤ (e)

SHEAN.T'S COMMENT VOCABULARY

제목 정답: ①번. | 어휘 정답: ④번.

‘페루’ 예시 전 부분에서 AB를 확실하게 잡아주고 그 핵심 개념으로 선지 판단만 하고 문장을 끝내야 한다. 장문일수록, 더 skipping 혹은 skimming하는 부분이 많아 짐을 명심하자.

‘거시적’ AB를 잡자면,

A: 토지와 물 결합 < B: 토지와 물 분리, 물에 경제적 가치 생성

- 1. be transferred with 1. ~와 양도되다, 전달되다 9. derived from 9. ~에서 얻어진
2. state land reform 2. 국가토지개혁 10. flash flood 10. 갑작스런 홍수
3. at auction 3. 경매에서 11. be subject to N 11. ~의 대상이다, 영향에있다
4. favour(v) 4. 선호하다, 좋아하다 12. constitute 12. ~로 여겨지다, 구성하다
5. ensure 5. 보장하다 13. bypass 13. 우회하다, 우회로
6. grant(v) 6. give 14. substantial 14. 상당한
7. allocate, allocation 7. 할당하다, 할당 15. fair share 15. 공정한(상당한) 몫
8. runoff 8. 유수(流水)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1.6.41~42(41번 오답률: 56.6%)

In many mountain regions, rights of access to water are associated with the possession of land — until recently in the Andes, for example, land and water rights were (a) combined so water rights were transferred with the land.
많은 산악 지역에서, 물 이용권은 토지의 소유와 연관되어 있다 / — 예를 들어, 최근까지 안데스 산맥에서는, / 토지와 물 권리가 결합되어 토지와 함께 물 권리가 이전되었다.

SHEAN.T 첫 문장. '토지'와 '물' 두 개의 대상이 등장하니, 이 둘의 AB인가? 둘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네? 정도로 이해.

However, through state land reforms and the development of additional sources of supply, water rights(B) have become separated from land(A), and may be sold at auction.
그러나 주(州) 토지 개혁과 추가 공급원의 개발을 통해, / 물 권리가 토지와 분리되어 경매에 부쳐질 수도 있다.

SHEAN.T However, 둘이 분리된다. 여기서 확실히 물과 토지를 AB로 잡아준다. 물 권리를 말하기 위해 토지를 끌고 온 것이므로, 물을 B, 토지를 A로 잡아준다.

This therefore (b) favours those who can pay(B), rather than ensuring access to all in the community. The situation arises, therefore, where individuals may hold land(A) with no water(B).
그러므로 이것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 지역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기보다는. / 따라서 물이 없는 땅을 개인이 보유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긴다.

SHEAN.T AB가 분리되면서, B를 얻으려면 값을 지불해야 하고, 따라서 A는 있지만 B가 없는 경우도 발생!

In Peru(사실상 예시), the government grants water(B) to communities separately from land(A), and it is up to the community to allocate it. Likewise in Yemen, the traditional allocation was one measure (tasah) of water to one hundred 'libnah' of land. This applied only to traditional irrigation supplies — from runoff, wells, etc., where a supply was (c) guaranteed.
페루에서는, 정부가 토지와는 별도로 지역 사회에 물을 주고, / 그것을 분배하는 것은 공동체의 몫이다. / 예멘에서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분배는 100'립나'의 토지에 1척(타사)의 물이었다. / 이는 공급이 보장되었던 유수(流水), 우물 등의 전통적인 관계 공급에만 적용되었다.

SHEAN.T 딱 봐도 구체적으로 엄청 어려워 보이지만, 제발 핵심만 이해하자. A에 비례해 B를 주었다는 것이니, '기존'의 A+B 방식이다. 그리고 (c)의 경우, 당연히 우물(well)에서는 물 공급이 보장된다.

Water derived from the capture of flash floods is not subject to Islamic law as this constitutes an uncertain source, and is therefore free for those able to collect and use it.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을 억류해서 얻어진 물은 / 불확실한 수원(水源)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슬람 율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따라서 그 물을 모아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료이다.

SHEAN.T 예시의 연장이기 때문에, 이슬람 율법 어찌고를 이해할 필요 없다. 이런 '어려운 말을 늘어놓지만 쓸데없는 것' 좀 쿨하게 넘어가자 πππ.

However, this traditional allocation per unit of land(A) has been bypassed, partly by the development of new supplies(A), but also by the (d) increase(← decrease) in cultivation of a crop of substantial economic importance(B). This crop is harvested throughout the year and thus requires more than its fair share of water. The economic status of the crop (e) ensures that water rights can be bought or bribed away from subsistence crops.
* irrigation: 관개(灌溉) ** bribe: 매수하다
*** subsistence crop: 생계용 작물
그러나 토지 단위에 따라 하는 이 전통적인 분배는 우회되었다, /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공급처 개발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작물의 재배 증가(← 감소)에 의해서도. / 이 작물은 일 년 내내 수확되고, / 따라서 적절한 몫의 물 그 이상을 필요로 한다. / 그 작물의 경제적 지위는 보장한다 / 생계형 작물로부터 물 권리를 사거나 매수할 수 있도록.

SHEAN.T 오히려 이 However부터 초집중. A,B가 같이 가다가 However가 나왔으니, 이제 AB가 '분리' 되겠다. 기존의 A+B 방식은 not only 물의 새로운 공급(A), but also 작물 경작 감소(B)에 의해서 우회되었다(피해졌다)고 한다. (d)를 보니 어떤 작물 경작 감소가 이유다. 헌데 이 작물은 연중 내내 재배되어 물을 많이 필요로 하고, (e)까지 보니 이 작물이 AB 분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 이 작물의 경작이 감소하면 안 되고 증가해야 하겠다! 어휘 답은 4번. 제목은 이 AB의 분리를 no를 통해 아름답게 표현한, 1번.

- 3.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Water Rights(B) No Longer Tied to Land(A)
더는 토지에 얽매이지 않는 물 권리
② Strategies for Trading Water Rights(off)
물 권리 매매 전략
③ Water Storage Methods(off): Mountain vs. Desert
물 저장 방법: 산 대(對) 사막
④ Water Supplies Not Stable in Mountain Regions(off) (22.6%)
산악 지역에 안정적이지 않은 물 공급
⑤ Unending Debates: Which Crop We Should Grow(off)
끝없는 논쟁: 우리는 어떤 작물을 재배해야 하는가
4. 밑줄 친 (a)~(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SHEAN.T'S COMMENT **VOCABULARY**

제목 정답: ③번. | 어휘 정답: ④번.

역시 완전완전 AB 개념이다. 제발 예시 시작 전 AB의 개념을 ‘내부 vs. 외부’로 딱 잡아주고, 개미가 하는 짓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skimming하셔서 빠르고 정확하게 어휘, 제목 답을 순서대로 내야 한다.

개미의 복잡한 행동

not A: 개미 내부의 복잡성, but B: 개미 외부의 (환경) 복잡성

1. irresistible	1. 억누를 수 없는	9. navigational	9. 항행의
2. tendency	2. 경향	10. work out	10. ~을 알아내다
3. attribute A to B	3. B에게 A가 있다고 생각하다	11. infer	11. 추론하다
4. complexity	4. 복잡성	12. mechanism	12. 기제
5. purely	5. 순전히	13. interaction	13. 상호작용
6. visualize	6. 마음속에 그려 보다	14. illustrate	14. 보여주다
7. irregular	7. 불규칙한	15. correlation	15. 상관관계
8. complicated	8. 복잡한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1.수능.41~42(오답률: 44.9%, 41.6%)

Our irresistible tendency(A) to see things in human terms — that we are often mistaken in **attributing** complex human motives and processing abilities **to** other species — **does not** mean that an animal’s behavior is **not**, in fact, complex(B). **Rather**, it means that the **complexity** of the animal’s behavior is **not purely** a (a) product of its internal complexity(A).

우리의 억누를 수 없는 경향은 / 인간의 견지에서 사물을 보는 / 즉 우리가 흔히 잘 못 생각하는 것은 / 다른 종들에게 복잡한 인간의 동기와 처리 능력이 있다고 — /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동물의 행동이 사실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 오히려 그것은 의미한다 / 동물 행동의 복잡성이 순전히 그것의 내적 복잡성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SHEAN.T 첫 문장부터 통념(경향=A), 부정어 not을 마구마구 때려주니 찬찬히 읽고 AB 기능을 잡으셔야 한다. 이때 대시(하이픈 o o)는 건너 뛰는 게 좋겠다. 우리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물의 행동이 ‘복잡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중부정’해주시, 결국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잡하다’는 얘기다. 우선 complex라는 특성을 B로 잡아주자.

SHEAN.T 엇... 그런데 다음 문장에 Rather를 쳐주시 앞뒤로 다시 로직을 설정하자. 근데 또 쉽지 않은 게 뒤에서 또 not을 때리니 잘 천천히 읽고 이해해야 한다. Rather 문장을 집중적으로 보면, 션티에게 크게 들어오는 것은 not, 그리고 internal이다. 왜? ‘내부’라는 개념이.. 기출을 했다면 너무나 지겹게도.. ‘외부’라는 개념과 대립적으로 설정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내부의 복잡성’이라는 개념을 A로 잡아준다. 나는 뒤에서 ‘외부’에 해당하는 개념에 민감하게 읽어야 하겠다.

Herbert Simon’s “parable of the ant” makes this point(not A) very clearly. Imagine an ant walking along a beach, and (b) visualize tracking the trajectory of the ant as it moves. The trajectory would show a lot of twists and turns, and would be very **irregular** and complicated. **One could then suppose** that the ant had equally **complicated** (c) internal navigational abilities(A), and **work out** what these were likely to be by analyzing the trajectory to **infer** the rules and **mechanisms** that could produce such a complex navigational path.

Herbert Simon의 ‘개미 우화’는 이 점을 매우 분명하게 말해 준다. / 개미 한 마리가 해변을 따라 걷는 것을 상상해 보라, / 그리고 그 개미가 그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 보라 / 이동함에 따라. / 그 이동 경로는 여러 차례 구부러지고 방향이 바뀔 것이고, / 매우 불규칙하고 복잡할 것이다. / 그렇다면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 그 개미에게 동등하게 복잡한 내적 항행 능력이 있다고, / 그리고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 이것이 무엇일 수 있는지를 / 그 이동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 규칙과 기제를 추론하기 위해 / 그런 복잡한 항행 경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SHEAN.T 개미의 예시가 시작되니 빠르게 읽으며 선지 어휘 및 AB의 개념만 체크한다. 어휘 (b)는 Imagine과 더불어 맞는, 별 의미 없는 선지이고, 어휘 (c)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가정, 즉 통념을 말하니 internal, 로직 A가 맞다. 이것이 맞음으로써 어휘 (a)도 맞다고 확인 가능하다.

The complexity of the trajectory, **however**, “is really a complexity in the surface of the beach(B), **not** a complexity in the ant(A).” In reality, the ant(A) may be using a set of very (d) complex(→ simple, A) rules: it is the **interaction** of these rules with the environment(B) that actually produces the complex trajectory, **not** the ant alone(A). Put more generally, the parable of the ant **illustrates** that there is **no** necessary **correlation** between the complexity of an (e) observed behavior(B) and the complexity of the mechanism that produces it(A).

* parable: 우화 ** trajectory: 이동 경로

하지만 그 이동 경로의 복잡성은 / ‘실제로 해변 지면에서의 복잡성이다 / 그 개미의 내적 복잡성이 아니라.’ / 사실 그 개미는 일련의 매우 복잡한(→ 단순한) 규칙들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 바로 이 규칙들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다 / 그 복잡한 이동 경로를 실제로 만들어 내는 것은, / 그 개미 단독으로가 아니라. /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 개미 우화는 보여 준다 / 필연적인 상관관계가 없음을 / 관찰된 행동의 복잡성과 그것(복잡한 행동)을 만들어 내는 기제의 복잡성 사이의.

SHEAN.T however가 나왔으니 집중. 드디어 not을 기준으로 앞뒤 AB를 때려준다. 그리고 AB 개념이 이해가 된다. 아~~~ 복잡성이라는 게 개미 ‘내부(자체)’의 복잡성이 아니라 해변(환경, 외부)의 복잡성이라고~~~. 한데 어휘 (d) 문장의 주어는 개미(A)이고, complex는 로직 B의 특성이다. 바로 탈락. 원문은 ‘simple’이었다 ^^.

SHEAN.T 션티는 보통 이렇게 4번 쯤에서 어휘 답이 나올 경우 뒤는 그냥 AB 체크만 하고 독해를 끝낸 뒤 이 AB를 그대로 살려 정답을 고른다. 또 물어보고 답하기, 3번이 정답. 3번에 대한 답을 B, 즉 ‘외부 환경’이라 할 수 있겠다. 1번은 매력적 오답. B 개념은 들어가 있으나 ‘동물 행동’이라는 키워드가 없다.

5. 밑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Open the Mysterious Door(off) to Environmental Complexity(B)! (16.7%)
환경의 복잡성에 이르는 신비의 문을 열라!
- ② Peaceful Coexistence of Human Beings and Animals(off)
인간과 동물의 평화로운 공존
- ③ What Makes the Complexity of Animal Behavior?(B)
무엇이 동물 행동의 복잡성을 만드는가?
- ④ Animals’ Dilemma: Finding Their Way in a Human World(off)
동물의 딜레마: 인간 세계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기
- ⑤ Environmental Influences on Human Behavior Complexity(off)
인간 행동 복잡성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

6. 밑글 친 (a) ~ (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② (b) ③ (c) (18.6%) ④ (d) ⑤ (e)

SHEAN.T'S COMMENT **VOCABULARY**

제목 정답: ②번. | 어휘 정답: ⑤번.

ABPS가 결합된 아름다운 지문이다. 수능도 별일 없으면 이렇게 2장문은 AB 스텝이 강할 것이니 ‘개념 대립적으로’ 읽는 것을 잊지 말자. 문장의 ABPS ‘판단’만 하며 빠르게 빠르게 내려 와야 한다. Randomization을 설명하는 부분.. 같은 거 읽고 있으면 장문에서 허송세월 다 보낸다.

P: 실험의 함정들

S: not 다른 조건(A), but 동일 조건(B)으로 진행!

1. examine	1. 조사하다	9. flip a coin	9. 동전을 던지다
2. supplement	2. 보충제	10. track record	10. 기록, 전적
3. control group	3. 통제 집단	11. with respect to N	11. ~와 관련하여
4. determine	4. 알아내다, 결정하다	12. rule out	12. ~를 배제하다
5. inherent	5. 내재하는	13. severity	13. 심각성
6. sort(v)	6. 분류하다	14. duration	14. 지속 기간
7. be assigned to N	7. ~에 배정되다	15. nutrient	15. 영양분
8. randomization	8. 임의 추출	16. apparent	16. 분명한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2.9.41~42(오답률: 60%, 66%)

In studies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vitamin C, researchers typically divide the subjects into **two groups**. **One group(A)**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s a vitamin C **supplement**, and **the other(B)** (the control group) **does not**. Researchers observe both groups to **determine** whether one group has fewer or shorter colds than the other.

비타민 C의 효과를 조사하는 연구에서, / 연구원들은 일반적으로 실험 대상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눈다. / 한 집단(실험 집단)은 비타민 C 보충제를 받고, / 다른 집단(통제 집단)은 받지 않는다. / 연구원들은 두 집단 모두를 관찰한다 / 알아내기 위해 / 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감기에 더 적게 또는 더 짧게 걸리는지를.

SHEAN.T 두 집단으로 나누니 가볍게 AB로 나눠주자. 비타민 C의 효능에 대한 실험이고, A가 실험 집단, B가 통제 집단이 된다. 노파심에 간단히 적으면, 실험 집단은 변수를 적용하는 집단이고(비타민 C를 복용시키고), 통제 집단은 변수를 통제하는(비타민 C를 복용시키지 않는) 집단이 되겠다.

The following discussion describes some of the **pitfalls(P)** **inherent** in an experiment of this kind and **ways(S)** to (a) **avoid them(P)**. In **sorting** subjects into two groups, researchers **must ensure that each person has an (b) equal(B)** chance of **being assigned(S)** to either the experimental group or the control group. **This(S)** is accomplished by **randomization(S)**; that is, the subjects are chosen randomly from the same population by **flipping a coin** or some other method involving chance. **Randomization(S)** **helps** to ensure that results reflect the treatment and not factors that might influence the grouping of subjects.

이어지는 논의는 설명한다 / 이러한 종류의 실험에 내재한 함정 중 일부를 / 그리고 이를 피하는 방법을. / 실험 대상자를 두 집단으로 분류할 때, / 연구원들은 반드시 확실히 해야 한다 / 각 개인이 동일한 확률을 가지도록 / 실험 집단 또는 통제 집단 둘 중 한 곳에 배정될. / 이는 임의 추출에 의해 달성된다 / 즉 실험 대상자는 임의로 선정된다 / 동일 모집단에서 / 동전 던지거나 우연이 포함된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 / 임의 추출은 확실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반드시 결과에 처리가 반영되도록, / 그리고 요인은 반영되지 않도록 / 실험 대상자의 분류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SHEAN.T 그렇게 이 두 집단의 AB인가? 하고 읽어내려왔는데, pitfalls!! ways!! avoid!! 등과 같은 단어를 보면서 로직을 PS 중심으로 바꿔준다. 아 실험할 때의 P와 이를 피하는 S가 이 지문의 핵심이구나. 첫번째 S의 조건인 equal(b)을 로직 B로 잡아주자. 당연하도, 각자의 사람은 두 집단에 배정될 가능성(chance)이 동일해야(equal) 한다. ‘같다’는 개념이 B이므로, ‘다르다’는 개념은 A가 되겠다. 이 B를 도와주는 방법(S)이 ‘랜덤으로 하는 거구나~’ 확인만 해준다.

Importantly, the two groups of people **must** be **similar(B)** and **must have the same track record(B,S) with respect to colds** to (c)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observed **differences(A)** in the rate, **severity**, or **duration** of colds might have occurred anyway. If, for example, the control group would normally catch twice as many colds as the **experimental group(A)**, then the findings prove (d) **nothing(P)**.

중요한 것은, 두 집단의 사람들이 비슷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리고 감기와 관련하여 동일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 관찰된 차이가 / 감기의 비율, 심각성, 또는 지속 기간에서 / 어떤 식으로든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 예를 들어, 통제 집단이 감기에 무려 두 배나 많이 걸리는 경우 / 보통 실험 집단보다, / 그러던 연구 결과는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한다.

SHEAN.T Importantly!!!라고 해주니, 당연히 중요하니까 집중하시고, must까지 해주니 similar라는 ‘동일’ 조건을 B로 다시 한번 잡아준다. ‘다르다’라는 조건은 A겠군, 이라고 이미 ‘대.립.적.으.로’ 사고하고 있어야 differences를 A로 잡으면서, 이 A를 배제한다(rule out)는 내용이 맞구나 알 수 있겠다. 참고로 rule out은 exclude의 의미로, 17.6.34 빈칸 지문에 키워드로 쓰인 후 선택가 항상 강조해왔는데(마피 빈칸 선지에도 씬..) 출제되었다. 평가원 영어 기출의 중요성.

SHEAN.T 어휘 (d) 문장은 이해가 중요하다. 통제 집단이 실험 집단보다 감기 걸릴 가능성이 두 배 더 높은 것은 둘의 조건이 ‘다른’ A 케이스가 되었고, 그럼 아무것도 입증 못하는(nothing) P!!가 되겠다. 문제 없다.

In experiments involving a **nutrient**, the diets of both groups **must** also be (e) **different(A → similar, B)**, especially with respect to the nutrient being studied. If **those in the experimental group were receiving less vitamin C from their usual diet(A)**, then **any effects of the supplement may not be apparent(P)**.

* pitfall: 함정

영양분을 포함하는 실험에서, / 두 집단의 식단 또한 달라야(→ 비슷해야) 한다, / 특히 연구 중인 영양분에 관해서. / 실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평소 식단에서 비타민 C를 적게 섭취하고 있었다면, / 보충제의 어떤 효과도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SHEAN.T ㅎㅎㅎㅎ 결국 알마나 ‘대.립.적.으.로’ AB로 읽고 내려오고 있나 물어보고 있다. 어휘 (e)는 must에 걸리니 당연히 B!!! 즉, ‘같다’는 조건이어야 한다. ‘다른(different)’이 아니라. 어휘 답은 5번. 제목은 이 AB가 포함된 PS로 예쁘게 표현된 2번으로 가자.

7. 밑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Perfect Planning and Faulty Results: A Sad Reality in Research(off)
완벽한 계획과 불완전한 결과: 연구의 슬픈 현실
 - ② Don't Let Irrelevant Factors(P) Influence the Results!
상관없는 요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라!
 - ③ Protect Human Subjects Involved in Experimental Research!(off)
실험 연구에 참여하는 인간 실험 대상자들을 보호하라!
 - ④ What Nutrients Could Better Defend Against Colds?(off) (16.5%)
어떤 영양분이 감기를 더 잘 막을 수 있을까?
 - ⑤ In-depth Analysis of Nutrition: A Key Player for Human Health(off)
영양에 대한 심층 분석: 인간의 건강을 위한 핵심 요소
8. 밑글 친 (a)~(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② (b) ③ (c) ④ (d) (25.2%) ⑤ (e)